

성경 공과

제2권

성취반 (Advance Class 2)



다윗과 골리앗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2권

Advance Class 2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2권 제5반, adult class만을 가지고 성취반, Advanced Class 2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승천하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날을 오래 전부터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의 구름에 이미 오셨기에 아무리 자연계의 하늘을 쳐다본들 헛수고 일 뿐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상응으로 씌어진 말씀(the Word)의 글자에 담긴 속뜻을 밝히 알 수 있게 해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속뜻(inner sense)의 파악은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를 이해하여야만 가능해집니다.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서 해석과 그에 따른 참 교리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서에 담겨 천천히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정독하시고 싶은 성서 독자가에게 도움을 주고저 위 선견자의 저서를 기초로 본권은 편집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선택한 성서는 공동번역인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뿐입니다. 그러나 상응에 의거한 해석은 직역된 글자여야 가능하므로 다른 번역 성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취득하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오로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2절

차례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첫 4일) 창세기 1장1-19절	9
2. 아담의 일을 거들 짝 창세기 2장 8-25절	16
3. 홍수가 빠지다 창세기 8장	24
4. 아브람과 롯 창세기 13장 1-13절, 14장 1-16절	31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창세기 22장 1-14절	39
6. 야곱의 꿈 창세기 28장	47
7. 감옥에 갇힌 요셉 창세기 39; 40장	55
8. 불붙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	64
9. 마라와 엘림 출애굽기 15장	72
10. 퀘 출애굽기 25장 1-12절	80
11. 열 두 스펀 민수기 13; 14장	88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여호수아 1장	98
13. 아이 성의 포획 여호수아 7; 8장	105
14. 판관 기드온 판관기 6; 7장	114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상 3장	125
16. 사울의 성급함 사무엘상 13장	132
17.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40
18. 솔로몬의 영화 열왕기상 9;10장	150
19.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59
20. 히즈기야 왕과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166
21. 시편에 관하여(2) 시편 19편	174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2) 예레미야 1장	183
23. 예제키엘의 환상 예제키엘 1장	190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요엘 4장 9-20절(개역 성경 3: 9-21)	197
25. 요나와 큰 물고기 요나 1, 2장	203

26. 주님의 세례	마가복음 1장	209
27. 새 포도주	마가복음 2장	216
28. 열 두 사도	마가복음 3장	224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마가복음 4장	231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마가복음 5장	238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마가복음 6장	246
32.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마가복음 10장	254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마가복음 11장	263
34. 성 만찬	마가복음 14장	270
35.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	마가복음 15장	280
36. 부활하신 예수	마가복음 16장	288
37.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4장	295
38. 봉인된 책	요한 계시록 5장	301
39. 심판과 거룩한 성	요한 계시록 20장 1-15절, 21장 1-7절	307
40. 새 교회 날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314

1

창조 (첫 4일)

머리말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염두 해야 할 사항은 창조 이야기가 성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서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이다. 이는 영적 이해와 진정한 선한 생활에 필수 사항이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와 주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 배움을 위한 유일하며 확실한 근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열어 주시는 말씀을 공부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제 2권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부의 기초인 책은 주님의 책이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 본문은 창조의 첫 4일 동안에 관한 것이나, 7일간의 이모저모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1-19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돌아 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 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돌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교리 요약 (Doctrinal Points)

- * 우리는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 「Jehovah, 여호와」는 “ 스스로 계신 분, I am”이라는 뜻을 첫 째로 알아야 한다.
- * 말씀 전체는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로 쓰인 비유이다.
- * 믿음이란 어떤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임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된다.
- * 선한 행실로 인도하지 못한 진리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상응 연구

땅 = 자연적 마음
식물들 = 우리 마음 안에서 발달되는 진리들
과일들 = 선한 일들
새들 = 생각들
동물들 = 애착들, 하고 싶은 마음들
하늘 = 영적 마음

해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 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군가가 이 구절을 막연히 읽어가는 것은 꽤 곤란하다. “많은 책들”이 심판되어지는 이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는 것 혹은 “생명의 책”이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서에 기록된 것이라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식의 구원관이다. 자연 과학이 발달되기 전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글자대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데 별반 문제점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직자들이 성서의 내용을 말한 대로 혹은 해석한 대로 주님께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믿음 속에서 살아 왔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성서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은 스스로 성서를 읽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서에 관한 견해차가 생겨났다.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되는 행동 지침에 관한 견해 차이는 어쩔 수 없이 큰 차이점들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더욱이 이러한 차이점들은 자연 과학의 발견들이 성경 내의 설화체에 대한 글자적 신빙성에 의문을 던짐으로써 더욱 부각되었다. 실제로 성서의 독특한 성격은 수많은 성서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로 점점 더 명확해 가리라 본다. 인간 지성의

산물이라고 성서를 단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성서를 읽다보면 그것이 주는 어떤 힘을 느낀다고 고백하며 그 힘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 그분으로부터 온 계시임을 인간이 인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과오가 아니다. 이 거절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주님은 인간이 그분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언제나 말씀해 주셨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셨다(누가복음 24:25, 27).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취해야 할 일들을 허용하시기 전,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6:12). 이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많은 계시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이 이러한 계시들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자 주님은 임마누엘 스웨덴봄을 통하여 계시들의 참된 의미를 밝혀 알게 해 주셨다. 그럼으로써 주님은 성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혹은 과학적인 공격들이 가해지는 때가 오기 전에 스웨덴봄을 통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스웨덴봄은 천국의 신비(Arcana Coelestia)에서 많은 예증을 통해 주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천국의 신비 제 2674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이 역사적 서술들이 신비를 내포하고 있음을 목측 때와 금과 은을 많이 가진 부유한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들을 낳아준 하녀와 그가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빵과 물만을 주면서 떠나보낸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반복적으로 내적인 의미에 관한 지식만이 성경의 글자 속에 든 독특함을 풀이할 수 있음과 주님이 선한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내적 의미를 구원할 특수한 목적으로 밝히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한 후 그리고 성인들이 말씀의 글자뿐만 아니라 내적 의미를 공부해야 함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창조 이야기는 이런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가장 표면적인 예에 해당된다. 과학은 창조 이야기가 글자대로 진리일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고고학은 다른 고대 문학 안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파헤쳐 끄집어 올리고 있다. 스웨덴봄이

창조 이야기 속의 신성을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 이야기에 신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이야기는 말씀의 기반이 되며 우리의 창조에 대한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신성한 섭리가 역사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기초가 됨이 틀림없다. 스웨덴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지는 것은 성서의 첫 11장까지는 역사성이 없으며 12장부터가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11장까지는 모세가 고대 말씀으로부터 베낀 것이며, 고대 말씀은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이요 모세 시대까지도 그 존재가 남아 있었다. 창조, 에덴의 동산 또는 홍수 이야기들은 히브리인들이 고대 말씀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사건에 그들의 근원을 가진 것 외에 문학 작품들 속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해들은 것을 토대로 하여 만든 단순한 이야기일 뿐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감이 없다. 고대 말씀은 순수한 상징어로 쓰여 있으며, 고대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고 썼던 언어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거나 그것을 물질적 우주의 창조에 관한 기사로 우겨댈 수는 없다. 우리는 고대 말씀에 속하는 책들 가운데 일부가 성경의 몇 군데에서 이름만이 전해지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수기 21:14-16, 27-28; 여호수아 10:13; 사무엘 하 1:18을 참고 하자.) 또한 욥기서는 학자들을 꽤 당황하게 만드는데, 이는 아주 오래된 히브리 책들 속에 있는 언어적 특질이 그 책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책은 높게 발달된 철학적 개념이 든 “고대 교회에 속한 책”이긴 하나, 내적 의미가 빠져 있고 “단순히 고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한 표현의 형체”로 씌어졌을 따름이라고 스웨덴봄은 말한다. (천국의 신비 제 2682항)

창조 이야기 역시 영감 된 말씀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으며 그 안에 몇 개의 의미적 등차를 갖고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인간 영혼의 창조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유아기로부터 성인 생활까지의 발달에 대한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스웨덴봄은 거듭남의 과정으로서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모든 개개인은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다. 즉, 하늘과 땅인 보다 높은 본성인 영적인 것과 보다 낮은 본성인 자연적인 것을 갖고 있다.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하면, 자기 고집때문이든, 혹은 너무 순진함 때문에서이든 그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어 발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깨우시는 역사를 쉬지 않으신다. 일깨워지는 역사의 첫 응답이 바로 빛이 오는 것이다. 빛이 온 뒤에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련된 지식과 자연적인 것에 관련된 지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갈라짐이다.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바, 인간이 하느님을 인식하여 그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할 때까지는 실제로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 시작에서의 처음에 인간의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다른 것들로부터 근원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든 지식은 흐트러진 산만한 지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 원리의 기초를 두는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것들이 그의 영혼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주님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며 그분의 안내에 신뢰를 두는 것임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알게 된다. 즉, 본문에서의 해와 달 그리고 별이 하늘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해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빛을 발하는 주님을 사랑함이다. 달과 별은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며 이해할 수 없는 때조차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과 신뢰이다. 별들이란 영적인 것들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다.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관련 지워 주며, 우리 속에서 점진적으로 어떤 틀을 갖추어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문의 새와 고기 그리고 동물들은 생각이나 애착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생겨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게 된다. 그리하여 한 인간이 진정한 인간으로 형성되어가는 바, 창조자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된다. 인간은 이 수준에 도달되어야만 진정한 쉼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또는 “밤, 낮 하루가 지났다”라고 반복되는 말씀을 살펴보자. 본문의 주된 내용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이다.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특성은 빛이 나타남과 그 결과 즉 빛의 증가이다. 영감 된 말씀의 글자 안에는 그 어느 곳에도 우연이란 것이 없다. 우리는 자연적인 활동 상태에서 하루를 아침에서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아침에는 힘이 있지만 일을 마치는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지치게 되기 마련이다. 저녁이 되면 생명력과 정신력 그리고 육체의 근력도 한결같이 아래로

기울어져 잠을 자야하는 상태, 즉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하는 쪽으로 하향한다. 스웨덴봄은 하루 중에서 잠자는 동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행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는 수면 동안은 우리 자신의 업무나 자연계에 관한 우리의 관심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적인 영향에 문을 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긴 수면 시간이 필요하며, 치료를 위해서도 숙면이 요구 된다. 신체적 재건은 수면에 대한 최소한의 값어치일 뿐이다. 누군가가 평균적으로 필요한 수면시간보다 훨씬 짧은 수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를 모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진보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즉 무지함에서 이해함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닌 창조자의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진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 2) 하느님에 대해 어떤 책이 말해 주는가?
- 3)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 4)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빛을 만드셨는가?
- 5) 성서는 며칠 동안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 6)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 7) 우리 영혼의 측면에서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 9) 창조 이야기는 실제로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10) 주님은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 11) 영적으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성서 3) 우리로 보게 해줌 4) 해, 달, 별들
- 5) 6일 6) 하느님이 쉬셨다 7) 보다 높은 본성과 보다 낮은 본성
- 8) 진리 9) 하느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발달시키시는가에 대해서
- 10) 인류로부터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11) 거듭남 또는 인격의 완성

2

아담의 일을 도울 짝

머리말

본문은 글자적인 면에서는 아주 짧지만 그 이야기는 놀랄만하다. 따라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미리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는 본문을 읽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과의 짧은 지면에서 예상되는 질문 모두를 다룰 수는 없으나 많은 의문은 본과를 공부하는데 있어 흥미를 더해 갈 것이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의 짧은 구절에는 어느 누구도 글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깊게 감추어진 의미가 들어 있다. 단어 “갈빗대”에는 주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한 가장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이로부터 말씀의 모든 생명이 오고 있음을 염두 해 두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8-25절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리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세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네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교리 요약

- * 모든 진정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 *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성서의 부분일지라도 주님께서 스웨덴복을 통해 밝혀주신 증거들로 모두 이해된다.

- * 태고 교회에서는 진리가 하늘로부터 직접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심정이 섰기 때문이다.
- * 결혼은 영원이다. 진정한 결혼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상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며 더불어 서로가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소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응 연구

홀로 있음 = 안내자로 주님만을 찾음

잠이 들 = 천국적인 것에 대한 무의식

뻘 = 인간 자신의 소유물 (what is man's Own, proprium)

해설

스웨덴봄은 천국의 신비 제 137항에서 본문에 대해 “창세기의 첫 3장은 사람이라 불리는 태고 교회를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출생으로부터 소멸되는 마지막까지에 해당된다. 본문 앞장은 그 교회의 변성 시기의 상태, 즉 천적 사람이었을 때를 다룬다. 그리고 본문은 자기 자신에게로 기울어지는 이들과 그 뒤의 세대들에 관해 다룬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앞 과에서 창조 이야기가 개체로서 거듭나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회(태고 교회)로 첫 사람들이 발달하는 관계를 보여준다고 배웠다. 스웨덴봄은(다윈보다 여러 해 이전에) 지상에 놓여 졌을 때의 첫 사람들은 직립하지 못했고 동물과 비슷한 존재로 살았으나 그들은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인류학자들의 이론과 스웨덴봄의 하느님의 섭리 제 275-276항을 비교해 보면 꽤 흥미롭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이웃 곧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와의 사랑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였다. 이는 하느님의 근원이 사랑이며 그 사랑의 속성이 자신의 것을 모두 나누기를 원하고 이웃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보다는 이웃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서 이웃 사랑에서 오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창조 된 것이다. 아주 쉬운 예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사랑이다. 이는 그 사랑 안에 동물에게 속한 자연적(본능적) 사랑과 구별되는 영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런 사랑으로 태어난다면 무지라는 길은 어둠이 아닌 지식과 총명의 어떤 빛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그 빛 안으로 빠르게 접근될 것이다. 물론 첫째로 인간은 네 발 짐승같이 기어 다니면서 일어 서 보려는 부수적인 노력과 함께 자기 발로 일어나 걷는다. 그리하여 네 발 짐승같이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다니지 않고 얼굴이 하늘(heaven)을 향하여 앞쪽을 보도록 일어선다. 그러나 이웃 사랑이 자아 사랑으로 돌변하여 그것이 불어나게 되면 인간의 사랑대신 동물적인 사랑으로 가득 해 버린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내적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인간들이 동물과 다른 점은 몸이 느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교육될 수 있어서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인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봄의 설명은 인류가 인간으로서 출발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기 전까지 시기에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반면, 진화론자에 따르면 인류는 동물로서 시작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사고의 뚜렷한 차이점은 꽤 흥미로운 것으로 사료된다.

본문은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이면서도 성경의 앞부분에서 가장 냉소를 받는다. 그 줄거리는 태고 교회가 기우는 시작을 다룬다. 쇠퇴함에 대한 이유는 천국의 신비 제 139항에서 “고대 시대 때에는 천적 인간, 즉 주님의 인도 하에 있었던 이들을 ‘홀로 삶’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이나 악령에 전혀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된다. 주님은 인간이 그분과 더불어 “홀로 사는” 데에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내다 보셨다. 발전의 길에 들어선 이들은 우선적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본문은 자아로 인도되기를 원한 후손들이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바램은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바램을 간직하고 있던 인간들이 찾은 인도자는 자아였지만, 주님은 자아를 계발 시켜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의 일을 도울 짝(혹은 그에게 맞는 협조자)”이란 인간의 것 또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man's own)을

의미함은 자신이라는 본성과 본성에 수반된 것들로부터 확인된다. 설사 본 반에서 언급된 태고교회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것이 생겨나 있었고 그것의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과는 구분되는 자신의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것은 “그의 일을 거들 짝”이라고 말해진다. 여기서 “as with 또는 meet for”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실제로 “opposite, 반대됨” 또는 “complementary to, 보완함”을 의미함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혼의 교리(마태복음 19:3-9)와 연계되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떠한 입장에 있어야 하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하나 됨이 인간 사이에 있게 되는 ‘궁극점’(ultimate)으로 진정한 결혼을 막연하나마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이란 심정과 지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이상향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도 굳게 세워 두어야 한다. 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견해차가 있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 그들의 안내자로서 주님을 찾으며 둘이 함께 같은 기본적 원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견해차가 같은 원리 하에서, 즉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만족되는 방향으로 일치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155항에서 이 구절이 주님과 그분의 나라 사이에 있는 천국적인 결혼 그리고 주님이 “신랑과 아내”라 불리는 성경의 말씀을 취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인간의 것 (man's Own 또는 proprium)의 본성을 보여주는 대목, 즉 갈빗대가 아담으로부터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피해도 받지 않으면서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생명 있는 것을 만드셨던 이유에 관한 것이다. 에덴의 동산은 태고 교회의 사람들의 심정 상태를 표현한다. 네 강이란 인간 마음의 다양한 평면 안으로 흘러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표현한다. 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란 모든 생명과 능력 그리고 지식이 주님으로부터만 오고 있음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하나님 혹은 자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인간의 능력을 말해준다. 특히 우리는 주님께서 동산의 모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데려 오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짐승과 새란 인간의 애착과 생각들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아담은 자기의 애착과 생각들을 검사해 보도록 요구되

었고, 그 애착과 생각의 성질을 결정하도록 되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성질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고대인들이 이름으로 사물의 본질을 이해했고, 보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그 성질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천국의 신비 제 144항). 우리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조처를 취하기 전 위와 같은 것, 즉 자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천국의 신비 제 147항에서는 본문의 결정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 21절의 영적 의미의 윤곽이 아주 단순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다. 즉, " 가슴 부위의 뼈인 갈빗대는 인간의 것 (man's Own)을 의미한다. 갈빗대는 생명이 있긴 하나 그 생명은 극히 적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것을 의미한다. '갈빗대 대신에 살로 메우심'에서 '살'이란 뼈보다 생명력이 있는 내게 속한 것을 의미한다. '깊은 잠'이란 인간 자신의 것을 갖기 위해 모른 척하여 내버려두는 상태, 즉 우리가 잠들고 있는 상태와 아주 흡사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들고 있는 동안은 아무 것도 모르는 듯하나 실상 자신으로부터 살아있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잠 속에 있었던 각종 일은 실체가 아닌 허위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나의 것이 거짓뿐임을 알기 시작할 때 인간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 깨어있는 상태에 이른다."

뼈 안에는 생명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뼈는 신체에 형태를 주며 지탱시켜 주고, 아주 민감한 기관 즉 다치기 쉬운 중요한 내부 기관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따라서 뼈는 자연스러울 정도로 인간의 것을 표현하는데, 인간 자신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은 서로 구별되기도 한다. 우리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실제 있는 그대로 직시해둘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 두어야 한다.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것을 천국으로부터 투시해 보면 뼈만 앙상하고 무생물 같은 것처럼 보이고 아주 추하여 마치 죽은 것같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활기 있게 되면 뼈에 살이 붙은 것같이 된다. 나의 것은 각 개인에게는 마치 자기의 전부이기라도 한 듯 '나는 이런 사람인데...'라는 식으로 자부심을 은근히 표현하여 남이 알아주길 바랄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것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나 다를 바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살아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주님의 생명이 인간의 것에서 철회되면, 인간은 즉시 땅바닥의 돌과 같이

된다. 인간은 생명을 담는 기관일 뿐이며 그 기관의 상태에 따라 그 안에 담기는 생명의 애착이 결정된다.” (천국의 신비 149-2항). “그러나 주님께 의해 생기가 불어넣어진 인간의 것에 관한 것들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나타나며 주님의 천적인 것들이 각 인간의 것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양성을 띠게 된다.” (천국의 신비 제 154항).

주님은 진정한 결혼의 본성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본문의 끝 부분을 인용하셨다. 이를 통하여 진정한 결혼이란 생각과 목적이 하나 됨에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마태복음 19:3-12 참조). 우리는 결혼이 거룩한 것임을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 즉, 우리는 자녀들이 주님의 영이 결혼 안에 머물러 결혼한 한 쌍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여 세상에서도 하나로써 설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할 것이다. 하나 됨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전시해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시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들이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원할 때 부모와 그들이 일치됨을 모색하는 것 또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영적 원리 하에서 자녀들의 판단 기초를 형성해 간다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영적 믿음의 공통된 바탕에서 서로간의 (특히 부부 사이에) 견해차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간다면 그것이 해결되므로,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중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영적 믿음 속에서 태어날 당시부터 교육되어야 함을 깊이 검토해 보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이 책은 누가 썼는가?
- 3) 성경의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창세기란 어떤 의미인가?
- 5) 첫 사람의 보금자리로서 어떤 아름다운 곳이 주어졌는가?
- 6) 에덴의 동산은 무엇으로 적시어졌는가?

- 7) 주님은 그들을 위해 그곳에 무엇을 설비해 주셨는가?
- 8) 동산에서 어떤 두 나무가 특별히 언급되는가?
- 9) 본문에서는 첫 사람이 특별히 뭐라고 불리는가?
- 10) 아담은 가지지 않아야 할 어떤 것을 원했는가?
- 11) 주님은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에 관해 무엇을 해보라고 하셨는가?
- 12) 아담이 잠들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13) 신화에서는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 하는가?
- 14) 스웨덴붉은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부르는가?
- 15) 사람이 “홀로”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6) 갈빗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갈빗대로 여자를 지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8) 진정한 결혼의 기초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성서 2) 하느님 3) 창조 4) 시작 5) 에덴 6) 강
- 7) 과일 나무, 씨 있는 식물 8) 생명, 지식 9) 아담 10) 아내
- 11) 동물과 새에게 이름을 붙임 12) 갈빗대를 취하시어 여인을 만듦
- 13) 황금시대 14) 태고 교회
- 15)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 16) 자아, 자신
- 17) 하느님에 의해 아름답게 만들어짐 18) 둘 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람

3

홍수가 빠지다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위해 본문인 8장과 더불어 5 - 7장을 읽어두면 홍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 그리고 천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에 대한 비교가 많이 언급될 것인데, 본과를 통해 친숙하지 않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용어들에 대한 간단한 실례로서 유아와 어린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8장

8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짐짐승들의 생각이 나서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기 시작하였다. 2. 땅 밑 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3.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백 오십 일이 되던 날인 4. 칠월 십 칠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5. 물은 시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시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6. 사십 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7.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 다녔다. 8.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9. 그 비둘기는 밭을 붙이고 앓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 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 들였다.

10.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11.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되돌아 왔는데 부리에 금방 탄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12. 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13. 노아가 육 백 한 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14. 이월 이십 칠일, 땅이 다 마르자, 15.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17.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어 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위에서 떼 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위에 두루 번져나게 하여라.” 18. 노아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19. 들짐승과 짐승과 새와 땅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20. 노아는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21.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 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교리 요약

- * 하나의 교회가 그 교회에 주어진 진리에서 벗어나면,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신다.
- * 고대 말씀은 우리의 성경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고대 교회의 가르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 *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되자, 주님은 양심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이해성 안에 하나의 새로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키셨다.
- * 우리는 주님이 의를 행함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전에 의를 행하는 습관을 형성해 두어야 한다.

상응 연구

까마귀 = 거짓 사상

비둘기 = 하느님에 관한 진정한 사상

올리브 잎 = 선행의 진리

해설

앞서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인격 면에서 “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들은 “의지와 이해성이 한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랑이 곧바로 의지 부분에 이식되면서 동시에 믿음이 지적 부분, 즉 이해성 부분에 자동으로 이식되어졌다” (천국의 신비 제 927항). 따라서 그들이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데 만족해하는 한, 그들은 하늘과의 교통이 열려져 하늘과 더불어 살아갔다. 이와 같은 삶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상태인 순진과 신뢰로 가득 차있는 바, 이는 에덴의 동산으로 함축된다. 이러한 상태가 하강하는 첫 징조는 그들이 이 같은 상태에 불만족해 하면서 독립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하강 상태를 예견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강하는 이들을 위해 만족될 좋은 장치를 설비해 두셨다. 이것이 이브의 창조로 묘사된다. 인간은 심정의 하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에덴 동산의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기심이 점진적으로 단호해짐에 따라 뱀으로 묘사된 그들의 감각과 쾌락은 그들을 잘못 인도하여 결국 그들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순진성을 상실해 에덴의 동산이라는 상태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 교회(사람)들의 마지막 상태는 창세기 6장 1-7절에서 적절히 기술되고 있다. 천국의 신비 제 92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 사람들의 후손은 의지와 이해성이 하나로 이루어진 조건을 상속 받은 터라 자아 사랑과 발광적인 탐욕이 과거 주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꽉 차있던 그들의 의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들의 의지 부분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 뒤바뀐 그들의 지적 또는 이해성 부분까지도 점유해 버렸다. 이것이 열기를 더 해가서, 마지막 후손들은 그들의 탐욕 속의 거짓 안에 폭 빠져들어 나타난 것이 ‘느빌림’이다. 그들의 본성이 이렇게 되어서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상술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 아닌 하나여서 몽땅 썩어 버린 썸이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언급된 거인들은 그들 눈에 보기에 엄청난 중요성을 획득한 자들을 말해준다. 이것은 그들의 신체적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느빌림과 아나킴 등은 태고 교회의 파멸에서 잔존한 거인들 중의 극소수 사람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거인들로서 성경에 언급된 자들은 갖족의 「골리앗」과 바산왕 「옥」인데, 다윗의 시대까지도 근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태고 교회 후손들의 이기적인 악들은 극도로 악하여 그들의 사후 거주지인 첫 번째 지옥이 주님께 의해 완전히 단혀져 그것들이 지옥으로부터 빠져 나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섭리해 두셨다고 말한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태고 교회의 끝말 근처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계속 바랬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안에 제도적인 변화를 단행하시어 그들이 거듭나 새 교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셨다. 천국의 신비 제 597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노아는 새로운 처방인 두 번째 교회를 의미한다. 노아에 의해 시작된 교회는 고대 교회이며, 이는 홍수전의 교회인 태고 교회와는 여러모로 구별된다. 태고 교회의 상태는 인류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에 대한 내적 지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태고 교회의 인류에게 진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선의 형상화에 불과했다. 하지만 노아라는 고대 교회는 내적 지각이 닫힌 상태여서 주님께서 심정이 아닌 이해성에 심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깨우쳐 선에 이르게 되었다. 지각을 갖는 것과 양심을 갖는 것은 다르다. 이 두 가지 장치가 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 본성의 차이점이 된다. 지각은 양심이 아니다. 천적인 인간은 지각을 가지며 영적인 인간은 양심을 가진다. 태고 교회인은 천적이며, 고대 교회인은 영적이다.” 태고 교회인들은 하늘과의 교통이 열려 있어서 외적 호흡보다는 내적 호흡을 갖고 있었다. 교통이 두절될 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내적 호흡의 단절로 실제 죽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여실한 묘사가 바로 홍수로 끝맺는 장면이다. 그러나 선한 그루터기(나머지, remnant) 안에 또는 잔존한 다른 이들 안에 주님은 외적 호흡을 설비해 두셨다. 내적 호흡을 했던 시대는 짧았지만, 오늘날의 우리가 모르는 호흡이 아니다. 단절된 내적 호흡은 인도의 요가 등에서 연습되는데, 이 연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물질적 주위를 무의식으로 만드는 효과를 봄으로써 관찰가능하다. 스웨덴북 역시 이러한 경험을 가졌다.

본문에서 보여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지와 이해성의 분리이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기가 바라는 것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생각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뒤 이 본성은 우리 모두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현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 혹은 심정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이 분리되어 있음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하게 남은 인간 안에 장치된 위의 새로운 인격이 방주요,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라는 구절에서 그 분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노아는 태고 교회 후손으로서 심정에 선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지성은 거짓으로 가득 해 그들의 심정 속에 이기심이 넘칠 정도였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명하시고, 배 안에는 모든 동물과 새들 곧 깨끗한 것과 부정함 것 모두를 들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나 방주는 하늘로 향한 창문을 가졌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 지어진 배요 그분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홍수에 침수되지 않고 오히려 그 홍수를 타고 넘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적 또는 감각적 욕망에 만족되도록 유혹될 때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가 가진 올바름에 관한 지식과 그것을 고수하는 결심임을 각자의 경험에서 상상해 보면 이해될 것이다. 주님의 섭리는 우리의 방주를 잠구어 주시고 홍수 기간 동안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방주 속의 노아는 위와 같은 경험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한 그림이다. 그러나 때는 오고 만다. 즉, 우리가 방주의 문이 잠긴 채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비가 멎고 홍수가 물러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시험에 폭 빠져있을 때는 막막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시험은 주님의 섭리로 보호된 우리를 침수시키지 못하고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삶이 더욱 새로우며 자유로운 길인지 시험 삼아 마음의 날개를 펼떡거리게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경험이 바로 본문에서 기술된 특별한 순간이다. 시험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성 속에는 거짓 생각과 진실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 까마귀와 비둘기이며, 우리는 이 두 생각을 가지고 새로이 접하는 주위의 조건을 탐색하기에 이른다. 새로운 길에서의 휴식과 평화는 시험이 지났다고 해서 즉각 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저런 탐색 끝에 우리 속의 비둘기는 확실한 징조를 가져다준다. 올리브 잎은 “선행으로부터의 진리”를 상징한다. 이는 선행(charity)에 근거해서 있게 되는

진리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홍수가 완전히 물러간 후 우리는 문을 열 수 있게 되고 새 생활을 건설하기 위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기독교인의 공통된 경험으로 생각되며, 홍수가 계속되는 기간은 우리가 새 생활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 가려할 때 당연히 갖게 되는 결심에 수반되는 시험의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920항」에서 표현적인 예배의 기원을 기술하면서 태고 교회에서의 예배는 천국에서와 같이 내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 세계 속의 것들이 내적인 것들을 표현해줌을 알았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내적 지각이 상실해 감에 따라 표현성에 대한 지식을 흥미했고 그 지식이 그 교회의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 왔다. 이것이 고대 교회의 표현적인 예배의 기초가 된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밖으로 나와 쌓아 올린 제단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첫 제단이다. 따라서 제단은 주님을 예배함에 대한 표현이며, 그 위에 만들어진 제물이란 우리의 생각과 애착이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을 그린다.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되려면 모든 선함과 진리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새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주장하는 “원죄”의 교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다”고 전제하면서 주위 환경을 통해 우리의 모든 악들을 획득하게 된다고 외치지도 않는다. 우리의 자연적인 상속은 이기적이며, 이기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게 된다. 거듭남이 이기심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천국의 신비 제 868항 참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그분께 순종하여 거듭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자연적인 자아를 굴복시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타적인 사랑의 결과인 평화와 행복을 즐기도록 허락하신다. 즉,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 한다는 것이다.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은 거듭남이라고 불리는 변화 속의 질서를 기술한다. 누구든지 거듭나고자 하면 이 질서의 법칙 하에 하느님의 섭리가 언제나 역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1) 인간이 창조된 후 그들은 어디에 놓여 졌는가?

- 2) 왜 그들은 만족치 못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의 새로운 필요에 어떻게 대처해 주셨는가?
- 4) 인간은 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항상 살 수 없었는가?
- 5) 그들은 왜 그들 자신의 길로 갈 때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가?
- 6) 결국 그들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7) 누가 구원되었는가?
- 8) 그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9) 비는 며칠 동안 쏟아졌는가?
- 10) 비가 그쳤을 때 노아가 연 창문은 어디에 있었는가?
- 11)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어떤 새 두 마리를 날려 보냈는가?
- 12) 까마귀는 무엇을 했는가?
- 13)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내보냈는가?
- 14) 첫 번째에는 무엇이 발생했는가?
- 15) 비둘기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16) 세 번째에는 어떠한가?
- 17)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첫 일은 무엇이었던가?
- 18)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9) 홍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20) 까마귀와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21) 올리브 잎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2) 주님은 고대 교회의 시작에서 인간의 구조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게 하셨는가?
- 23) 노아로 기술되는 문명화를 설화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24) 스웨덴붉은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질문의 답

- 1) 에덴 2) 독립하기를 원했다
- 3) 이기심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 4) 불순종했기 때문
- 5) 나쁜 행위는 또 다른 나쁜 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6)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7) 노아 8) 방주 9) 40일
- 10) 방주 꼭대기 11) 까마귀, 비둘기 12)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 13) 세 번 14) 되돌아 왔다 15) 올리브 잎 16) 되돌아오지 않았다.
- 17) 제단을 쌓았다. 18) 더 이상 홍수가 없게 하리라. 19) 거짓 사상들
- 20) 거짓 생각과 진정한 생각 21)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 22) 지각 대신 양심을 설치하심 23) 은 시대 24) 고대 교회

4

아브람과 롯

머리말

본문 외에 11, 12, 18 그리고 19장에 걸쳐 롯의 이야기 전체가 연결된다. 아브람과 롯의 가나안으로의 여행경로를 살펴보면 내용을 기억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확한 지역은 불확실하다. 현재의 위치로는 사해 부근으로 추측되며, 성경 시대상으로는 요르단 평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3장 1-13절, 14장1-16절

13장: 1.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3. 아브람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4. 그 곳은 지난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5.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 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6.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되었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9.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10.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11.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13.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14장: 1.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룩,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의 시대였다. 2.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인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3. 이들 다섯 왕은 동맹을 맺고 시뫼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뫼 골짜기는 지금 짠물호수가 있는 곳이다.

4. 이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십사 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스드롯카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스족을 치고 사웨키라다임에서 엠족을 치고 6.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쳐내려 왔다. 7. 그들은 거기에서 말을 돌려 재판 샘터가 있는 카데스로 쳐들어 가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 무찔렀다. 8.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인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동하여 시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9. 그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룩과 어울리니, 네 왕이 다섯 왕과 맞붙은 것이다.

10. 그런데 시뫼 골짜기에는 역칭 수렁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11.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12.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다. 13.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 때 아모리인 마므레의 상수리나무가 무성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벨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14. 아브람은 자기 골육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 낸 사병 삼백 십 팔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15.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때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슭,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가면서 16.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 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가 시험되어질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
- *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은 진정한 역사이면서 비유이다.
- * 우리의 생각이 천국적 원리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세상적 원리에 기초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 * 주님께 기꺼이 순종해 가는 삶은 천국으로 인도된다.

상용 연구

가나안 땅 = 천국적인 상태
 이집트 = 자연적인 학식이 있는 상태 또는 기억적인 지식
 계곡, 평야, 분지 = 자연적인 삶의 평면

해설

앞서 우리는 은 시대에 속하는 고대인이 진리로 이끌어졌음을 수차례에 걸쳐 살펴보

았다. 그들은 진리를 배우는 데에 큰 관심을 두었는데, 특히 태고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식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물과 영적 실재 사이의 상응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서 상응에 관한 학문은 가장 큰 기쁨에 속했다. 본 책의 「기본 상응 공부」편에 언급되는 극히 적은 분량의 상응 지식으로부터도 상응에 관한 공부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258항」에서 당대인들이 각기 특별한 흥미와 견해에 의존하면서 광범위한 예배의 형태를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각기 다른 견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행 가운데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예배드리 는 한 그들은 교리라는 측면과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1절의 바벨탑 이야기의 첫 절인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 역시 공통된 흥미를 갖고 자신을 고려하지 않을 때 타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 가지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지식 또는 광범위한 견해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 조화만을 이루게 되어 더욱 좋을 뿐이다. 그러나 또 다시 자아가 인간의 심정 속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고대 교회는 차츰 기울어 끝맺게 되고 사람들 역시 성경의 글자대로와 영적 면에서 지상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 예로, 세상에 있는 다신교의 대부분은 고대 교회의 흩어진 사람의 나머지들로부터 전해 온 신조들이 전복된 모습이다.

여기까지의 성경 공부는 모세가 고대 말씀으로부터 베껴 쓴 부분에 기초 하여 이뤄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은 글자 면에서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지 않았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140, 1343항」에서 말씀 속에서 역사적으로 개인이자 표징적인 인물로서 언급된 최초의 사람이 창세기 11장 14절의 에벨(Eber)이며 그로부터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에벨은 두 번째 고대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는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 때의 우상 숭배에서 끝맺게 되었다. 제 1360항에서는 아브람이 세 번째 고대 교회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주님은 유대 교회를 조직하신 것이다. 두 번째 고대 교회 역시 첫 번째와 같이 영적인 것을 인식했으므로, 예배 속에 있는 각종 형체는 그 형체와 연결되는 상응으로부터만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제물이 구성된 것 역시 두 번째 교회 안에서였다. 그러나 예배의 형체가 퇴조됨에 따라 예배 속의

다양한 행동 안에 있어야 할 의미들도 상실되어서 그들은 제물이나 형상들 자체를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천국 또는 영원한 삶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게 되었다. 따라서 주님과 천사들은 인간 속의 내용물들 안에 더 이상 현존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는 더 이상 내적 사고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상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진정한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모든 진정한 예배가 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주님은 그들을 살아있게 보호하시고 선한 의도를 가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의 접촉을 지켜 나가셔야 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라 단지 교회라는 이름뿐인 교회, 즉 표현적인 교회일 뿐이었다. 유대인 성직자들에 관해 말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는 “율법에 따라 봉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된다. (히브리서 8:5) 히브리 국가는 이런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종교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와 처벌이라는 두려움을 통해 인도되는 특징을 가졌다. 따라서 주님은 상응을 통해서나마 진정한 예배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정한 형식에 따라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명하셨다. 그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천국과 지상의 연결, 즉 주님에 대한 예배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들의 심정과 지성이 이미 이기심과 거짓으로 가득하여 주님은 상응이 담긴 예배의 형식을 유대인들에게 명하심으로서 천국과 지상의 연결이 이뤄지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역사는 늘 주님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고 그들의 역사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서 그 안에 천국에 속한 것과 신성한 생명 자체가 상응에 의해서 담겨있게 된 것이다.

유대 교회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그와 그의 가족 모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타인과 현저하게 다른 점은 절대적인 순종에 그의 마음이 강하게 기울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가나안으로의 긴 여행에 부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다. 아브람 이야기 전체를 망라하여 그는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대해 단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 순종했다. 그는 우리 속에서 영적 삶의 발달 초기를 표현한다. 이 시작은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순종을 기초로 하여 시작하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중에는 부모 또는 선생이 가르쳐 준 올바른 행동에 대한 개념의 순종 등으로 순종의 연속이 초기 발달의 원리에 해당된다.

아브람은 우르를 떠날 때 홀로 나서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내 사래, 아버지 데라, 형제 나홀, 조카 롯, 모든 종들, 가축 떼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챙겨 함께 떠났다. 즉, 우리가 태어나서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유전성, 각자의 독특한 성질, 특질, 우수한 능력 그리고 모든 약점들까지 챙겨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그의 아버지는 죽었다. 그리고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여행 중 하차해서 하란에 정착했다. 우리 속에는 악하지는 않으나 단순한 경향성들이 있다. 흔히 그것들은 성장해 가면서 없어진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속의 뒤 배경에 남아 있고, 우리의 초기적인 단순한 믿음을 갱신하기 위해 때때로 그 배경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짐작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뒤에 쳐져서 정착한 나홀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롯은 아브람과 더불어 계속 여행했다.

우리 마음의 모든 평면에는 각 평면에 해당되는 속(내적)과 겉(외적)이 있다. 아브람은 우리 마음의 초기 상태에서의 속 사람이고, 롯은 겉 사람 또는 감각적인 인간을 그려주고 있다. 과거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각자 속에서 보다 높은 동기 또는 원리가 보다 낮은 동기 또는 원리와 다룰 때가 상당히 많았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롯은 낮은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 계곡(평야)은 그의 만족을 채워주는 매혹적인 곳이었다. 아브람은 주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롯이 선택한 요르단의 비옥한 분지(계곡)에는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 롯은 소돔 근처에 살기 위해 갔는데, 그는 이로 인해 포로가 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그곳으로 갈 당시 티그리스-유프라테스의 네 왕들이 요르단 계곡의 다섯 왕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초기에 다른 이들이 하는 대로 하려는 유혹(시험)을 그리는 것이다. 처음에 아브람처럼 순종으로 길러진 어린 시절의 습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충분했고 우리를 따라오게 해서 좋은 심정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시험은 변수를 더해가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각종의 시험이 들이닥친다는 것이다. 제 19장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는 소돔 성이 사악함으로 인해 파멸될 때이다. 두 천사가 롯에게 보내져 그를 소돔 성 밖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성경 이야기중 하나다. 롯은 그 때에도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을 거절하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살기를 선택했다. 그래도 주님은 그가 선택하도록 허용해 주셨다. 롯은 구원되었고, 그의 두 아들 모압과 암몬은 피난 후에 그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두 아들은 내적인 것들이 없는 예배(외적인 것들), 즉 이름뿐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있게 되는 악과 거짓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다. 롯의 모든 곤경은 아브람의 목자와 그의 목자들이 풀밭을 놓고 다툰 때에 비롯되었다. 그 때에 그는 아브람으로부터 분가해서 평야에 살러 갔다.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소돔 성을 되돌아 본 롯의 아내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 뒤를 봄 또는 뒤로 돌아 섬이란 우리가 한 순간일지라도 이해해서 실천했던 선으로부터 퇴각하는 것을 뜻한다. 즉, 올바른 것이라고 마음에 작정했을 때의 다음 단계는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지 과거에 있던 쾌락을 그리워하며 우물쭈물 거리고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금은 좋은 의미로 진리의 애착 또는 진리에 끌리는 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에 따라 살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한다. 이러한 애착, 마음 또는 바람이 상실되거나 퇴조할 때 소금은 짠맛을 잃는 것과 같다. 간혹 우리는 영화나 소설의 대화를 통해 어떤 성을 정복하면 소금을 뿌리는 관습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관습이 바로 소금에 대한 상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뒤를 보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함을 과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항구적인 경고이다.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를 항상 염두 하길 바란다.

질문 정리

- 1) 본문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 3) 왜 그들은 우르를 떠났는가?
- 4)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머물렀던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그는 어떤 나라에 갔다 와서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가?
- 6) 그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어 돌아왔는가?
- 7) 그들이 되돌아 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8)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 9) 아브람은 롯에게 무엇을 제의했는가?
- 10) 롯이 어떤 곳을 선택했는가?
- 11) 왜 롯은 그 지역을 선택했는가?
- 12) 롯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위험이 그곳에 있었는가?
- 13) 롯에게 어떤 곤란이 닥쳤는가?
- 14) 누가 그를 구했는가?
- 15) 우리 삶의 측면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무엇을 그려주는가?
- 16)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 17) 감각적인 모든 쾌락은 전부 피해야만 하는가?
- 18) 어떤 쾌락이 순진하여 즐겨도 된다고 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아브람과 롯 2) 갈대아 우르 3) 주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 4) 제단을 쌓았다. 5) 이집트 6)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 7) 베델 8) 목자들이 다투었다. 9) 지역의 선택 10) 평야
- 11)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12) 소돔 13)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
- 14) 아브람 15) 당장 쾌락을 주는 것을 다 해보려는 상태
- 16) 이기심, 세상적인 생각 17) 그렇지 않지만 적당한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18) 해를 주지 않는 쾌락과 영적인 삶의 목적에 조화를 이루는 쾌락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머리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령에 얻은 아들 이사악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도 상상할 수 있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2장 1-14절

22장: 1. 이런 일들이 있는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2. 하느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두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4.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5.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하고 나서 6.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깔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7.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9.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엮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11.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12.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13.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뿔이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14. 아브라함은 그 곳을 야훼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들 한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은 우리속의 이기적인 바람으로 비롯된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오게 되는 시험을 단지 허용하실 뿐이다.
- * 말씀은 선뿐만 아니라 악에도 연결 가능한 형상(形狀)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
- *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 믿음은 종종 많은 거짓 사상과 혼합된다.
- * 우리가 말씀에서 계명들을 본대로 순종하여 시험에 맞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의를 행할 힘을 주신다.

상응 연구

나귀 = 자연적 이성

수양 = 순진하기 때문에 힘이 센 진리

나무, 장작 = 우리의 바깥 행동을 선하게 하고 싶은 바람

칼 = 진리
불 = 사랑

해설

여러분은 본 반을 공부하기에 앞서 어린 시절에 발달된 첫 번째 이성이 이스마엘로 상징된다는 것과 그 이성을 “자연적 이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 이성은 결말을 짓기 위한 기초를 자연적 지식 위에 두고 추론하거나 감각적인 경험 혹은 사물의 외관을 기초로 판단한다. 지상 삶을 위해서는 그 이성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거처야 할 필수단계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세계를 실용성 있게 꾸려가 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큰 국가의 선조가 되었던 것이다.

이사악은 보다 높은 이성, 즉 영적 이성을 상징한다. 그것은 주님이나 영적인 것을 고려하며, 외관상으로는 진리에 반대되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이성이다. 이삭악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야 태어났고, 75년이 지난 후 완전한 상속자가 되었다. 즉, 175년이란 세월이 소요된 것으로 영적 이성은 발달이 아주 더디고 오랜 세월 동안 어린 시절 속에 있는 순진과 신뢰성에 아주 밀착되어 보관되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영적 이성에 관해 추론하려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각자의 어린 시절에 “아껴두신 것”, 즉 각자의 초기 심정 상태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는 본문과 같은 시험을 추론하면서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 관해 추론하려는 때에 각자에게 새롭게 발달되는 능력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시험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의 믿음이 간접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교회 내의 많은 양심적 젊은이들은 시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문제를 조장시키기도 한다. 이리하여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신비”가 들어 있으므로 그저 “믿음”만으로도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이 좀 더 심해지면, 더욱 쉽게 “이사악을 제물로” 삼게 된다. 즉,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믿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조장시켜서 양심적 추론을

눌러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영적인 것보다 우선하여 젊은이들의 모든 진정한 사고를 해체시키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본문은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줄거리의 글자적 의미로만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는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라고 기록된 첫 구절이다. 새 교회는 하느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모든 시험은 지옥으로부터 비롯되며 우리의 유전성 안에, 혹은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악의 결과 또는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시험 자체, 즉 악과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쳐 싸워야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오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시험이라 부르고 인식하는 것은 단지 우리 안의 악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동안 견뎌내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0:13 참조) 그분은 우리들로부터 모든 시험들을 꾸준히 제거하고 계신다. 이에 대한 것은 뒤의 참조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고난을 주님의 뜻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속으로는 그렇게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브라함의 이런 경향은 굉장히 노골적이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타락된 마지막 단계에 이른 고대 교회인들 사이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마음속에 많은 거짓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다중 결혼도 괜찮다는 믿음이다. 이를 근거로 그는 하갈을 아내로 받아들였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느님은 시기하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비위를 잘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하며 최고의 제물로 하느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 대신에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주님은 결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들을 파괴하지 않으신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3-45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우리 속의 거짓들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진리에 대한 지식 안으로 우리가 진보하며 질서 있는 삶 속에서 봉사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이를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셨던 것이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주님은 그가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모두 허용하셨다. 이는 주님만

이 그의 삶의 최우선임을 그의 내적 의지가 확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점까지 시험을 허용하셨고 그가 그의 신앙을 확증해내자 주님께서는 준비해두신 제물, 곧 주님께서 바라시던 진정한 제물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수양은 “인류로부터 근원된 영적인 것”을 상징하며, 영적인 것은 양심을 통해 발달된 주님의 헌신을 뜻한다. 개역 성경에는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그의 뒤에서” “뿔이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지식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상태였다(천국의 신비 제 2831항 참조).

위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의 일반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오랜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여행하는 모습의 세부 사항들이 우리를 위한 의미로 가득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행 과정을 세세히 살펴보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에서 아침이란 새로운 심정 상태의 시작을, 즉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된 인간이 그 목적을 즉시 행동에 옮기면서 과거의 보다 높은 이성, 즉 영적 진보에 반역해왔던 자연적 이성을 자신의 지배하에 놓고 시작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결의가 확고하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 속의 자연적 이성을 봉사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것이다. 확고히 된 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젊은 종도 이 행동 선상에 참여시킨다. 종들이란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잘 처리하도록 발달된 합리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떠난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2784항에서 장작이란 “일 가운데에 있는 선 또는 공의 가운데 있는 선”을 그린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쪼개진 장작”이란 이러한 선 안에 공적을 놓는 것을 그린다. 사실 자신이 해 놓은 선한 일에 스스로의 공로를 인정하려는 것은 모든 공적의 주인이신 주님이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저절로 악 안에만 존재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도 어떤 때는 하나의 선용에 기여될 수 있다. 즉, 본문에서처럼 추구하는 목적이 제물을 사르기 위한 일 혹은 번제물의 용도로 쓰일 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바램을 위해서 유용해진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산이 보이게 되자 두 종과 나귀는 머물러 있게 하고 장작은 이사악에 의하여 산으로 운반되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새로움을 시도하려고 할 때 주님을 섬기는

삶에 관한 자연적 생각들 또는 스스로가 칭찬 받는 세상적 즐거움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출발하기도 한다. 어찌됐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유지해가면 우리에게 산이 멀리 내다보이게 된다. 삼일간의 여행이란 계속하는 일을 다 해낼 때의 상태를 그린다. 산에 도착하면 출발 당시 가졌던 우리의 자연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나 추론들을 뒤에 남겨 놓고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생각들은 주님께로 가는 산 위로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위한 신용을 쌓게 해준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과정의 경험들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추론 능력을 성별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추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15-18절은 영적인 추론 능력을 통하여 축복과 성취감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후 우리는 우리 속의 자연적 이성 또는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전하게 귀환하게 된다. 이는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데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브엘세바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진다. 브엘세바란 “신성에서 근원된 선행과 믿음의 교리 그리고 선행과 믿음에 인간의 합리적인 것이 접해진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2767과 제 2859항에서 본문 전체의 가장 깊은 의미는 주님의 생애와 연결된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어떻게 가장 바깥 측면인 인간적인 이성을 통하여 시험을 용납하셨는가를 보여주신 다는 것이다. 제 2786항을 직접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태 자체로만 본다면, 이것은 주님이 시험을 수행하셨을 때 입으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분이 가장 비통하고 가장 깊은 시험을 수행하셨을 때 입으신 상태들이다. 이 상태를 위한 그분의 첫 준비는 그분이 평화와 순진이라는 상태로 들어가셨던 것, 그분이 직접 자연적인 인간을 이성과 더불어 준비하셔서 신성한 이성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 그리고 그분은 공의에 공적을 인접되게 하셨는데 이로 인해 그분 자신을 끌어올리신 것이다.” 제 2795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님이 신성 자체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은 도무지 시험받아질 수 없으셨다. 왜냐하면 신성은 모든 시험을 초월하여 무한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인성이란 측면에서는 시험받으실 수 있었다. 이는 그분이 가장 비통하고 가장 깊은 시험을 수행하셨을 때 그분이 자신을 인간의 우선 사항인 인간 속의 자연성과 이성에 인접시키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문 3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자신을 자연성이나 인간 이성들로부터 분리시키셨던 이유이다.” 제 2816항에서는

“내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을 가장 비통한 시험들 안으로 인도했다”라는 흥미로운 대목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은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기도문일 것이다. 이는 주님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시험)을 받으셨다”(마태복음 4:1)라고 기술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으며 이를 인식해야 함을 암시해 준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실 때 극복할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심을 명심해 두길 바란다. 시험에 관한 전체적 교리를 살펴보고자 하면, 「천국의 신비 제 2819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2) 그들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그들의 아들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이었는가?
- 4)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도록 시험되었는가?
- 5) 그는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는가?
- 6) 주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 7)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8) 모리아산에는 오랜 후에 무엇이 지어졌는가?
- 9) 아브라함의 여행은 며칠이 걸렸는가?
- 10) 아브라함과 이사악 외에 누가 여행을 함께 했는가?
- 11)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12) 산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는가?
- 13) 이사악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 14)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 15)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느 시험에서 멈추게 했는가?
- 16) 주님은 그를 어떻게 멈추게 했는가?

- 17) 아브라함은 이사악 대신 무엇을 제물로 발견했는가?
- 18) 시험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가?
- 19) 주님은 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 20) 이사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21)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 어떻게 보여 지는가?
- 22) 이사악 대신 수양을 제물로 대체시켜 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래 2) 이사악 3)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다.
- 4)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5)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포기하도록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 6)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도록(확증하도록) 배려해 주심
- 7) 모리아산 8) 성전 9) 3일 10) 두 종 11) 나귀, 장작, 불, 칼
- 12) 이사악, 아브라함 13) “어린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14)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 15) 그가 칼을 잡고 막 찌르려는 순간에 16) 천사 17) 수양
- 18) 아니다 19) 우리의 인격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 20) 영적 이성 21) 종교에 관해 추론하는 것을 배제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는 것
- 22) 종교에 관한 추론을 지속적으로 하되, 주님 진리의 인도에 의해 선하고 유용한 것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6

야곱의 꿈

머리말

세 가지 요점을 연결하여 본과를 진행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 야곱과 이사악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 2) 하란 지역 그리고 3) 베델 지역이다.

성서본문: 창세기 28장

28장: 1. 이사악은 야곱을 불러 들여 복을 빌어 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에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2. 너는 바딤아람의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3.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4.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시어 네가 지금 자리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5. 그리고 이사악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 야곱은 바딤아람으로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6.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고 바딤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7.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가 시키는 대로 바탄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8.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9.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10.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11. 한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 간 뒤였다. 그는 그 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13.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네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14. 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 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하며 17.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 이로우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20.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20.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21.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22.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 * 말씀은 주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와 같다

- * 우리는 말씀의 글자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믿음을 발견한다.
- * 「기름 부음」이란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확인하는 행동을 상징한다.

상응 연구

돌 = 진리
기름 = 사랑

해설

본 반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사악이 성장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심복을 하란으로 보내서 그의 친척들 사이에서 이사악의 아내를 찾아보도록 했고, 그의 심복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사악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 에사오와 야곱을 가졌는데, 그들은 자연적 평면의 의지와 이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1893항에서 “모든 사람 안에는 세 사람이 존재한다. 세 사람이란 속 사람과 겉 사람 그리고 속과 겉을 연결해 주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겉 사람은 통상적으로 자연적인 사람이라고도 부른다. 주님의 측면에서 있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으로 표현된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은 우리 삶의 세 단계로 볼 수 있다. 먼저 아브라함의 단계는 유아 시절에 해당된다. 이때에 우리의 속 사람은 천국으로 열려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 즉 순진과 신뢰라는 행복한 심정 상태를 채워 두신다. 이와 같이 주님이 채워두신 귀중한 두 가지를 우리는 “(주님께서)아껴두신 것, remains”이라고 말한다. 유아기를 벗어나 성장하면서 우리의 합리성이 발달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악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미운 일곱 살”로 표현되는 7-8세 된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번 “왜?”라고 단서를 붙여 묻는 것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서부터 인간에게 추론이 발달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벗어나면서 우리는 앞서 두 시기에서 발달되었던 지식들이나 애착들을

일상생활에서 응용해 갈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이 후의 우리 삶은 소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둬 나야가는 시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발달은 자연적 평면 혹은 외적 평면의 삶이 먼저 질서 있게 정돈된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합리적 평면이 질서를 찾게 된다. 결국 우리가 속 사람 또는 내적 평면까지 질서 있는 삶에 진입되면 우리는 거둬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이며 이사악은 야곱의 아버지이므로 그들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상에서 그들의 후손들은 흔히 야곱의 후손 또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불러 지며, 그들 후손들의 역사가 구약성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자연적 평면인 일상생활이 먼저 질서 있는 삶에 놓이는 것이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에사오와 야곱의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에사오는 큰 아들이다. 우리는 동생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가졌고 그가 형 에사오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뒤에는 에사오의 축복마저 가로챈 줄거리를 기억한다. 에사오는 쌍둥이 아들 중에서 먼저 태어난 자로서 우리 속에 있는 의지부분을 표현한다. 반면, 야곱은 뒤에 태어난 후자이므로 이해성을 표현한다. 모든 힘은 의지로부터 있게 되며 사고력조차도 의지로부터 있게 된다. 여러분 각자 행동하여 결과를 맺는 단계를 떠올려 보면 의지가 모든 면에서 실제로 먼저 오게 됨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지가 우리의 첫 움직임이지만 지나 온 삶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책략을 써서 에사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다반사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동함에 앞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7장 40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사오에게 하는 말 중에 “네가 그의 멩에를 네 목에서 풀어버릴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서 터득하는 것, 즉 많은 시행착오와 연마를 통해 마침내 선한 것을 사랑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 지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과제이나 이러한 발전은 인생에서 아주 더디게 있어진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에사오 또는 그의 후손인 에돔족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배우며 그것의 인도 하에 삶의 대부분을 놓을 때는 물질적인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기 때문이다.

야곱이 에사오의 축복을 가로챈 뒤 에사오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피신시킬 방도를 찾다가 이방인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사악을 설득하여 야곱을 하란에 있는 그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다. 우리는 이 줄거리를 통해 하란이라는 지역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그곳은 과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하던 중 잠시 체류했던 곳이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정착한 지역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기도 하다. 데라는 우리 속에 있는 낡은 심정 상태나 이상 숭배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하란은 우리가 뭔가 선한 삶을 향해 진보해 가는 단계 중 첫 단계를 의미한다. 첫 단계란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에 도달되기 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란은 껍데기에 불과한 우리 속의 선과 진리 또는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선함을 표현한다. 껍데기 즉 외적 수준밖에 안 되는 선함이라 할지라도 이는 매우 귀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진보 중 첫발을 내딛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우리의 속담을 되새겨 보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사악이 하란으로 되돌아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24장 6절) 그러나 야곱은 하란으로 보내져 이십여 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이사악과 야곱이 지니는 상응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사악은 진정한 합리성을 표현한다. 따라서 속 알맹이에 해당되는 진정한 합리성은 영적 사고인 거룩한 땅에 남아 있으면서 껍데기, 즉 자연적이며 외적인 지식들을 스스로 끌어 들여야 한다. 이는 성경에서 이사악이 장가들어 처갓집에 붙어살지 않고 리브가를 하란에서 꺼내어 거룩한 땅, 즉 자기 고향으로 데려와 사는 모습에 담긴 의미이다. 반면, 야곱은 우리의 삶인 자연적 평면에서 역사 하시는 주님을 표현한다. 이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면서 라반의 두 딸과 딸들의 몸종까지 그의 아내로 삼아서 많은 아들들을 낳는 것으로 표현된다. 우리의 하루 24시간, 7일, 1년 그리고 한 평생을 어느 측면에 얼마의 시간을 배분했는지 계산해 보자. 하루만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24시간 중 절반 정도를 먹는 것 또는 입는 것 등의 물질적 또는 자연적인 관심사에 소비한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의 시간을 배분했을까, 즉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성경을 읽기 위해 사용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적 평면에 대해 생각하며 살고 있음을 나쁘다고만 여길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연적

평면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며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하고 좋은 습관을 갖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주님이 육을 입고 계셨을 때 그분 스스로 보이신 본보기의 수준까지 우리의 자연적 평면을 점진적으로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야곱이 하란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많은 목축을 갖고 그의 모든 소유를 챙겨서 결국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의 의미 중 일부다.

야곱은 거룩한 땅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함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인데, 그 꿈의 내용이 본문의 주제이다. 이와 동시에 주님은 야곱에게 그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베델은 꿈을 꾸었던 곳으로 과거 아브라함이 거룩한 땅에 진입한 후 쌓은 두 번째 제단이 위치한 곳이다. 그곳은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이 있는 심정 상태, 즉 천국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룻밤을 묵는 모습은 매일의 생활을 위해 영적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 모습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시간적으로 보면 그 때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 간 뒤였다.” 이때는 저녁을 향한 시간이므로 하루 일과가 끝나 가는 것, 즉 이전의 심정 상태가 끝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천국적인 진리들에 의지하여 쉼을 얻고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식 세계가 한동안이라도 정지되는 상태를 그려준다. 그 후 그는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 또는 층계의 꼭대기에 주님과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보호와 호의를 약속하셨다.

야곱의 꿈은 생각만으로도 아름답고 호소력 있는 그림이다. 그 그림의 뜻을 깊이 헤아린다면 한층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그것에서 중요한 것은 층계인데, 이는 층계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층계란 간단히 말해서 말씀이다. 층계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어서 우리는 꼭대기를 금방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 측면인 맨 아래인 땅에 닿은 층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옷 입히고 있는 글자이다. 글자는 땅에 속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읽혀져 하늘에 속한 것을 배우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글자는 문자 이상의 것 또는 글자 속에는 의미가 가득해 있다. 의미는 알면 알수록 더욱 높고 깊은 것을 알게 해 준다. 전체적으로 대충 헤아려 보면, 그 의미는 인류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역사와 각 개인의 영혼의 발달 그리고 천사들과 그들의 삶에 관해서이다. 그리고 가장 높고 깊은 의미로서 주님 자신의 생애와 역사하심에 관해서이다. 흑백뿐인 성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점차 올라가져 주님에 관한 지식으로 접근된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얻었을 때, 주님의 영광 가르침이 우리에게 내려와져서 우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까지도 지침을 얻게 된다. 여러분은 천사라는 단어가 “특사 또는 전달자”를 의미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구약 성서는 천사라는 단어가 지상의 특사 또는 천국의 특사라는 뜻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구약성서 마지막 책 말라기는 “나의 특사”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신약성서에서 그리스어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글자 그대로 세례자 요한은 특사를 주님께 보내어 그분이 진정 메시아이신지를 물어보도록 했다. 과연 우리는 특사(천사)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께 올라가고 그분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맨 밑에 있고 주님은 맨 꼭대기에 계시다.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 즉 천국적 삶인 거룩한 땅이 우리를 위해 예비 되었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리 또는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들 위에서 섬을 얻는 상태, 즉 자아와 세상적 관심사를 뒤로 하는 것, 그것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야곱에게 환상은 왜 필요했을까? 그는 지금 그의 고향인 거룩한 땅이 아닌 하란이라는 낯설고 자연적 수준밖에 안 되는 땅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하란에서의 삶의 안주로부터 보존될 필요가 있었다. 우리 역시 이 환상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각종 의무의 이행, 걱정 또는 세상의 쾌락 등에 우리의 마음이 흡수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임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주님에 관한 환상이 주어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가 베고 잤던 돌로 석상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은 후 주님을 섬기며 그가 취하는 모든 것 중 십분의 일을 그분께 드리겠다고 서약한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야곱과 같은 반응은 무엇일까? 말씀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수단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될 첫 반응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세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의 근본이며 가장 간결한 형태로 된 진리, 즉 십계명을 지켜감으로써 주님을 섬김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야곱이 석상 위에 기름을 부었듯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서약하며, 십일조, 즉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10)은 한분(1)이신 그분으로부터 온 것들이므로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때 십일조의 서약은 성취된다.

질문 정리

- 1) 이사악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은 누구인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가 가는 도중 하룻밤을 지낸 곳은 어디인가?
- 5) 여러분은 본문 외에 어느 부분에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접했는가?
- 6) 야곱은 무엇을 베개로 사용했는가?
- 7) 그는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8)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 9) 누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가?
- 10) 천사란 무슨 뜻인가?
- 11) 주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2)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무엇을 했는가?
- 13) 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가?
- 14) 꿈은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15) 우리가 가진 야곱의 사다리이란 무엇인가?
- 16) 우리의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이란 무엇인가?
- 17)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은 무엇을 뜻하는가?
- 18)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로 석상을 세운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에사오와 야곱 2) 아내를 구하고 형을 피하기 위해서 3) 하란 4) 베델
- 5) 아브람의 이야기 6) 돌 7) 사다리 8) 주님 9) 천사들 10) 특사, 전달자
- 11) 내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12) 석상을 세웠다 13) 16-19절을 읽어 보자 14)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다 15) 말씀 16) 생각들 17) 각자에게 기초가 되는 진리들
- 18) 자기에게 기초가 된 진리를 삶의 원칙으로 드높임

7

감옥에 갇힌 요셉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본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공부 중에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요점은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체류했는지, 그가 하란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는지,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음 등이다. 또한 4반과 5반에서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시리즈가 갖는 의미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와 연관된 이집트의 의미도 재고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 왔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지만 흥미롭다.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9, 40장

39장: 1.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 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2.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3.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4.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심복으로 삼고 집안 일의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5.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야훼의 축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6.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 생긴 사내이어서 7.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꾀는 것이었다. 8.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 일에 통 마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9.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마님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10.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 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11.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12.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13.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14. 그는 집안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봐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고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 왔구나. 그 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질렀지! 15.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 둔 채 뛰쳐나갔다.” 16.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챙겨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17.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 온 그 히브리 종 녀석 말이어요. 글썄 그 놈이 내 방에 들어 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18.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 둔 채 밖으로 뛰어나갔
답니다.” 19. 그리고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 따위 짓을 했던 말이에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20.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21.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22.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40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2.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3. 경호 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4. 경호 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 온지 여러 날이 지났다. 5.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 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7. 요셉은 자기 주인 집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는지요. 왜 그러십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 줄 사람이 없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였
다. 9.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10.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11.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 드렸도요.” 12.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14.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5.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 올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16.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본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17. 제일 윗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18.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하며 요셉이 말해 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9.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20.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왔다. 21.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22.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23.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 버렸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영적 애착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 애착을 보호하며 강건케 해 주신다.
- * 요셉의 이야기는 주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 진리는 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주님께 순종함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응 연구

빵 = 선함

포도주 = 진리

해설

요셉의 일생에 관한 줄거리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사랑받는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이유는 그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고 극적이며, 음모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정의로움이 승리해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속의 의로운 측면이 만족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글자 표면 외의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야기 속에 있는 진정한 힘은 주님이 그분의 지상 생활 때에 거쳐 가신 이런저런 상태들 안에서 있어졌다는 것, 그런 상태들은 특별히 젊은 시절의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넓게는 그런 상태가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온다는 것, 즉 우리가 세상적인 주위 환경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영적 도약을 모색하려 할 때 겪게 되는 시험들은 전 인생을 망라하여 반복적으로 오며 이런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요셉의 족보를 상기해 보면, 그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라헬의 첫아들이었음과 과거 야곱이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기 전 하란에서 출생한 마지막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자연적 평면 또는 외적 평면에서 있는 교회의 발달을 표현한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다. 첫 아내 레아는 외면의 진리에, 두 번째 아내 라헬은 내면의 진리에 쏠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정작 그에게 주어진 첫 아내는 레아였다. 야곱은 레아로부터 여섯 아들을 가졌는데, 그들은 야곱이 라헬로부터 아이를 갖기 전에 태어났다. 야곱은 처음에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여 레아와 결혼하게 한 것에 대해 분개했지만, 레아로부터 네 아들을 얻은 후 라헬이 아기가 없음을 불평하자 라헬에게도 화냈음을 창세기 30장 2절에서 알 수 있다. 우리 속에서 위의 줄거리를 발견해 보자. 야곱이라는 우리 속의 자연적 사람은 처음에는 영적 상태라는 보다 높은 것들에 대한 환상을 갖지만, 외부적 성취(레아의 네 아들)를 가짐에 따라 그것을 인생의 만족으로 삼고

즐기며 정착하려고 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연적 평면에서 질서에 맞는 삶 쪽으로 발달 단계를 표현한다. 이러한 발달은 요셉이라는 진정한 영적 느낌의 시작에까지 발달하고,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면서 얻게 되는 베냐민이라는 보충적인 진리가 합세 하는데 까지 발달해 간다. 베냐민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출생했고 그의 출생과 더불어 라헬은 죽었다. 야곱은 레아와 함께 거룩한 땅에 정착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사악과 리브가와 함께 막벨라 동굴에 매장되었다. 이는 자연적 사람이 처한 외향적 삶의 질서가 삶 속에서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것에 비해 보다 높은 것들에 뭔가 나올 것이 있을 것이라고 감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며, 비록 야곱이 라헬을 더욱 사랑했다하더라도 실제로 그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였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써 남아있었다. 외향적 삶, 즉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 면에서 질서 있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 윗글에 대한 예증은 볼 수 없을까? 외향적 삶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며 외향적 삶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젊은 시절에 인식했던 내향적 삶을 그들 자신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을 상기하기를 즐긴다.

스웨덴본은 요셉을 “주님의 영적 왕국”, “영적 사람”, “천적 사람이 될 가능성을 내포한 영적 사람”, “믿음에서 근원된 선행” 또는 “진리로부터 있게 되는 선”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는 주님의 생애 중에서 요셉을 “신성을 담은 영적 사항”이라고 표현한다. 우리의 삶에서 요셉은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웃들 대신 주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의로울까를 기준하여 선택하겠다는 우리 속의 바램을 말해준다. 요셉은 “꿈장이”였고, 그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의 꿈에서 그가 형들보다 우월해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다 더 높은 충동이 진정한 우리 삶의 통치자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반역함도 인정해야 한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가졌다. 이는 우리의 지성에 주님을 모시게 하는 내적 소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경험들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지적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요셉”을 지니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파괴시켜 버리려고 애쓸지라도 요셉이 잘 보존되어야 함을 알고 계신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을 만나듯이 우리에게 언젠가 요셉이 필요한 때가 오면, 우리는 주님에 의해 우리의 기억 속을 깊이 헤아려 가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요셉”이 살아 있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며 구원 시켜주는 위치에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에 처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우리 속의 기억적 지식을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 속 요셉을 기억적 지식의 땅으로 추방시켜 버린다. 추방 과정에서 요셉은 먼저 파라오의 경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진다. 그러나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 하의 보디발의 집안은 번성되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의 집 전체를 맡는 직분에까지 요셉을 승진시켜 주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것 중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인식하는 것은 바깥 삶에서도 질서 있는 형태를 갖게 해 준다. 이는 우리가 갖는 바깥 삶의 성공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가능하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연적 진리로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녀는 요셉을 소유하기를 원했다. 영적인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의 수준으로 꿰뚫어보는 자연적인 마음의 노력은 심각한 시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결국 유한한 인간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짓의 도전으로 주님과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는 극복해내기 힘들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그곳을 뛰쳐나감으로서 시험을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겔옷은 보디발의 아내의 수중에 남겨졌고, 그녀는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증거로 그의 옷을 사용했다. 겔 옷이란 가장 바깥쪽의 진리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요셉의 겔옷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이 천여 년 전의 주님의 겔옷처럼 요셉의 겔옷도 “영적 진리의 최 말단”, 즉 말씀을 담은 글자를 표현한다. 성경의 글자가 종교를 불신임되게 만드는데 사용된 때도 있었음을 생각해 보자.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이는 우리가 시야에서 아예 보이지 않도록 요셉을 놓아두는 모습이다. 그러나 요셉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그는 감옥에서도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부상되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속의 많은 것을 감옥에 가둬 놓는다. 감금된 것들은 크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된다. 좋은 것이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며 우리를 고쳐 주기 위해 진리를 우리 지성 안으로 가져다주기 때문이며, 나쁜 것이란 세상에서 우리의 신용이 더 낮춰지는 행동 쪽으로 우리를 띄기 때문이다. 파라오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위의 두 종류의 죄수들을 표현한다. 여러분은 성만찬에서의 포도주와 빵을 기억할 것이다. 포도주는 진리를, 빵은 선을 표현한다. 술잔을 올리는 자는 꿈에서 그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수행하는 모습, 즉 왕의 잔에 포도주를 붓는 모습을 보았다. 반면, 빵을 구워 올리는 자는 꿈에서 왕에게 전달되어야 할 빵이 공중의 새들에 의해 도둑질 되는 모습을 보았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5077-5078항에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란 내적 사람의 지적 부분에 종속된 외적 감각을 표현하며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란 내적 사람의 자유의지 부분에 종속된 외적 감각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었으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목이 매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적 능력은 우리 속 기억적 지식들이 진리를 받게 하거나 그것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선에 관한 지식은 거절하는데, 이는 받아들이는 진리에 따른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뭔가를 익히는 데는 열심이지만 배운 것을 실체화 하는 데는 머뭇거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두 시종장들이 그들의 꿈 때문에 몹시 근심하고 있음을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말해 달라고 청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서”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주님의 판단에 자신을 기꺼이 맡겨 놓았으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주님의 판단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따져 본 뒤 해 보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를 보충해 주는 또 다른 내용은 제 40장 16절에 관한 스웨덴북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영문 성경 중 King James Version은 “세 개의 흰 바구니를 머리에 얹고 있었다.”라고 하며, 또 다른 영문 성경인 The Revised Standard Version은 “이 시종장이 세 개의 떡 바구니를 머리에 얹고 있었다.” 라고 번역된다. 그리고 최근의 the New American Bible 또는 the Anchor Bible 등에서는 “가는 가지로 만든 세 바구니”로 번역된다. 스웨덴북의 저서에서는 “구멍이 있는 세 바구니, three baskets with holes”로 표현되는데(1611년 초판 King James도 참조), 바구니는 마음의 평면이고 구멍은 “내용물들이 중간의 어떤 장소에 종결됨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된다.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5145항을 참고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 들여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다(하깨서 1:4-6).”라는 망명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깨의 견책도 상기해 보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는가?
- 2)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어디로 끌려갔는가?
- 3)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 4) 그와 더불어 감옥에는 누가 있었는가?
- 5) 요셉은 두 시종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6) 술잔을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7) 빵을 구워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8) 두 시종장의 신변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했는가?
- 10) 우리 삶에서의 요셉은 무엇인가?
- 11) 우리는 때로 “이집트의 감옥에 요셉을 가두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 12)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주님은 왜 요셉을 항상 보살피 주셨는가?

질문의 답

- 1)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귀여워했고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 2) 이집트
- 3)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4) 파라오의 두 시종장 5) 꿈을 해석해 주었다. 6) 잔에 포도주를 붓는 모습 7) 구멍을 가진 세 바구니에 떡을 담아 머리에 이었는데...그것을 새들이 먹어버린 모습 8)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목이 매달려 죽었다. 9) 기억 못함 10) 선택지려는 마음(바램) 11)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를 갖게 되어 선택지고자 했던 마음을 잊으려고 할 때 12)
우리의 경험을 이해함 13) 의를 행하고자 원했기 때문이다.

8

불붙은 떨기나무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과 본 과를 연관 지어 본다. 즉,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한동안 요셉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이집트에서의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 가야함을 망각해 버리는 시험을 겪게 된 것을 본 과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주신 선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옳은 길, 즉 선택해야 할 길 대신에 편한 길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롯에게 살아갈 땅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목도 예로 든다. 쉽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과 옳은 것에 항상 고생이 뒤따르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장

3장: 1.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더니 2.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3.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4.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5. 하느님께서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6.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뵈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7.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8.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 가고자 한다. 9.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10.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어라.” 11.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겠습니까?” 12.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 이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13.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나?’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4.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 라고 하시는 그분이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15.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고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 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17.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기로 작정하였다.’

16.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 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19.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20.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21.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 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 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 22.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얻어 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탈리라.”

교리 요점

- * 주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I am)”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진리에 관한 지식은 악용될 수 있는데, 상응에 관한 지식이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마술로 변한 사실이 그 예다.
- * 주님은 적절한 때가 되면 그분을 위해 해야 할 특별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

상응 연구

미디안 = 아주 단순한 혹은 어린 시절 같은 신앙심

신발 = 우리의 일상생활 혹은 “실제적인” 생각들

해설

이스라엘 족들은 이집트로 내려와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양식을 얻어 기근의 시기를 피했다. 그들은 살기 좋은 땅을 거주지로 받아 과거 그들의 고향에서보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더욱 번성하게 되어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 가야함을 잊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고향과 하느님의 이름까지도 잊고 말았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때로 우리는 진정한 삶으로 이르게 해줄 지식의 결핍을 느껴서 그것을 찾게 되고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발견한 지식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기만족을 얻게 되면 그러한 지식을 찾으려 했던 본래의 목적이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로 상징되고 있다.

모세의 일생은 사십 년씩 세 시기로 구분된다. 숫자 40이란 시험이 충만 됨을 표현한다. 모세의 첫 사십 년은 이집트 파라오의 궁전에서 보내졌다. 당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활동을 하던 국가로, 그는 그곳에서 아주 높은 학문을 익히게 되었다. 한편 그는 친어머니를 통하여 히브리인의 전통을 배우기도 했다. 그 다음 사십 년은 시나이반도 남동쪽 부분인 미디안 땅에서 보내졌다. 좋은 의미에서의 미디안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 이유는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25:4). 아브라함이 미디안에서 40년간 살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담는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세상적인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우리 안의 보다 높은 본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해주시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과거 어린 시절 속에 있어왔던 주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심과 순종심으로 일단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 안에서 때가 올 때까지 발전과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40년간의 미디안 생활로 의미된다.

우리는 한없이 미디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것 중에 “예수에게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있다. 이 구호는 언뜻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이상적이고 당연한 사항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의 실질적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구세주로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움에 있어서 인간적인 논리나 합리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교단이 결정하는 데로

믿으라는 것이다. 이는 추론을 통하여 스스로 이해해 보려는 우리의 의지를 “예수”라는 구호 하에 담아버리는 태도로서, 신앙에 합리적인 이해성은 전혀 필요 없는 듯 무시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 구호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눈먼 믿음으로 본문의 미디안 땅에 해당된다. 우리가 눈먼 믿음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미디안은 적이 되어서 우리의 더 큰 영적 시야 혹은 선용으로 유도해줄 새로운 발달 또는 기회를 잡아먹어 치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관관기서의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 족이 마치 폐뚜기가 땅에 퍼져 작물을 잡아 먹어 치우듯이 존재했던 구절을 보면 납득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 살아있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 하시기 원하시는데, 이는 모세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도록 불리는 줄거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표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의 노예가 되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인도해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다.

모세를 부름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 이집트로부터 빠져 나옴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하는 것은 기억 저편에 의미 없이 처박아 두어 퇴화된 것 같았던 진리에 주님의 신성한 사랑이 때가 되었음을 알리며 주는 자극이다. 이것이 바로 하찮고 별로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불붙은 모습인데, 이때 모세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자. 그는 시나이반도 호렙 산에서 가축에게 풀을 뜯기고 있었다. 주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은 우리가 계명을 곰곰이 되새기거나 어린 시절 상태의 깊은 속에 주님이 “아껴두신” 어떤 것을 잘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때이다. 스웨덴북은 어느 누구도 주님이 각자 속에 “아껴두신” 것 없이는 구원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 안에 아껴둔 것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우리의 의식 안에 가져다주시는 것이 바로 모세를 부름에서의 부름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름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끼고 새로운 진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도록 해주시는 내적인 자극이다. 따라서 이 부름은 스스로 자신의 길이 잘 준비되었다고 하는 때 또는 주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전진 단계를 취하기에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고 강건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있게 되는 그분의 은총인 것이다. 부름의 소리가 모세를 향하여 말한 첫 번째 일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실용적”이라고 하는 일상적 혹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한쪽으로 재껴 놓아야하며 예상치 못했거나 곤란하게 여겨지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수행해 갈 각오가 있어야 한다. 어찌됐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고 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나 듣지 못한다.

모세는 자신에게 수여된 임무를 기꺼이 수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몇가지 거절 사유를 추켜들었다. 첫 사유는 제 11절의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였다. 이것은 그의 약함 또는 무가치함 때문에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의 견해였는데, 주님은 이에 대해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셨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무지를 변론한다. 사실 그는 하느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모세의 변론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다. 즉, 주일학교 교사 또는 성경공부의 지도가 자신에게 맡겨 질 때 “저는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데요.”라고 말하며 그 직분을 거절하는 경우다. 우리는 그 대답이 핑계에 불과하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심으로서 대답하셨다. 이름이란 사물의 질을 의미한다. 그분의 이름,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은 모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본질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바로 나다(I am).’”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어 Jehovah(여호와)는 “I am, 나다”의 또 다른 형체이다. 우리는 스웨덴복을 통해서 여호와(야훼)란 주님의 이름 중 하나로 특별히 신성한 사랑이 고려될 때 그 이름이 성경에 등장되며, 그 외에 Elohim이 번역된 하느님(God)이 등장하면 신성한 진리의 활동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영어 성경 King James Version의 경우는 여호와가 대부분 “주님”으로 번역되고 Elohim은 “God”으로 번역된다. 우리가 그 이름이 사용된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 흥미롭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하느님”이라고 읽을 때는 히브리어로 Jehovah Elohim이 되며, 이 때 강조 되는 점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함께 활동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복에 의하면, 주님이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이 I am이라고 말씀하신 속뜻은 하느님의 신성한 사랑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

었고,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과 존재를 갖는 유일한 존재이시며 그의 근원이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깨우쳐서 믿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된다. 출애굽기 제 4장에서는 주님이 모세가 그분의 특별한 임무를 위촉받았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기적들을 행할 힘을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심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님 앞에 마지막 변명거리를 늘어놓는다. 즉,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라는 구절이다. 우리 역시 우리가 몸담은 교회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도록 요구될 때 그 구절을 인용할지도 모른다. 이때 주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를 만들고 눈을 열어 주거나 앞 못 보는 장님이 되게 하느냐? 나 야훼가 아니더냐?”라고 꾸짖으시고, “어서 가거라. 네가 입을 열 때 내가 도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2장 11-12절의 “너희는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 갈 때에 무슨 말로 어떻게 항변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자. 주님은 모세에게 그와 동행해줄 그의 형 아론을 주신다. 스웨덴복음 천국의 신비 제 6998항에서 그 구절에 대해 “여기에서의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아론은 교회 속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표현한다.”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혹은 교회를 위한 선교를 하도록 부름 받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일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해주는 진리는 결국 그분의 진리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우리는 그분과 이웃을 진실로 섬겨 보겠다는 자세나 그를 위해 필요한 지혜와 힘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의 주원인을 주님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주님은 차후에 실패하지 않을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수 있게 된다.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제 21-22절의 말씀이다. 주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이집트를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으며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얻어낼 것이라”하고 말씀하셨다. 제 12항

35-36절에서 이 약속이 수행됨을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집트인으로부터 얻어 낸 것들은 후에 성막을 건축하는데 사용된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약속된 천국적 인격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보다 잘 이루기 위해서 획득된 모든 지식을 챙긴다는 것이다. 이집트인들로부터 “강탈” 했다함은 우리가 가진 지식들이 진정한 용도에 맞춰질 수 있도록 세상적인 맥락으로 그 지식들을 옮겨놓는다는 것이다. 지식 곧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다. 하지만 지식은 그 자체로는 선 또는 악이 아닌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지식이 무엇을 섬기게 만드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가진 지식은 선 또는 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양육되었는가?
- 2) 그는 이집트에서 몇 년간 살았는가?
- 3) 그는 왜 이집트에서 도망해야 했는가?
- 4) 그는 어디로 피신했는가?
- 5) 미디안이란 누구인가?
- 6)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가?
- 7)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산 근처에 있었는가?
- 8)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9) 주님은 어떻게 그를 불렀는가?
- 10) 주님은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모세는 그 큰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싶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이집트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오래 머물러 노예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 16) 미디안 땅은 좋은 의미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머물렀음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불붙은 떨기나무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 19) 모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우리는 본문의 모세와 같은 행동을 어느 때에 하게 되는가?

질문의 답

- 1) 이집트의 궁전 2) 40년(사도행전 7:23참조) 3)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
- 4) 미디안 땅 5) 아브라함과 게투라의 아들 6) 40년 7) 호렘(시나이)
- 8)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9) 불붙은 떨기 10)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인도함 11) No 12)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13) 은불이와 금불이 그리고 옷 등 14)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15) 지식은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지식 자체를 숭배함 16) 단순한 믿음 17) 시험이 충만해진 상태 18)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심 19) 신성한 법 20)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거나 핑계를 만드는 때

9

마라와 엘림

머리말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되돌아오는 줄거리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으므로, 그들이 다시 불순종했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야생활 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한다. 이러한 광야생활 중의 실망과 불평은 구원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광야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시험에 든 상태를 상징한다고 한다. 즉,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한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힘들고 험난함을 느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의 기복”에 아주 친숙하다. “삶의 기복”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기복에도 적용된다. 본과는 “up”으로 출발하나 “down”이 금방 뒤따른다. 그리고 또 다른 “up”으로 끝난다. 이를 염두 해 두면 본과의 공부에 용이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5장

15장: 1.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 야훼는 힘 있게 나를 불드시어 나를 살려 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3. 야훼는 용사, 그 이름 야훼이시다. 4.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바다에 빠지더라. 5.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6.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셨습니다. 7.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검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8. 당신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독처럼 일어섰으며 바다 속 깊은 데서 물이 영졌습니다. 9.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 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10.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 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11. 야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

다. 12. 당신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3.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아,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14.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15.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16. 덮쳐 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역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17.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18.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어라. 19.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다 속에 잠겨 버렸다. 야훼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20. 아론의 누이요,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21. 미리암이 노래를 메겼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2.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바다에서 수르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23.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 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24.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25.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 물이 되었다. 야훼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26.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27. 그들은 샘이 열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따른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 *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란 주님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이글 거리고 있는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 * 인생 중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 강함을 증진시키는 기회이다.
- * 선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순수한 바램, 즉 선의지는 우리에게 영적성장의 고진감래를 느끼게 해준다.

상응 연구

구름 = 말씀의 글자

종려나무 =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얻는 선

광야 = 고향에 정착하지 못한 마음의 영적인 상태

해설

앞서 했던 성경 줄거리를 기억해 보자. 우리는 모세가 이집트로 되돌아 온 것, 열 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확신시켰던 것, 첫 과월절을 기념하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출현, 이집트 군대의 추격 그리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등에 친숙하다. 위의 줄거리들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자. 우리는 세상적 삶만을 영위할 때는 영적 파괴가 있을 것임을 이해한 후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마음의 쇠사슬을 깨트려 버리기로 결심한다. 그 후 우리는 천국적인 인격으로 이끌어 줄 우리의 지도자로서 말씀 속의 가르침을 내세운다. 홍해는 이러한 굳은 결심을 포기하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첫 시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저 건너 동쪽 해안에 도착해서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대가 바닷물 속에 잠겨 버리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로 시작된다. 우리가 힘들게 결심한 영적 수련에 있게 되는 극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첫 시험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넘겼음을 실감하게 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말씀 속에서

노래나 음악은 대체로 감정의 표현을 뜻한다. 특별히 음악은 애착에 상응된다. 여러 가지 악기들은 다양한 애착에 상응된다. 일반적으로 관악기는 선함에 대한 애착이고, 현악기는 진리에 대한 애착과 상응된다. 본문에서 미리암이 사용한 악기인 소구는 탬버린과 같은 형태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8337항에서 그 악기에 대해 “소구라는 악기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소구는 영적인 선, 즉 진리의 선에 상응된다. 그 이유는 그 악기가 현악기도 관악기도 아니고 가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연속적인 현악기의 소리를 내며 그 소리가 현악기의 소리보다 더 깊어 조각가의 칼 같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 다음 그는 성경에서 소구가 언급된 구절을 인용한다. “진리의 선”이란 말씀 속의 어떤 진리를 직접 실제에 적용시킨 결과로 있게 되는 삶의 경험에서 오는 선을 말한다. 특별히 본문의 경우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구원된다는 진리가 이에 해당된다.

기적적인 탈출로 기운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 없이 곧바로 광야로 진입한다. 그들은 여행의 여정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작하나 광야 길에 이내 환멸을 느낀다. 그들이 여행한 곳은 “수르광야”라 불렸는데, 그곳은 과거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이 도망한 곳이기도 하다. (창세기 16:7) 스웨덴북은 수르에 대해 “수르란 삶을 통해 얻지 않은 교회에 있는 기억적 지식들을 뜻하는데, 그 지식들은 삶 속의 시험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은 시험을 통해서 획득되기 때문이다. 시험이란 영적인 전투 또는 악과 거짓에 대한 전투를 뜻한다.”라고 설명한다. (AC 8346)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삶으로서, 즉 내적인 악과 싸워서 이겨내는 영적인 삶으로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되지 않은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많은 지식들이 단순히 저장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들을 스웨덴북은 기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험이라는 영적 싸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의해 인도되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해진다. 스웨덴북은 이 구절이 주님의 지속적인 현존을 의미한다고 말한

다. 우리가 계발의 상태에 있을 때 뭔가를 밝히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낮과 같은 상태인데, 그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진정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가리신다. 즉, 대낮을 덜 뜨겁게 해 주는 구름과 같은 모습이다. 성경에는 그분이 “구름 가운데” 오시리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다. 구름이란 말씀을 담은 글자를 표현한다. 글자는 우리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님이 빛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밤의 불기둥이란 우리가 진리에 희미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선에 의해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을 그린다(천국의 신비 제 8105-8110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명령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했고, 기둥이 움직이면 밤낮에 관계없이 천막을 거두어 즉각 따라나서야 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경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결점이나 약함을 보고 고쳐 나가고 타인에게 도움이 될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을 발달시켜 그로 인해 우리의 영적 가치를 증진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 역시 시험을 정복하고 확신으로 충만 되어 그들이 통과해야 했던 일련의 체험이 필요하다. 즉, 22-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 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경험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재정립해 보겠다는 것, 즉 재형성을 시작할 때 우리는 결심만으로 이미 스스로가 변화된 것처럼 여긴다. 또한 선한 삶을 이끌어 보기로 결심했으면 선한 것을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올바르게 정립하려는 마음을 지니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선한 것이라는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낡은 습관이나 바램은 새로운 형성의 길을 못 가도록 완강히 저항한다. 따라서 우리는 낡은 습관이나 바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길을 새로 처음부터 배우고 배운 만큼씩 참을성 있게 삶 속에 적용해가기를 바라신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과거의 낡은 애착이나 생각을 치워내고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시켜 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나 실제로는 아주 길고 고통스럽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 없이 삼 일 간 여행하는 모습이다. 이때에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도 얼른 반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속의 자연적인 바람을 늘 자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라에서의 물이 쓴맛이었다고 기술되는 것이다. 주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나무는 선을 상징한다. 자기 의지 속으로 선을 놓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달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25,26절)에서 주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리에의 순종은 새 삶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렇게 순종한다면 이집트인들에게서 당한 불행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하신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여정 초에도 그것이 과히 쉽지 않더라도 과거의 세상욕과 이기심이 초래했던 불행이나 좌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새 삶이 가져다 줄 행복과 평화를 맛보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27절의 “그들은 썸이 열 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8368항에서 “열두 개의 썸이란 모든 면에서 진리가 풍부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천국의 신비 제 8368항에서 “종려나무 일흔 그루란 풍부한 진리로부터 있는 선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숫자 70이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12란 숫자 또한 이와 같기 때문이다. 종려나무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선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실천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선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천국의 신비 제 8369항). 우리는 이런 선들을 일생 동안 내내 맛보기를 소망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맛봄은 우리가 의를 신실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곤란한 상황을 넘긴 후에 맛보는 갑작스런 잠깐의 휴식, 원기 회복 또는 새롭게 삶을 이해하는 데서 경험되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길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과 그분의 인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발견한다. 이 후 삶을 전체적으로 전망해보는 우리의 태도가 재조정되어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고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지식은 기억 속에 든 진리이다. 총명은 지식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진리에 대한 확실성이다. 확실성은 진리를 삶 속에서 사용해 보고 삶 속에서 확증을 얻을 때만이 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무엇에 의해 인도되었는가?
- 3) 홍해는 어떻게 되었는가?
- 4)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5) 모세와 아론의 누이는 누구인가?
- 6) 미리암이 사용한 악기는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물을 발견하기 전 며칠간 광야를 여행했는가?
- 8)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9) 쓴 물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인가?
- 10) 그들의 다음 번 여행지는 어디였는가?
- 11)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이집트로부터 빠져 나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 13)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쓴 물과 쓴 물을 달게 만든 나무란 무슨 뜻인가?
- 15) 열 두 개의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란 무슨 뜻인가?
- 16) 광야 여행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구름 기둥, 불기둥 3) 물이 갈라짐 4) 노래를 불렀다
- 5) 미리암 6) 소구 7) 3일 8) 물이 쓴맛 이었다.
- 9) 마라 10) 엘림 11) 열 두 개의 샘,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
- 12) 세상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영적 상태를 추구함
- 13) 말씀을 담은 글자 14) 진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반대되어 있다,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바램 15)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앎으로부터 오게 되는 선 16) 재구성 또는 재형성

10 궤

머리말

본과에 앞서 몇 가지 사건들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들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지는 일련의 법률과 각종 지침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여행 초기 석 달째에 시나이 산에 도착했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종의 정부 형태를 갖추었음과 그 형태가 그들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지속되며 오늘날의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과 성막 안의 가구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백성들의 자유로운 헌납으로 되어졌음과 그 재료들이 구해진 곳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출애굽기 12:35-36).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출애굽기에 묘사된 것처럼 정교한 작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요구되어진 모든 재료들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낮고 유랑 민족의 특성상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집트의 왕가에서 훈육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사료만을 바탕으로 성서를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5장 1-22절

25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 놓아라. 3. 너희가 받아 둘 선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구리, 4.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나무, 6.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7.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8.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도 내가 보여 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10. 그들은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 높이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1. 순금판을 채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12.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밑에 붙이는데, 한 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 쪽에도 고리 두 개를 붙여라. 13. 또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14. 이 채를 채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채를 들게 하고 15. 채는 고리에 꿰어 놓은 채 그대로 두어라 16.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채 속에 넣어라. 17.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8. 속죄판은 마치로 두드려 늘여서 거름 둘이 양쪽에 자리잡게 만드는데 19. 거름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름은 맞은쪽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두 거름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든다. 20. 거름들은 날개를 위로 퍼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여라. 21. 그 속죄판은 채 위에 얹고, 채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22.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채 위에 있는 두 거름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 주리라.

교리 요점

- *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한다.
- *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법의 영적 의미를 공부하면, 말씀을 담은 글자의 세부 사항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실용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 * 성막의 설계는 천국적 인격을 위한 청사진이다.
- * 계명들은 심정에 새겨져야 하며 지성에 새겨져서는 안 된다.

상응 연구

아카시아 나무 = 공의의 선

거룩들(cherubim, cherubs) = 거룩한 것을 모독함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섭리

해설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자.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과 르비딤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일 그리고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이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었으며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붙들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서두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그 사건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보아 주시며 적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임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이다. 영적 의미에서 사건들 모두는 우리의 삶을 재형성하겠다는 각오가 있는 초기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 도착하는데 석 달이 걸렸으므로 사십 년 광야 여정에 비하면 아주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증을 갖는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에서 법과 훈령들을 받는데 대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또 다른 준비 과정은 제 18장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줄거리에서 발견된다. 미디안 족인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그는 예배 속에 있는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이드로는 매우 슬기롭기도 했는데, 이는 착한 어린이가 성인보다 현명할 때와 같은 모습이다.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과중한 임무를 떠맡고 사람들을 재판하느라고 온종일 그들의 불평이나 견해 차이를 들어야 함을 발견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모세의 이야기는 천국을 향한 인생 여정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묘사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세세히 따져 보며, 때로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과 뒤범벅하여 섞어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슬기로운 사람을 골라서 그들로 하여금 사소한 사건이나 일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것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이드로의 조언이 의미하는 바는 일반적인 원리를 바로 세워서 세세하고 소소한 것들은 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고 깊은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시나이 산에서 계명과 더불어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이 주어졌고, 그 법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시나이 산 밑에 야영하고 있었던 11개월 동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과 그에 따른 체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차후 이루는 왕국의 법률과 신앙적인 근간이 된다. 신명기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다. 즉, 그들이 법들을 배우고 명심하여 순종하면 그들의 삶에는 번영이 있을 것이나 그들이 법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재난과 질병 또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상과 벌로서 백성들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을 따르도록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초기에는 주님의 법을 기꺼이 따를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가시적인 상과 벌이 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러면 어른들이 기뻐하시고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법의 글자는 당대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각종 지침은 중간 지도자의 결정을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그 글자를 요구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면 글자대로의 법 또한 폐지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시대가 한참 지난 지금에도 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지켜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글자대로의 법이 그 속에 내적 의미를 담으며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모세 자신이 십계명을 표현하고 있다. 십계명은 글자대로와 영적 의미로서도 신성한 법이며 전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한 법이다.

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성막을 짓고 그 속의 가구를 짜는 일이며 그 후 사용에 관한 지침 사항들이다. 성막은 국가 예배의 중심이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예배를 표현한다. 성막이 위치하는 곳이 언제나 중앙인 것은 삶의 상태가 질서 있게 되어야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성막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세 구역이란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을 표현하는데, 이는 곧 우리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이다. 그리고 각 구역 안에 있는 가구란 천국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그린다.

본 반의 주제는 성막의 가구 중에서 궤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속 안으로 주님의 생명이 순간순간 유입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현존하시는 가장 깊은 속이 궤로 표현되고 있다. 스웨덴북은 궤는 “가장 깊은 천국”도 의미한다고 말한다.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는 “공의의 선”을 뜻하며, 그 선은 주님만이 가지신 것이다. 나무의 안과 밖을 순금 판으로 대었다는 것은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금테와 궤를 운반하게 될 금 고리란 천국적인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그것의 후원을 받게 될 것을 그린다. 속죄관(propitiatorium, 자비석, mercy seat)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 악으로부터 깨끗해짐을 뜻한다. 금으로 된 거룩이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인격을 자신에게서 비롯된 듯 착각하여 그분을 모독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는 신성한 섭리를 그린다.

스웨덴북은 “주님의 신성이 천국을 이룬다” 라고 수차례 말한다. 이는 자아를 한쪽에 치워 놓고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자기 안에 유입되기 위한 길을 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적인 상태에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계명에 순종함은 천국적인 삶의 심정에 필수사항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적인 삶은 타인을 의식한 선한 삶이나 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특징되는 우리의 첫 번째 순종 방식인 “마음은 내키지 않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까 한다.”라는 것에는 내재될 수 없다. 이러한 억지 순종은 아니더라도 의무감에서 비롯된 두 번째 단계인 순종

방식도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천국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적인 삶은 잘 연습된 순종에 존재한다. 즉, 이 순종이란 순종 자체가 기쁨이 되며 만족을 주는 상태로 우리 안에 있는 독선이 주님의 선함과 자비로 인해 사라지게 될 때까지의 훈련을 거친 것이다. 궤를 만든 나무, 나무에 입힌 금 그리고 꼭대기 가장자리를 두른 금테는 모든 선함과 진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꺼이 인식함을 그린다. “속죄판”이라는 번역은 주님께서 거룩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사실에서 암시받은 번역인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 원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속죄판의 원어가 되는 히브리어는 “koppar”다. 이것은 “덮개 또는 덮어 가림”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유추하자면 “koppar”는 신성한 자비로 우리의 악을 덮어 버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ppar”의 어원은 속죄일을 뜻하는 “Yom Kippur”의 “kippur”와 같다.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그들의 진정한 삶이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회복해지기 시작할 때는 그들 고유의 상태로 “내려가”져서 다시금 그들 속에 그들의 것과 주님의 것이 있음을 실감한 후에야 제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말해진다. 따라서 속죄판이 그리는 명확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연습하고자 할 때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악을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주시는(덮어 가림) 방법으로 우리를 정화시켜(정결)준다는 것이다.

거룩(Cherubim)들은 말씀 가운데서 자주 언급된다. 거룩들은 신성한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보호와 방어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받아들였던 선과 진리를 모독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거룩이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입구에 거룩들을 세워두신 창세기 3장 24절이다. 이러한 창세기의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자아 사랑이 인간들의 심정을 장악하기 시작하자 주님이 태고교회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던 천국과 교통하는 내적 통로를 닫으셨다는 것이다. 닫으신 이유는 자아만 사랑하는 것, 즉 이기적인 사랑이 내적 통로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본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편 37편 23-31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의 지성소에 궤를 안치한 선한 인격의 상태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다. 즉,

“착한 사람은 동정하고 후하게 준다.
주께서 축복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께서 저주한 자는 멸망하리라.
야훼,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그 발걸음이 안정되고 주님 뜻에 맞는다.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넘어져도 거꾸러지지는 아니하리라.
착한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구걸하는 것을
나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선선히 꾸어주며 살고
그 자손은 축복을 받으리라.
악을 피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야훼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악하게 사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며
악인들은 그 자손을 끊기리라.
착하게 사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언제까지나 거기에서 살리라.
착한 사람의 입은 지혜를 속삭이고
그 혀는 정의만을 편다.
그 마음에는 하느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질문 정리

1) 주님은 산꼭대기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2) 주님은 이밖에도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3) 백성들의 예배 장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4) 그곳의 가장 깊은 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그 안의 가구는 무엇인가?
- 6) 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7) 궤의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
- 8) 궤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 9) 주님은 궤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10) 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속죄판”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거룩은 무엇을 그리는가?
- 13) 왜 궤가 천국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여러 가지 작은 법들 3) 성막
- 4) 지성소 5) 언약궤 6)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싯딤 목재, shittim wood)
- 7) 덮개 8) 두 돌판(계명들)
- 9) 백성에게 말하시는 데에 사용
- 10) 우리의 내적 존재,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11) 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함
- 12) 신성한 섭리의 보호
- 13) 천국은 우리의 심정 안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

11

열 두 스파이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어본다. 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38절을 읽어본다. 그 후 레위기서의 일반 목차를 훑어보고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기억한다. 이 후 민수기 10장 33-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행이 시작되는 초기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불행이 일어나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적 행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3장, 14장

13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들을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3. 모세는

야훼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4. 이름은 아래와 같다. 르우벤 지파 대표는 자구르의 아들 삼무아, 5. 시므온 지파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6. 유다 지파 대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7. 이싸갈 지파 대표는 요셉의 아들 아갈, 8. 에브라임 지파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 9. 베냐민 지파 대표는 라부의 아들 발티, 10. 즈블룬 지파 대표는 소디의 아들 가뎀엘, 11. 요셉 지파와 므나쎄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가뎀, 12. 단 지파 대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13.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 14. 납달리 지파 대표는 읍시의 아들 나흐비, 15. 가드 지파 대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1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 준 것은 모세였다. 17.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 가 보고 산악지대에도 올라 가 보아라. 18.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지, 20.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담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21. 그들은 썩 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살피려고 그 땅으로 들어 갔다. 22.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하만, 세새, 탈매족들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칠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23.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 왔다. 24.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따 왔다고 해서 그 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5.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데 사십 일이 걸렸다. 26. 그들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 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28.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29. 네겝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30.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32.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 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33.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 그랬을 것이다.”

14장: 1.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 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3. 야훼는 어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것들이 적에게 붙잡혀 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4.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5.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6.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6.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요 8.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 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10.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12. 나 이제 염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 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13.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14.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디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 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15.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 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6.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 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7.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18. ‘야훼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삼, 사대에게만 물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이 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 주시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2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22.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23.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24. 그러나 그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리라. 25.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바다 쪽 광야로 떠나거라.”

26.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7.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28.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29.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덩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30.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31.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32.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33.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어야 한다. 34. 너희가 사십 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사십 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35.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3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 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37.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께 벌을 받아 염병으로 죽었다. 38.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 39.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40.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쳐올라 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려고만 있을 터이냐?” 41.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야훼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42. 올라 갈 생각을 말아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올라 갔다가는 43. 거기에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의 눈 밖에 나고 말았다.” 44.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45.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 내려 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시험은 보류해 주신다.
- * 구약 성서에서 언급된 거인들이란 태고 교회에서 잔류된 악들이다.
- *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유전적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심이라는 거인들이다.

상응 연구

젓 = 선함이 들어 있는 진리

꿀 = 선함과 진리로부터 오는 행복

해설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그 위에 구름기둥이 머무르는 것으로 끝맺는다. 레위기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직에 임명하는 8장과 9장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다룬 10장 1-7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주님께서 주신 법을 기록한 것이다. 본장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로 이어진다. 민수기의 이름은 책의 서두에서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수를 셈” 또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책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책의 이름은 책이 가진 특질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숫자란 진리를 가늠하는 것을 뜻하고, 수를 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 준 법(진리)을 그들이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대해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시험을 치르는 때가 있다. 새 교회에서는 삶에 관한 책으로서 말씀(성경)이 인식되도록 어린아이 때부터 부단히 가르친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사실을 수긍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의 진리를 배우고 배워진 진리를 실제로 엮어 입증해 보기 전까지는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입증하는 순간이 바로 시험을 갖게 되는 때이며 민수기의 첫 부분인 인구조사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를 덮었던 구름이 걷혀 올라갔을 때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우리는 삼일 만에 백성들이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음을 11장에서 읽게 된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의 삼 일 여행은 민수기서의 삼 일 여행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숫자 3이란 상태의 충만함이며, 3일이란 세 가지 평면에서 충만해진 인생의 경험을

그러 준다. 세 가지 평면이란 우리 속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을 말한다. 우리는 각자 발견한 새로운 진리를 자신의 행동선상에 가져다 놓을 때 시험을 만난다. 시험은 우리 속의 보다 높은 생각이나 애착에서도 있게 되는데, 이는 제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시험으로 기술되고 있다. 여러분은 에덴의 동산 이야기에서 뱀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해도 너는 정녕 죽지 않으리라”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계명에의 순종을 관심 밖의 일로 여기는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여 마치 그들이 주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제 12장에서는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여 그를 비판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 읽게 된다. 두 사람은 “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줄 아느냐?”라고 말한다. 에티오피아란 좋은 측면에서 말씀의 내면에 있는 지식들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들의 반역은 성경을 유일한 지도자로 찾으려 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해 준다. 미리암이 얻은 문둥병이 상징하는 것은 자유 진보적이고 편견이 없는 듯 보이는 사상에 내포된 위선이다.

반역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거룩한 땅의 경계선 근처인 카데스 바르네아에 도착했다. 그곳은 오늘날에도 확실히 확인되는 지역으로, 브엘세바로부터 대략 사십여 마일 내에 있다. 민수기에는 주님이 열 두 스파이들을 파견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장 19-46절에는 스파이들을 파견해서 정탐해 보자고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은 모두 진리를 잘 활용하는 것을 묘사한다. 그 이유는 우리 속의 자연적인 바램 또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일을 예측하고 계산해 보길 원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4:28-32).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의 이기적인 생각과 애착 외에도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로 표현되는 선하고 진정한 애착과 생각도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계신다. 우리 속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지각들도 천국적인 삶이 매우 유익한 것임을 본다. 합리적인 인격자라면 시민적이며 도덕적 측면에서 정직과 청렴이 매우 가치 있는 속성임을 당연히 알 것이다.

13장 27절에 있는 성곽 도시란 우리 속의 이기심을 방어해 주기 위해 발달된 생각의 거짓된 체계를 표현한다. 거인들이란 우리 속 깊은 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이기심 자체를 표현한다. 거인들은 태고 교회로부터 절멸되지 않은 악한 찌꺼기이다. 이기심은 언제나 거짓 추론을 바탕으로 힘을 발휘한다. 역사상 실제 거인의 일부는 다윗의 시대 때에 등장하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다. 골리앗은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진리에 흥미를 가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한다. 시험을 당할 때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악령이 우리의 마음 안을 휘저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마음속의 혼란한 논쟁의 가장 강력한 연합 전선은 우리 속의 유전적 이기심이다. 이 논쟁이 14장 10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던 돌로 묘사되고 있다. 미리 겁을 먹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에 커녕 광야에서 죽어야 함을 뒤늦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하느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이루어 아말렉을 공격하였으나 결국 그들에게 전멸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주님께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묘사하는 바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 보겠다고 날뛰다가 결국에는 스스로의 삶마저 망쳐버리는 이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시도는 첫 번째 오는 실망만으로 막을 내리고 만다. 아말렉에 관해서 신명기 25장 17-18절 혹은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지쳐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수풀 속으로부터 기습 공격하는 특성을 지녔다. 아말렉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한 우리의 실망을 그린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떠한 영적인 것도 성취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서를 읽다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주님이 단 한 번의 잘못만으로도 우리에게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을 앗아가 버리고 지옥의 저주를 내리신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본문의 모든 이스라엘 족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다 높은 본성을 자극하는 우리 속의 것들이다.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언젠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발달될 우리 속의 가능성이다. 모세는 계명에의 순종을 원칙으로 삼는 우리 속의 원리로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준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인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은 백성들이란 주님께의 순종을 거절하고 자아 쪽으로 기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애착들을 뜻한다. 이러한 생각이나 애착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씩 죽어가야 한다. 모세까지도 네보산 꼭대

기에서 거룩한 땅을 보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신명기 34:1-4). 그 이유는 성경 글자대로 모세는 한때지만 백성을 다루는데 있어 주님 대신 자신을 칭찬하여 그 땅으로의 입장이 거절되어진 것을 민수기 20장 1-13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영적 측면으로 살펴보자. 우리 속의 모세란 계명에 순종하되 의무감으로 인한 순종을 표현한다. 의무적 측면에서 순종의 상태는 가끔 자기 칭찬에 속하는 것들을 함유할 때가 많다. 거룩한 땅은 천국적인 인격을 상징하며, 천국적인 인격 속에는 순수한 것만 내포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아도취적인 교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습관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카데스에 도착했던 때부터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룩한 땅의 경계인 세렛 개울을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거룩한 땅에 입장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삼십팔 년이라는 긴 햇수 때문에 순종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약속된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 도저히 도달될 것 같지 않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심정 속을 보실 수 있고 누가 영적 성장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순간을 가졌는지 아실 수 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첫 째,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되 우리가 악에 저항할 의지가 있을 때만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은 허용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시험을 정복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이들로부터는 시험을 유보해 두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면 시험을 아예 원하지 않는 쪽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 진보, 천국적인 인격의 달성 또는 더 나아가 저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감 등을 위한 모든 것은 시험을 거치고 극복해 가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강건함은 날마다 조금씩 발달되기 위해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인생 조건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받아야 할 모든 테스트를 영적 진보를 위한 기회로 여긴다면 더 빠르고 가볍게 진보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광야에서 터트리는 불평불만이 말씀에 기록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불만족이나 불순종들이 콘크리트 바닥같이 단단한 형태로 들어붙어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섭리는 우리와 함께 하는 그분의 인내를 보고 알도록 배려하시고 계심을 명심하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시나이 산을 떠난 뒤 그들이 도착한 거룩한 땅 경계선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백성들은 누구를 파견했는가?
- 3)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4) 그들은 그 땅에 관해 어떤 보고를 했는가?
- 5) 열 스파이들의 결론적 충고는 무엇인가?
- 6) 어떤 두 스파이가 주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상기시켰는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한 충고에 따른 벌은 무엇인가?
- 9) 누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는가?
- 10) 나쁜 충고를 준 열 스파이에게 무슨 변이 일어났는가?
- 11) 얼마나 더 오랫동안 백성들은 광야를 배회해야 했는가?
- 12) 거룩한 땅은 무엇을 그리는가?
- 13) 스파이들의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카데스 2) 열 두 스파이 3) 포도, 석류, 무화과 4) 젓과 꿀이 흐르는 땅
- 5) 그곳 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해볼 수 없다. 6) 갈렙, 여호수아 7) 열 스파이의 충고 8) 40년간의 배회 생활 9) 20세 이하인 자, 갈렙, 여호수아
- 10) 재앙이 덮쳐 죽었다 11) 대략 38년 12) 천국 또는 거듭나는 삶 13) 천국으로 가는 삶의 길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우리 속의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스토리로 다루기보다는 토의 형식의 진행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우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담당해왔던 역할을 상기하면서 성경 스토리를 간략히 재고한다. 이에 따른 전체적 윤곽은 성경 공부의 중요한 기본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장

1장: 1.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3.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 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4.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헷족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5.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7. 용기백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8.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9.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전군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 간다.’” 12.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과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 일렀다. 13.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한 말, 곧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정착지로 주신다던 말을 기억하여라. 14.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군인들은 부대를 편성, 앞서 건너 가 동족들과 함께 싸워라. 15. 너희 동족이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 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너희의 차지가 된 땅, 곧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땅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16.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17.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18. 장군의 지시를 거스르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교리 요약

- * 주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첫 번째 순위에 두어서는 안 됨도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 * 재구성과 증생은 다르다.
- * 최선의 용기란 시험 중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

상응 연구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계곡 = 삶의 자연적 평면

해설

겉먹은 열 명의 스파이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대가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해야 했다. 광야 생활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중 가장 긴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2장까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두 가지 요약된 이야기는 민수기 33장과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소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므로 지도에서 광야 생활의 경로를 추적해 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우리는 다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썸(zin)광야라 불리는 지역, 아쿠아바만과 사해 바다 사이에 위치한 아라바 또는 세일 산 등의 지역을 거쳐 갔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경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코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아론의 가지에 꽃이 핀 사건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를 공부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는 불뱀의 이야기도 있는데, 차후 공부할 내용에서 당시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에 대한 설명에 필요하므로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의 전투를 치르며 그들에게 덤벼든 적들을 격퇴했다. 여호수아는 전투 중의 지도자였다. 그는 맨 처음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아말렉 족과의 전투에서부터 뽑혀진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 후 그는 열두 명의 스파이 중 하나로 거룩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 와 열 명의 스파이들의 의견과는 달리 거룩한 땅을 들어가는 데는 난관이 있겠지만 주님이 도우실 것이니 용감하게 쳐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에 의해 뽑혀진 모든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보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린다. 모세는 우리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되 순종으로 인한 보상과 불순종으로 인한 처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법을 표현한다. 이러한 순종의 형태는 우리의 바깥쪽 삶을 질서 있게 해주며 거룩한 땅의 경계선까지 인도 해주나 경계선을 넘게 할 수는 없다.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너는 죽기 전 거룩한 땅을 볼 기회는 가질 수 있지만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한 구절의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다. 민수기 20장 1-13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에서 모세로 표현되는 순종의 형태에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과시와 자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북은 이는 재구성의 첫 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마음이 악에서 선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주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으려 함을 묘사한다고 지적한다 (천국의 신비 2946항). 스웨덴북이 말하는 광야는 나중에야 비로소 재구성되는 이들과 아예 재구성되어질 수 없는 이들 모두를 서술한다 (천국의 신비 2708-5항). 성경의 글자대로 보면,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죽었고 거룩한 땅에 결코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순진함과 신뢰심의 상징인 어린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명령을 잘 따랐다. 그들은 선과 진리의 원만한 선택에 의해 거듭나는 지점까지 진보해 가는 이들을 표현하며, 그들만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요르단 강을 건넌이란 재구성하는 상태의 끝남과 더불어 거듭남의 시작을 표현한다. 재구성과 거듭남에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재구성은 외적인 삶, 즉 일상생활을 질서 안으로 놓는 것이나 거듭남은 자신의 의지로 일상생활을 질서 안에 놓는 것이다.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라는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심정 안에 있는 악과 거짓에 정면으로 대적해서 싸울 태세가 완료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다. 악 그리고 거짓과 싸울 준비가 완료되었음은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주님께

서 주신 진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때를 말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시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것이 진리임을 확인하고 체험으로 입증하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우리는 우리 속의 거룩한 땅이 적들로 가득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그 적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대결해 보지 않은 우리 속의 악들이므로 가장 극한 시험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임도 알고 있다. 우리는 악들에 맞서 더 열심을 내어 전진해 가야 한다. 요르단 강에 진을 친 우리의 영혼은 전체적으로 바뀌진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 바뀌지 않았던 상태와 바뀐 뒤의 상태를 성경의 두 부분을 읽으면서 대조해 보자. 본문 16-1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는 백성의 말과 민수기 14장 6-10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이해될 것이다.

주님이 내리신 여호수아의 임무는 두 겹으로 되어있다. 그 임무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를 위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첫 부분은 세 번씩 반복되어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강한 인상을 주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길 바라시는 주님의 배려 때문이다. 그 첫 부분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힘과 용기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투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곳도 갈 수 없음을 길고 쓰라린 광야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우리가 자신 속의 악과 거짓을 인식하기를 거절할 때 우리의 인격은 약해지며 이 세상의 선을 위한 우리의 영향력도 줄기 마련이다. 우리는 어느 곳에도 자신을 도달하게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 임무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 나는 때 단계마다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자신 안의 악을 보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태어난 나를 어떻게 바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향해 닫아 버리게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실 기회를 허사로 만들게 된다. 자신 속의 악들을 본 후 어느 하나라도 해치우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고 포기 한다는 것은 소심하며 불합리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속의 악들을 인식하고 하나씩 처리해 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있음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바라던 목적을 향해 꾸준히 진보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임무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즉,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하는

것이다.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일 것이라고 짐작하여 실수하는 것이나 자신이 지은 죄의 원인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오염된 인간적 본능으로부터 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님의 뜻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피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진정한 신앙으로 여기는 것도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이다. 왼쪽으로 기우는 것이란 지성 주의의 측면에서 있는 실수이다. 즉, 말씀을 찾되 그 안에 든 신성한 지혜를 보며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총명과 인간의 이성으로 찾은 것으로 착각하는 실수이다. 주님은 두 번째 임무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 즉 인간에 의해 오역되거나 잘못 해석되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파제요 방어벽이며 우리의 발길을 밝히는 등불이며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다. 또한 말씀은 우리 삶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물이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진리의 원천이다. 우리가 그 임무에 순종하고 더욱 전진하며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영혼에는 언제나 성공만이 있게 된다.

제 12-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을 읽어야 한다. 오래 전 롯이 비옥한 요르단 평지를 보고 그곳을 거주지로 선택했을 때와 같이, 지금 2½지파도 거룩한 땅보다 그곳을 거주지로 더 선호하고 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올바른 것을 알기 원하며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믿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즐거움은 바깥쪽의 활동, 즉 눈에 보이는 “선한 사업”인 자연적인 선을 이루는 수준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치고 마는 상태가 바로 롯의 경우이다. 그러나 본문의 르우벤, 가드, 므나쎄와 반쪽 지파는 롯과는 조금 다르다. 군인들의 처자는 요르단 평지에 남겨 두었지만, 그들은 다른 지파와 합세하여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데 참전하고 나중에 그곳으로 되돌아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의 악을 보고 싸우고 극복함이 순수한 즐거움을 만끽하기 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모든 삶과 내적 삶 그리고 외적 삶이 모두 질서 안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여호수아서 22장을 읽어 보면, 2½지파의 마지막 정착과 주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상기해 두고자 쌓은 제단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질문 정리

- 1) 열두 명의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 왔는가?
- 2) 그들이 그곳에 관해 보고한 것 중 좋은 것은 무엇인가?
- 3)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 나쁜 것은 무엇인가?
- 4) 보고 결과를 토대로 열 명의 스파이들은 무엇을 충고했는가?
- 5) 나머지 두 스파이는 무엇을 충고했는가?
- 6) 주님을 신뢰한 두 스파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9)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10) 그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야영지는 어디였는가?
- 11) 모세가 죽은 후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 12) 여러분은 전 과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것 중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 13)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인가?
- 14) 어떤 지파가 요르단 강 동쪽에 터전을 잡았는가?
- 15) 그 지파들이 정착하기 전 먼저 처리한 일은 무엇인가?
-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모세와 여호수아는 상응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18) 재구성과 거듭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질문의 답

- 1) 열매들 2)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답다.
- 3) 그 땅에는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산다.
- 4)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5)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 6) 갈렙, 여호수아 7) 열 명의 스파이의 충고
- 8)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9) 40여년 10) 모압 평야

- 11) 여호수아 12) 좋은 충고를 한 스파이, 또는 군대 사령관
- 1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14) 르우벤, 가드, 므나쎄 반쪽 지파
- 15) 다른 지파가 정복하는 것을 먼저 도왔다. 16) 거듭남의 시작
- 17) 모세: 법에 순종, 여호수아: 진리를 가지고 싸워나감
- 18) 재구성: 일상생활을 질서 있게 놓는 것, 거듭남: 주님에게서 새 의지를 얻는 것

13

아이성의 포획

머리말

먼저 2-6장을 읽고 간략히 재고한 후 본과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장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실이다. 이 승리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자신이 우월하여 획득된 승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신 것이기도 하다. 예리고성을 점령하되 폐허가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필두로 본과를 시작해 본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7장, 8장

7장: 1.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라의 중손이자 잡디의 손자이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

다. 2. 여호수아는 예리고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 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올라 가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 돌아 와 보고하였다. “전군이 다 올라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삼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이다. 군대를 총출동시켜 고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 그리하여 군대 약 삼천 명이 그리로 쳐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5. 그들은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또 거기에서 비탈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오면서 삼십 육 명이나 죽었다.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6.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7.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 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까. 8.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등을 보인 이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이름을 이을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10. 야훼께서 야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1.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행낭에 숨겨 두었다. 12.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 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14.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래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에 속한 가문의 장정이 차례로 나오너라. 15.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

야훼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16.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17. 유다 지파를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제라 갈래가 잡혔고, 제라 갈래를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잡디 가문이 잡혔다. 18. 다시 여호수아가 잡디 가문의 장정을 차례로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요 잡디의 손자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잡혔다.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위엄을 알아 모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든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정녕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21.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시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 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 두었습니다.”

19.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의 천막으로 달려 가 보니, 과연 외투가 묻혀 있고 그 밑에 은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23. 그들은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야훼 앞에 놓았다. 24.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 갔다. 그의 아들딸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나섰다. 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찌다가 네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야훼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26. 그들이 그 위에 쌓아 올린 큰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그제야 야훼의 극렬한 분노가 걷혔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에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이다.

8장: 1.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전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네 손에 붙인다. 2. 네가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전리품과 가축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3. 여호수아

는 전군에게 아이로 쳐 올라 갈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을 타 보내면서 4. 지시하였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 뒤로 돌아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대기하여라. 5.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으로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쫓기는 체하겠다.
 6.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 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피어내거든, 7.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8.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야훼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9.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편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밤을 지내고 10.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쳐
 올라갔다. 11. 그를 쫓는 부대원 전원이 올라 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12. 그는 오천 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13. 이렇게 전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는 기습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골짜기에서 지냈다.
 14. 아이 왕은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편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자기를 치려고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다. 15.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군과 함께 쫓기는 체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16. 성에 있던 전 부대가 그들을 따라 잡으라고 고향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17. 아이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저희의 성을 비워 두고 성문을 열어 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18.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뺐어라. 이제 내가 저
 성을 네 손에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성 쪽으로 내뺐었다. 19. 그가 팔을
 내뺐자마자 복병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 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체하던 부대가 돌아 서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21.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성이 이미 복병에게 점령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22.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짓쳐 나왔다. 아이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23.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 왔고 24.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 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25. 그 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합해서 모두 만 이천이나 되었다. 26.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전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뺐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27. 그 성에 있던 기축과 전리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28.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 질러 영원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곳은 돌무더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29. 그는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30. 그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31. 그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야훼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잡아 바쳤다. 32.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 둔 모세의 법사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33.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장교들과 법관들 그리고 외국인 본토인 구별없이 모두가 야훼의 계약케를 멘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법케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기 위하여 야훼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반은 그리짐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34. 그 뒤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된 대로 낭독하였다. 35.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끼어 사는 실향민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 마디도 빠지 않고 낭독하였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이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도록 경고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 *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 우리는 진리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우리 속의 동기들을 점검해야 한다.

상응 연구

성벽 있는 성 = 거짓이나 진리로 확립된 상태
 베델 = 천적인 지식들
 아이 = 자연적인 지식들
 제비를 던짐 = 주님의 진리가 결정하도록 허용함

해설

앞서 거룩한 땅의 정복이란 천국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속의 악과 거짓들을 색출해내어 정복하는 모습을 그린다고 설명했다. 여호수아서 1장 6-9절을 보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 임무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용기 있게 적을 공격할 것과 모세의 법을 늘 묵상하라는 것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이 필수조건이다. 거룩한 땅 정복의 도입부에 있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르단 강을 건너는데 계명을 담은 궤가 앞장선 것과 요르단강을 기적으로 가르신 일 등은 그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게 했다. 요르단강에서 취한 열 두 개의 돌은 모든 입문적인 진리들을 표현한다. 길갈에서 강을 건너 온 일을 그 돌로 기념했던 것과 이집트의 속박을 벗어남을 기념하는 과월절을 축하한 일 모두는 그들 마음에 주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 그 다음 기적에 의해 예리고성이 탈환된다. 즉, 그들 앞에 다시

퀘를 서게 하셨고 그 성의 부정한 것들을 누구도 착복하지 않도록 명령되어졌다. 주님께 헌납되어질 금, 은, 옷 제품 그리고 철제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파괴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간이 될 만큼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진리를 모독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려는 자아만족에서 비롯된 사념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영적인 삶의 진보는 자신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여서 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마치 우리 속의 예리고성이 정복되듯이 이뤄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덕 위에 있는 아이성은 예리고성을 정복한 뒤 정복해야 할 두 번째 적의 진영이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1453항에서 아브라함이 거룩한 땅을 통과하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멈추었던 구절과 관련하여 아이란 세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설명 제 655-8항에서 아이란 지역의 부정적 의미는 “악을 확증함”이라고 설명하며 그 근거로 예레미야 49장 3-4절을 첨가하고 있다. 아이성 공격의 패배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경향성 중 하나를 지적하고 있다. 즉,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안심하는 경향을 말한다. 스웨덴본은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의 유별난 악들을 색출하며 색출하기 위한 지식과 악들을 극복할 힘을 주님께에서 구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한다. 이것은 주님이 아이에서 이야기로 말씀해주는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은밀히 귀여워하는 악들이 있다. 우리가 악들을 흠모하는 모습은 본문에서 아간이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 중에서 눈독들인 것을 슬쩍 취하여 그의 천막 중앙 밑바닥에 파묻어 둔 이야기로 그려진다. 이런 모습은 스스로 자신 속에 든 악을 확증하는 것으로 아이성은 정복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의 아이가 악을 확증함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아이성의 부정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을 위해 착복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 속에 든 느낌이나 생각 중 어느 하나라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어긋나면 즉시 버려져야 함을 뜻한다. “시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이란 ‘나같이 선하면...’하고

자신을 은근히 추켜세우는 모습, 즉 “주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 근처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교회에 참석이라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 최소한 나는 선한 사람 측에 속하는 것이야”라며 자문자답하는 태도이다. 아간이 취한 또 하나는 은과 금인데, 이는 위의 자문자답에서 자신이 가진 조그마한 선함마저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자기 안의 진리나 선한 애착들을 뜻한다. 이런 착각으로 시험에 빠지고 곤경에서 허덕일 때 우리는 자칫 그 탓을 자신이 아닌 주위 사람에게 돌린다. 이는 본문 7절의 여호수아가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라고 울부짖는 모습과 같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치워 버려라.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라고 분명히 이르신다. 범죄자를 색출하는 방법은 제비뽑기로 매우 이색적이다. 이는 누가 범인인지를 주님의 손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때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해야지 타인이나 자신이 상상한 지혜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됨을 말해준다. 이 방식은 질서 있고 철저하게 이뤄지는 자기 검증이다. 우선 자기 속을 넓은 측면에서부터 점차 좁혀 들어가 자신이 은밀히 흠모한 특별난 악을 색출할 때까지 작업해 나가는 것이다. 스웨덴볼은 성찬에 참석하기 전 자신을 검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악은 고백되어야 하며 주님의 진리와 선의 판단에 종속되어야 한다. 고백된 악과 거짓을 모조리 거절해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사름으로 처리되는 구절에 담긴 내용이다. 26절의 “그들이 그 위에 쌓아 올린 큰 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라는 구절은 시험은 늘 말씀 속의 진리로 끝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시험이 끝난 후에도 악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늘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아간이 처형당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을 공략하되 아주 다른 심령상태로, 즉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매우 조심스런 작전계획으로 전개된다.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있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비밀스런 힘이다. 열왕기하 6장 8-17절을 읽어보면, 주님이 주신 비밀스런 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엘리사의 시종이 눈이 열려 불말을 탄 기마 부대와 불 병거부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본 것과 같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척하는 모습이란 우리 스스로의 무력함을 겸손히 인식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적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광경은 우리 속의 악의 참된 모습을 확실히 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악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악을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거짓 추론들로부터 악을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좋은 의미에서의 아이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므로 그 안에는 선과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설사 반대적 측면일지라도 지식 자체만을 뽑아내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리품을 차지해도 좋다고 허용된다. 그러나 왕과 백성, 즉 주도하는 원리와 악을 수행하는 것들은 전멸시키도록 명령되었다.

8장의 마지막 문단은 아이에서의 승리와 연결되어 흥미를 더해준다.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집산 사이의 계곡에서 엄숙하게 모세의 법을 낭독하여 모세의 명령을 성취시켰다. 이에 대한 글자대로의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려면 신명기 27장 11-13절을 읽어야 한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 성을 정복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울 것이라고 하셨는가?
- 3) 이스라엘은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들에 관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 받았는가?
- 4) 그들이 공격한 두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성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 6) 공격해 들어간 군대가 도망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그들은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했는가?
- 9) 범죄자는 누구였는가?
- 10) 그는 무엇을 착복했는가?

- 11) 어떤 별이 그에게 내려졌는가?
- 12)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의 공격에 얼마의 군대를 사용했는가?
- 13) 그는 군대의 일부를 어떻게 배치했는가?
- 14) 아이성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15) 그들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는가?
- 16) 아간의 죄는 무엇을 그리는가?
- 17) 아간의 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18) 군인들을 매복시킴이란 어떤 의미인가?

질문의 답

- 1) 예리고 2)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 3) 자신을 위해 착복하지 말라.
- 4) 아이 5) 작은 군대를 파견했다. 6) 얼굴을 땅에 대고 옷을 찢으며 하느님께 실패한 탓을 돌렸다.
- 7)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8) 제비뽑기 9) 아간 10) 외투, 금, 은 11) 돌로 치고 불을 질렀다. 12) 전 군대를 동원했다. 13) 일부 군대를 매복시킴 14) 백성들이 가져도 좋다. 15) 제단을 쌓고 법을 새기고 읽었다. 16) 자신의 과오 중 어떤 것은 괜찮다는 느낌 17) 곤경에 처할 때 하느님이나 타인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말라 18)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비축해둔 힘을 사용함

14

판관 기드온

머리말

우선 판관 시대의 요지인 판관기 17장 6절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자. 주님으로부터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과 자신에게서 찾아보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열조시대(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판관시대 그리고 이후에 오는 제왕 시대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판관들이란 지방적이며 일시적인 지도자들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6, 7장

6장: 1.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칠 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2.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 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 와
4.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를 망쳐 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았다. 5.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천막을 떠먼 채 메뚜기떼처럼 몰려 왔다. 사람이고 낙타고 이루 다 셀 수 없이 몰려들어 와 온 땅을 망쳐 버렸다. 6. 이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야훼께 울부짖었다. 7.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야훼께 부르짖자, 8. 야훼께서는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9.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야훼요 아모리인들의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1. 야훼의 천사가 아비에셀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는데, 12.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3.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14.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5.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나쎄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수리라.” 17.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 주십시오. 18. 제가 다녀 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가 돌아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19.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20.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21. 야훼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 버렸다. 야훼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22.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뵈었군요!” 23.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24.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셀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25.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일곱 살 된 살진 소를 끌고, 네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라. 26.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느님 야훼께 바칠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라. 그리고 그 살진 소를 잡고 찍어 낸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를 드려라.” 27. 기드온은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치웠다. 28.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이없게도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선 제단 위에는 살진 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었다. 29.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서로 부산을 떨며 조사하고 캐어 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아냈다. 30.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투었다.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죽여 버려야겠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 냈는데 어찌 그냥 뒀겠소?” 31. 요아스는 둘러 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역성하겠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알을 역성하는 사람은 해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리 아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오?” 32. 그 날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얻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33. 마침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강을 건너 이즈르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34.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빨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일족에게 따라 나서라고 하였다. 35. 그는 또 전령들을 므나쎄 온 지파에 보내어 므나쎄 지파도 따라 나서라고 불러내었다. 아셀 지파와 즈불룬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 와서 기드온과 합세하였다. 36.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37.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펴 놓습니다. 만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려는 줄로 알겠습니다.” 38. 정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짜 보니 한 대접 가득 물이 나왔다. 39. 기드온은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 뭉치로 꼭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말라 있고 사방의 땅바닥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4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땅바닥은 온통 이슬로 젖어 있었다.

7장: 1.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온 군대는 일찍 일어나 엔하룻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편으로 모레 언덕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2.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으스스할 테니 말이다. 3. 그러니 이제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자는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기드온이 지체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니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추리겠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 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 못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할 수 없다.” 5.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이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한쪽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켜는 자들은 다른 편에 세워라.” 6. 그러자 혀로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켰다. 7.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이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라.” 8.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지와 빨나팔을 거두어 들고는 삼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군은 그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9.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적의 진지로 내려가거라. 내가 적진을 네 손에 붙였다. 10. 그러나 만일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먼저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11. 그리고 그들이 지껄이는 것을 들어 보아라. 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진으로 쳐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접근해 가보니,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떼처럼 거기 평지를 덮고 있었고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 13. 기드온이 다다라 보니, 마침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천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뒤엎자 천막은 쓰러지고 말았네.” 14. 친구가 대꾸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15. 이렇게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 와 일렀다. “일어나거라. 야훼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빨나팔 하나와 횃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17.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18.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19. 기드온이 자기 부대 일백 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밤중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었다. 20.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21.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22. 삼백 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 대고 있는 동안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찔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레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벳시타에 이르렀고 더러는 타빳 건너편 아벨므홀라 냇가에 이르렀다. 23.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나쎄 지파에서 불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24.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악지대에 전갈을 보냈다. “내려 와 미디안을 막아라.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이 소집령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몰려 나와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25. 그리고 미디안의 두 추장 오렘과 즈엡을 사로잡았다. 오렘은 오렘 바위에서 죽이고 즈엡은 즈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오렘과 즈엡의 머리는 요르단강을 건너 기드온에게 전해졌다.

교리 요점

- * 스웨덴북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상태는 사실 영적으로 아주 높은 상태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 * 겸손과 용기는 악과 싸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상응 연구

판관들 = 특수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특수한 진리들

해설

거룩한 땅을 제비뽑아서 각 지파가 할당받는 모습은 안정된 영적 삶 또는 안정된 영적 사회 안에서 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성과 타입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족들이 가진 새로운 번영에서 주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잊어 버렸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었던 때와 주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수행하셨던 기적들을 목격했던 연장자들이 살아있었던 때까지는 주님 앞에 신실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죽고 난 뒤 그 땅의 악한 백성들과 교체하며 결혼 하면서 심지어는 우상들을 예배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영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우리의 첫 노력에는 뭔가를 이루겠다는 열정이 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의 첫 시기를 이끄는 진리가 바로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싸우는 진리이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영적 싸움의 첫 시기에는 주님께서 시험 속에서 우리를 도와 주셨음이 체험으로 살아 있다. 이렇게 싸우는 진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일을 해 가다보면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성취와 성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성취를 추구하는 삶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우리는 자신이 올바른 삶의 길로 들어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무척 경계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간과해버린다. 즉, 과거에

반드시 고쳐야했던 나쁜 습관이 우리의 노력과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새로운 진리에 복종 하고 있을 뿐임을 잊어버린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가 올바른 삶을 다 이룩한 듯 자아도취가 되어서 안전과 평화만이 있을 것이라는 과신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속의 악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순간이 바로 판관기의 시대이다. 17장 6절의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는 구절은 이 시대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기드온의 이야기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용기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적은 미디안족이었다. 스웨덴붉은 좋은 의미에서 미디안족은 자신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로 훈육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선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반면, 나쁜 면에서의 미디안족이란 “삶이 선하지 못한 고로 진리 아닌 진리 속에 있는 이들”이라고 말한다. 나쁜 측면에서 미디안 족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된 신앙이란 삶의 굴곡과 회복의 변화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신앙이 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도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질 때에만 그들의 신앙이 의미가 있을 뿐 대수롭지 않은 일들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들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여 그들의 신앙이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없는 믿음, 즉 사상누각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스웨덴붉은 설명한다.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 올 때 그는 밀 이삭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다. 기드온은 므나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지파는 진정한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웃 사랑과 바깥쪽 삶에서의 신앙도 표현한다. 기드온은 그 지파 속에서 자신이 가장 적은 자임을 인정했고 자기의 순수한 선을 보존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주님에 의해 발견된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선일지라도 그것이 순수하면 주님에 의해 사용되어져 미디안족으로 상징되는 악한 삶을 파괴시키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6장 16절에서 미디안족 전체를 “한사람 해치우듯” 하실 수 있게 해 주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후에 그의 첫 행동은 25절의 “네 아비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라”였다. 바알은 바빌론과 같이 자아 사랑에 집착하여 있게 되는 지배욕을 뜻한다. 두 번째 행동은 26절의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느님 야훼께 바칠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라.”였다. 이 후에 그는 더 많은 기적을 받게 되는데,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은 말라있는” 것과 “양털만 말라있고 사방의 땅바닥은 이슬로 젖게 해주신” 기적을 받았다. 기적의 모습은 선해지려고 하는 순수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주님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미디안족이라는 악에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때 필요한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미약함을 인정하며 그것을 위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삶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마음속에 든 바알제단임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든 바알제단이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과 평가에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주된 원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심을 얻고자 하는 것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바알제단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도전하는 세상적인 추론을 접하게 될 때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의 바알제단을 보고 허물어 버릴 때 주님은 우리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주위 사람의 조롱을 자신의 신앙과 용기를 테스트해 보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한다면 싸움의 절반은 승리로 끝난 셈이다. 게다가 냉소에 대적하기 위해 말씀 속의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 승리의 길이 훤히 열린다.

기드온의 승리가 가르치는 교훈은 시험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승리에 따른 세부작전은 주님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각종 수단을 표현한다. 기드온은 그의 지파뿐만 아니라 최북단에 거주하는 지파들로부터도 군대를 소집했다. 최북단의 세 지파란 거짓에 대하여 싸울 진리를 표현한다. 그 후 무서워 떠는 자들은 색출되어 돌려보내졌다. 우리는 주님의 전투에 참전할 때 전투 결과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버려야 한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은 자들만이 승리를 위해 뺨혀졌다는 것이 암시하는 바는 우리 안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시기적절한 진리를 빠르게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재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드온이 군대를 셋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속의 심정, 지성 그리고 행동이라는 세 평면에서의 공격 작전을 그린다. 이런 적들에 대한 공격은 갑작스럽게 전 측면에서 통상적인 무기가 아닌 것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팔이란 말씀을 통하여 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표현한다. 단지 속에 든 횃불이란 말씀을 담은 글자 내에 감춰진 진리 또는 평상시 겉보기에는 희미한 듯 느껴지는 성경구절이 갑작스럽게 빛을 발할 때의 진리를 말한다.

결국 미디안족의 진영은 21절에서와 같이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고”,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찢러죽게” 된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어린이같이 주님과 말씀을 믿는 단순한 신앙의 허점을 건드리며 깔보는 이들에 대한 영적 공격은 천사들이 함께하는 영감이 있는 성서의 간단한 인용문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들의 근본이 되는 거짓은 진정한 진리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언제나 예측되지 않는다. 신앙을 깔보는 이들은 종종 신앙인들이 무시할 것이라고 추측되는 성경의 구절을 질문하여 그들을 공격하지만 주님의 진리의 빛은 언제나 앞만을 훤히 비추신다. 주님의 권능은 신앙에 대해서 불신하고 신앙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성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구절들도 똑같이 임하셔서 그곳에도 명확한 진리의 빛을 발해 주신다. 그로 인해 성경을 오용하려 했던 이들은 자기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하면 할수록 자기모순에 빠져 결국에는 모든 힘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본보기는 주님 자신이 하신 일이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세 번이나 시험자에게 성서로부터의 간단한 인용문으로 답하셨고 거둬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참패시키셨다. 이에 대한 예증으로 마태복음 22장 23-46절을 읽어 보자.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정리하여 기억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기드온의 횃불과 단지 그리고 빨 나팔로 무장할 수 있다. 다음의 구절과 본문의 의미를 연결하여 정리해 보기 바란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말들 하면서...

시편 11편 2절;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시위에 살을 먹여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쏘려하지 않느냐?
 이사야 55편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질문 정리

- 1) 본문은 성경의 무슨 책인가?
- 2) 판관이란 누구인가?
- 3) 지도자적 측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판관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판관시대 때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5) 본문에서의 판관은 누구인가?
- 6)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
- 7)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기드온이 주님께 부름 받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에게 어떤 확증을 요구했는가?
- 10) 그는 어떤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했는가?
- 11) 주님은 왜 군대의 수를 축소하셨는가?
- 12) 처음 돌려보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 13)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었는가?
- 14) 결국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 15) 그들은 무기 대신 무엇을 가졌는가?
- 16) 공격 작전은 어떠했는가?
- 17) 공격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 18) 판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기드온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관관기(사사기) 2) 일시적이며 지방적인 지도자들 3) 관관들은 전 백성을 이끄는 큰 지도자는 아니었다. 4) 하느님을 잊어버린 것 5) 기드온 6) 므나쎄 7) 미디안, 아말렉 8) 스스로 겸손했다 9) 양털뭉치와 이슬 10) 아셀, 즈불룬, 납달리, 므나쎄
- 11) 하느님이 승리를 안겨 주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 12) 두려움이 있었다. 13) 물을 마시는 태도로 14) 삼백 명 15) 횃불, 단지, 나팔 16) 적을 포진하고, 단지를 깨고 고함을 지름 17) 혼란에 빠지게 해서 승리함
- 18) 특수한 곤경에 빠질 때 필요한 특수적인 진리들
- 19) 신앙을 조롱하는 논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께 올바른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머리말

본과를 통해 주님에 대한 정규적인 예배를 갖지 않고도 스스로를 규율하며 인도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엘리와 아들들의 죄를 보면, 예배 자체가 이기심과 자기 충족 그리고 불순종으로 연속되어 타락해감을 볼 수 있다.

성서본문: 사무엘상 3장

3장: 1.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 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 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2.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고 3.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4.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하고 대답하면서 5.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 와 자리에 누웠는데 6.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하고 대답하였다. 7. 야훼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8.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9. 사무엘에
 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일러 주었다. 사무엘은 돌아 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10.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
 아!”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
 하자 1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12. 그 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
 리라. 13. 너에게 알려 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벌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15.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16.
 그러는데 엘리가 “애, 사무엘아!”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하고 대답하자. 17.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 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 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느님께서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 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하고 다그쳤다. 18.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 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20.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21.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듭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 곳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교리 요점

- * “아껴두심 혹은 나머지, remains”에 관한 교리: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해 놓으신 일들을 말한다.
- * 말씀의 글자를 담고 있는 기억적인 지식은 우리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 * 룯기서는 내적인 뜻은 없다.

상응 연구

듣는 것 = 순종하는 것
머리털 = 가장 바깥쪽의 삶
주님을 표현하는 머리털 = 말씀의 글자

해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교회 역사의 면에서의 새로운 국면과 거듭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개인의 역사에서의 새 국면을 보게 된다. 판관기에서의 각종 싸움은 거룩한 땅에 안식처를 발견한 이들, 즉 신성한 법도에 따라 삶을 꾸려 보려고 노력하며 그 법을 삶에 적용하려고 마음을 굳힌 이들을 맹습해 오는 각종 시험들을 그려준다. 시험들은 우리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에 맹습하며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최초로 맹습하는 시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산출된다. 이 후 무의식적인 행동이 반복을 거쳐 자라게 되면, 우리가 악(결점)에 복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판관기 시대의 백성들은 더욱 나빠졌는데, 영적 또는

내적 진리를 표현하는 베냐민 지파까지도 전복되어 거의 파괴된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가 작고 미묘한 시험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후퇴하여 주님과 우리를 연결케 해주는 내적 삶의 의미를 강탈당해 버릴 때가 많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잠깐 동안이더라도 단순한 신뢰와 순종심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신뢰심과 순종심이 영적 삶의 새로운 정상으로 이끌도록 자신을 맡겨야 한다.

어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을 읽은 이들에게 기억되며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이 주님이 잠시 맡겨 두신 것으로 차후 그들을 그분의 섬김에 바침으로써 되돌려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2장 21-28절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느님께 바치는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섬김이나 바침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을 통해 이해될 것이다. 어린이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한 신뢰심과 순종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본보기를 어린 사무엘에게서 보아야 한다. 사무엘의 초기 삶과 주님의 초기 삶과는 유사한 모습이 많다. 사무엘상 2장 26절의 “어린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와 누가복음 2장 52절의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그 예다.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아주 놀랄만하여 그 모습이 부각된 어두운 배경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쉬우므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엘리는 아론의 후손으로 대 사제일을 맡고 있었다. 그는 아주 늙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성막에서의 예배를 그의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맡겼다. 그들은 “망나니들”이었고 “주님을 몰라보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규정에 따라 할당된 몫 이상의 제물을 백성들로부터 강탈하거나 제물이 주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 미리 그들의 것을 떼어내는 식으로 제물과 예배를 모독했다. 이에 대한 것은 2장 17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시종을 시켜 저지른 잘못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심하였다. 그들은 야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모독하였던 것이다”라고 기술된다. 그리하여 31절에서 “네 기운, 네 가문의 기운을 꺾으리니 이제 네 집안에 늙은이 하나 남지

못할 날이 오리라”하고 하느님의 사람에 의해 엘리에게 경고 되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심하게 질책했으나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할 만한 영향력은 없었다. 그들은 25절에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그 사이에 서 주시겠지만, 사람이 야훼께 죄를 얻는다면 누가 그 사이에서 빌어 주겠느냐?”는 엘리의 말에 의해 심판된 셈이다. 이것은 사리추구와 자기 찬양을 목적으로 예배가 남용됨에 따라 퇴화되는 예배의 모습이다. 대사제인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부정을 알고도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의 대 사제, 즉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내적인 암시가 있어서 늘 우리의 악을 보고 질책하나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 우리의 내적 측면이 허약하여 더 이상 주님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3장 2절에서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다”는 구절로 표현된다. 앞서 인용한 2장 17절에서는 엘리의 나약한 상태가 상징하는 영적인 나태함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게 됨을 암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이기심이나 위선을 보게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이기심이나 위선을 스스로의 생활에서 바로 잡지 못한 지도자들의 영적 나태함은 그들 스스로의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는 이들도 시험에 들게 한다. 어떤 이가 교회를 오래 다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선 사람들에게 교회와 신앙생활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회의를 갖게 했다면 이는 심각한 죄가 된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는 꾸준히 방심하지 않는 것과 끝없이 갱신되는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나는 구원받았다” 혹은 “세상 모든 이가 주님을 등져도 나는 그렇지 않을거야”라는 생각에 앞서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글자대로 보면, 주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사제직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이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통해 사제직이 내려 왔다. (역대기하 24:1-3 참조) 주님은 엘리의 가문에서 사제직을 거두겠다고 2장 30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일찍이 네 집과 네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 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라고 엄히 말씀하셨다.

예배에 관한 위와 같은 타락 상태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무엘의 섬김 자세와는 대조적이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 사무엘은 한밤중에 세 번이나 부름을 받았다. 밤중이란 당시 교회의 상태를 말한다. 세 번이란 삶의 세 평면에 직접 연결되는 상태, 즉 충만한 상태이다. 3이란 숫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 기억 속에 글자를 담아놓고 거기서 멈추는 일이 흔하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는 첫 번째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하고 묻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주님의 첫 부르심이 우리들의 마음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첫 부름이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억 속에 들어 온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소가 반추하듯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 해보게 된다. 즉, 우리의 합리적 지성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두 번째 부름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부름을 단지 교회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상상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두 번째 부름은 우리 지성에서만 이뤄졌을 뿐 심정 부분, 즉 의지 부분에는 와 닿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 번째 부름이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옛날의 사무엘같이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게 된다.

들음은 순종을 표현한다.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야훼께 아이를 얻기를 구했고 자신의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라 하여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무엘이란 “하느님이 들으셨음”을 뜻하게 된다. 「들음 = 순종」은 사무엘의 전 생애와 그의 일의 요지에 해당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순종과 모세의 순종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모세는 법에 대한 순종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우리의 첫 번째 양상으로서 세상적 명예와 보상을 원하여 있게 되며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떠난 후 긴 여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가나안땅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땅을 확실히 획득하게 되었다. 그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 얻은 성공이라는 만족감에 취해있는 동안 그들 속에 뿌리내려져야 할 가장 근본 되는 마음인 순종심을

있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욱 진보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순종심을 도로 갖다 놓아야만 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거듭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마지막 판관은 누구인가?
- 2) 사무엘 당시의 마지막 대 사제는 누구였는가?
- 3) 사무엘은 왜 성막으로 데려와졌는가?
- 4)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엘리는 왜 아들들의 잘못을 막지 못했는가?
- 7)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주님이 부르시자 그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 9)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기 전 주님은 몇 번 그를 부르셨는가?
- 10) 주님은 엘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었는가?
- 11) 본문 이 후 백성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사무엘을 세 번씩 부르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엘리 3) 어머니가 주님에게 서약했기 때문
- 4) 엘리를 섬겼다 5) 주님께 드릴 예물을 착복했기 때문
- 6) 너무나 나약했다 7) 성막에서 잠자고 있었다.
- 8)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 9) 세 번
- 10) 엘리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잃게 될 것이다. 11) 예언자
- 12) 주님은 세 평면, 즉 생활면과 지적면 그리고 의지면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16

사울의 성급함

머리말

사무엘의 인격과 직무는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의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사무엘과 사울의 직책의 차이점과 사무엘이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 사울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기간까지 실제로 존재 했었던 이유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그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요소인 선택의 자유에 근원하고 있다.

성서본문: 사무엘상 13장

13장: 1...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가 몫소 거느려 므마스라와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방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불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불레셋 사람들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4.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불레셋 수비대를 쳐서 불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와 사울과 합세하였다. 5. 불레셋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삼천,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 동편 므마스에 올라 가 거기에 진을 쳤다. 6. 이스라엘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7. 더러는 요르단 여울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8.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칠 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하나 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9.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다. 10.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가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은 1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다가 불레셋군은 므마스에 집결해 있어 12.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불레셋군이 길갈로 쳐내려 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 주실 터인데,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 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요.” 15.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 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게바로 올라 가 병력을 점검하여 보니 육백 명밖에 되지 않았다.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믹마스에 진을 친 불레셋군과 대진하였다. 17. 불레셋 진영에서는 기습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18.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19.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불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20.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려면 불레셋 사람이 사는 데로 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1.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삼분의 이 세겔이었고 도끼를 버리고 낫을 가는 값은 십분의 일 세겔이었다. 22.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다. 23. 불레셋군의 전초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교리 요점

*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 발전을 위한 기본자세이다.

상응 연구

불레셋 = 의를 행함 없이 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시험

사울 = 글자만으로 이해한 말씀의 진리

사무엘 = 어린 시절 같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무기들 =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이나 시험에 대처하여 우리를 방어해 주는 진리들

농기구 = 인격을 발달시키는데 사용되는 진리들

해설

사무엘상 7장 15-17절을 보면,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가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의 세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음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그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속에 되돌아 온 어린 시절 같은 신뢰심과 순종심을 표현한다고 배웠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 길을 선택하고 노력한 결과로 얻은 불행한 이모저모를 맞본 후 되찾는 단순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험에서 우리나라 오는 신뢰와 순종은 세파를 겪지 않아서 순진하고 단순했던 어린 시절의 신뢰와 순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을 때까지 살았다. 그의 죽음은 사울이 죽기 전이었지만, 그가 죽은 때는 다윗이 이미 온 백성으로부터 명성을 얻은 후였다(사무엘상 25:1). 예언자요 관관으로서의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는 어린 시절 같은 신앙심으로 받은 주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즐거움임을 깨달아 자신의 주관만을 의지하던 독단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요한 순간이 닥칠 때 교훈을 주게 된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기 전 미디안 땅에서 사십 년간을 체류하면서 주님의 부름에 준비되었듯이, 14절의 “야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때, 즉 백성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용납할 때까지 사무엘은 거룩한 땅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말씀 전체를 망라하여 왕이란 진리 또는 거짓이 통치하는 것을 표현한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아무튼 네가 왕이냐?’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의 말씀을 음미해 보면, 성경상의 왕이 진리 또는 거짓의 통치를 표현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세 왕 모두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을 표현하나, 세 왕들 각자는 세 가지 다른 각도 또는 세 가지 다른 이해성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보여 지는 진리를 표현한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다하더라도 이들 모두는 성인의 범주에 속하는 진리들

로서 거듭 나는 단계에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사무엘의 지도 아래에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삶을 실제 꾸리고 있는 이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배운 제 8장 6-7절을 다시 읽어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이 그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자신이 그들에게 거절당했다고 느껴 언짢아했으나 주님은 그에게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타이르셨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무엘의 지배 아래 있는 것만이 이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 속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높은 합리성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수련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의로움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어린 시절에 심어 두셨던 신뢰심을 부르신다. 신뢰심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다. 보다 높은 합리성을 표현하는 다윗은 사울처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울의 약함에서 비롯된 그들의 경험만이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강함을 보도록 해 주었다.

사울이 왕으로 즉각 뽑힐 수 있었던 것은 10장 2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와 같은 용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어깨란 힘에 상응된다. 백성들은 적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 줄 힘센 사람을 찾고 있었다. 왕으로서의 사울은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딱딱하고 고되게 느껴지며 자비로 누그러져 있지 않은 진리의 길을 표현한다. 그 진리는 지혜나 경험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연령층으로 보면 아마 청년일 것이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자신의 방향 설정 혹은 자신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판단을 형성하는 시작에 있기 때문이다. 11장 1절을 보면, 암몬족이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했을 때 사울이 그들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길르앗은 갓지파의 영토로서 요르단강 건너편에 위치한다. 그 땅은 선한 일 또는 피상적으로만 진리를 이해하더라도 외향적 선한 일을 행하려는 마음이 노예화되거나 눈멀게 하는 거짓 논쟁을 인식하여 추방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악은 외적(깍뎂기) 수준이므로 외관에 중심을 두는 우리 속의 진리로도 쉽게 극복될 수 있다.

블레셋족은 본문에 등장하는 공격자들이다. 그들은 위의 적과는 다른 미묘한 특성을 갖춘 우리의 내적 적으로, 우리 속을 항구적으로 따라 붙어 다니는 질긴 시험을 뜻한다. 그 시험이란 올바른 것을 행하려는 노력 없이 아는 것에 만족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블레셋 족이 상징하는 우리의 영적인 적은 단순히 진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칠일 동안 길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이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승리를 보증 받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사울은 성급했고 군사들이 하나둘씩 빠져 도망가서 전투를 지체하는 것은 오히려 군사력만 약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하여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 사울에게 인간적인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은 사울에 대한 동정심이 각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스웨덴봄에 의하면 사울이 상징하는 진리가 바로 청년들이 갖는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영적 성장에서 보면 사울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청년기를 상징한다. 우리는 젊고 혈기왕성할 때 합당한 시기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거나 자신이 가진 신앙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두를 뿐 합당한 길을 찾으려는 여유가 없다. 사울도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옳음을 알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 이유는 고진감래라는 말은 익히 알고 있지만 막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꾸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의 참된 행선지를 찾기도 전에 행동하고 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결국은 하느님의 길과는 어긋나고 만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작은 선택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사무엘은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13절)라고 냉정하게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은 그 행동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한 실패는 자신이 의존해 왔던 원리가 부적당했다는 것과 우리가 선한 의도로 좋은 결과를 바라면 외적인 형세 판단과는 다른 수준의 판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즉 보다 깊게 흐르는 원인을 추적하는 판단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리하여 왕국은 사울로부터 왕권이 거두어져 다른 이에게 주어져야만 순조로울 수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오”(14절) 라고 단호히 예언한다.

외관에 의한 판단은 실패하고 만다. 시편 27편 14절에서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을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 굳게 가지고 용기를 내어라. 야훼를 기다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참을성은 시련을 통해서 발달되는 품성 중 하나이다. 사울은 참을성, 즉 인내력이 없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더딘 재구성을 참지 못하는 것을 흔히 본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행동하는 편을 선호한다. 따라서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만 된다. 사울의 모든 힘은 주님의 도우심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사무엘을 통해 오는 주님의 분부 대신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였을 때 그 동안의 그가 했던 노력은 실패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되고 말았다. 만약 우리가 사실에 입각한 자신의 판단이 막연히 보이는 주님의 섭리보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면, 우리는 사울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에 어긋난 행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체의 악으로 인해 선함의 근본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통로를 막아 버린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선함을 이루는 근원이시자 유일한 힘이 바로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최적이와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서는 이사야 60장 22절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자가 천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하잘 것 없는 자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나 야훼가 제 때에 지체 없이 이루리라”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사울의 업적에 대한 말씀이다. 보잘 것 없는 자였던 사울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많은 실수를 하였으나 그의 업적은 중요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서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통치에 익숙해지도록 했고 왕권의 등장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왕권 건립에 용기를 주었다. 그는 스스로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누리지 못했지만, 최초의 왕으로서의 충분한 업적을 수행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사울로 상징되는 진리의

경우에도 외향적인 적들을 극복해 주고 조금이지만 내향적인 적도 극복해주는 공적을 세운다. 그러나 사울은 성급하여 인내심이 없었고 자기를 너무 내세웠다.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흠은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하여 주님의 명령을 자주 어기는 것이었다. 진리의 껍질만 보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진리가 우리 마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수락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상황이 닥쳐서 진리가 필요할 때 과감히 진리를 들어 쓰는 우리의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데 있어서도 꽤 힘을 발휘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내안에 들어 있는 악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의 뿌리를 찾아내는 과정과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만다. 19-22절의 구절들의 상응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각기 다른 도구들은 각기 다른 진리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전쟁 도구인 무기는 악과 싸우는데 쓰이는 진리들이다. 농기구란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발달시키거나 준비하는데 필요한 진리인데, 이는 우리 마음 밭에 과실과 곡식을 생산하도록 해준다. 블레셋족이란 진리에 대해서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나 그에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자들을 통괄해서 표현한다. 하지만 본문의 구절들에서의 블레셋족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적인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을 암시하고 있다. 20절의 “낮을 버리려면”이라는 말은 지성을 날카롭게 만드는 일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블레셋 인들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것으로 보아 블레셋인들은 지성을 날카롭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곧 지적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질문 정리

- 1)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 2) 그들의 첫 왕으로 주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 3)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 4) 왜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기뻐했습니까?
- 5) 사울이 처음 정복한 적은 어떤 적입니까?
- 6) 그 다음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 7) 이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 8) 무엇이 블레셋을 성나게 만들었습니까?
- 9) 어떤 방식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까?
- 10)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 집결했습니까?
- 11)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 12) 사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 13) 그는 사무엘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 14)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15)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6) 특별히 사울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7) 블레셋족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8) 사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질문의 답

- 1) 전쟁을 이끌 지도자 때문에 2) 사울 3) 제비를 던져서 4) 키가 크고 강건했기 때문에 5) 암몬족 6) 블레셋족 7) 블레셋의 군사가 더 막강했다 8) 요나단의 공격 9) 이스라엘에게 대장장이 직업을 허용치 않음으로 10) 길갈 11) 칠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라 12) 자기 스스로 제물을 바쳤다 13) “군인들은 하나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므로...”
-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15) 신성한 진리가 우리를 통치함
- 16) 진리를 자연적인 수준에서 이해함 17) 믿음만을 강조 18) 성급함, 믿음의 결핍

다윗과 골리앗

머리말

말씀은 세 왕들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네 개의 과에서만 각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왕의 통치에 따라 있게 된 사건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각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세 왕들은 성인이 되어서 거듭나는 세 단계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리가 다뤄지는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울은 눈으로 보이는 진리 또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적용하려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사울)는 성급하고 피상적이며 불완전한 판단으로 되기 마련이다. 사울의 실패는 성급하게 일을 치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판단이 주님의 것과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어겨버리는데서 근원한다. 다윗은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하지만 보다 깊은 면을 보는 것, 즉 동기를 살펴서 자신의 필연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님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그분께 절실히 도움을 간구하는 면을 지닌다. 솔로몬도 다윗과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진리는 우리의 심정 속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실천한 후에 얻어진 것이므로 사울과 다윗이 표현하는 진리와 무게를 달리한다. 세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하고 각 과의 사건을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7장

17장: 1.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뎀에 진을 쳤다. 2. 사울은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3.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4.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 왔다. 그는 갓 출신으로서 장신이었다.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나 나갔으며, 6.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받이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7. 그 창대는 베틀 용두머리만큼 굽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육백 세겔이 넘었다. 방패당면을 앞에 세우고 8.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찌겠다는 말이나? 너희 사울의 즐거어들아, 이 불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 보내라. 9. 만약 그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 그리고 나서 그 불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욱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11.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불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12.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에브랏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팔 형제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노릇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13. 이새의 아들 중에서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세째 삼마였다. 14.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 갔고 15.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16. 그런데 불레셋 장수가 아침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 온 지가 사십 일이나 되었다. 17.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네 형들에게 이 볍은 밀한 말과 빵 열 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18. 이 치즈 열 개는 그 곳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19. 다윗의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군에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불레셋군과 싸우고 있었다. 20.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 준 대로 채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군은 대열을 지어 함성을 올리고 있었다. 21. 이스라엘과 불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 보고 있었다. 22. 다윗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열로 달려 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23.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갓 출신 불레셋 장수가 불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 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24.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25. “자네도 저걸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욱지거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든 징발을 면제해 주신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귀땀해 주는 말을 듣고, 26.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불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의 치욕을 씻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준 다구요? 저 불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욱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27.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리이러하게 해 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 주었다. 28.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 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29. 다윗은 “그저 물어 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30. 형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 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31.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이자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33.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네가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달린해 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34.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았다.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 가면 35. 소인은 한사코 되쫓아 가서 그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 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불레셋의 오랑캐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욱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37. 계속해서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 내신 야훼께서 저 불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 내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내렸다. “그러면 나가거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38.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놋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39.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 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 버렸다. 40.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다섯 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팔매 끈을 가지고 그 불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41. 불레셋 장수도 방패당번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 왔다. 42. 불레셋 장수는 다윗을 건너다보고 불이 붉은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습게 여겨, 43.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나?”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리고 불레셋 장수는 다윗에게 으르메었다. “어서 나오너라. 네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나 다윗은 불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네가 옥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46.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 나야말로 네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불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47.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네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불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다가 49.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그 불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50.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돌 하나로 불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51. 다윗은 달려가서 그 불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불레셋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52.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불레셋군을 추격하여 갓을 지나 에크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이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는 길에는 불레셋군의 시체가 덩굴게 되었다. 53. 이스라엘군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 와서 불레셋 진영을 약탈하였다. 54. 다윗은 그 불레셋 장수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는 자기의 천막에 간직하였

다. 55.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와 대결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사령관 이브넬에게 “아브넬 사령관, 저기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오?”하고 물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하자, 56. 왕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보시오”하고 일렀다.

57.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손에는 블레셋 장수의 목이 들려 있었다. 58. 사울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가?”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교리 요약

- * 진정한 추론은 반드시 영적 원리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 우리의 자만심은 영적 인생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인이다.

상응 연구

다윗 = 영적 추론으로 통치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골리앗 = 우리 속에 깊게 자리 한 자만으로 기울려는 경향성

양 = 순진하고 신뢰하는 마음

개울에서 주운 자갈 = 경험으로 입증된 말씀의 진리

악기들 =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해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블레셋 족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을 가진 이들, 진리를 알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 또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이들을 표현한다. 우리는 성서를 공부하면서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블레셋이 신앙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인들 중에 많으며, 영적인 의미에서의 블레셋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기기 힘들고 박멸하기도 힘든 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할 때, 자신의 욕구를 지지하기 위해 진리를 왜곡 시킬 때 또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타인을 경멸할 때에 블레셋이 우리 위에 항상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성공적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사울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의 군대들 역시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전열에서 뒷걸음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블레셋 군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진리의 곁만 보고 이해하는 외면적 이해성은 스스로의 이해보다 조금 더 명쾌해 보이는 논쟁이 상대방에게서 튀어나오면 갈팡질팡해 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외면적 이해성은 상대방의 그럴듯한 논리에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오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울이 군대의 수와 무기의 수준에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믿었듯이, 외면적인 이해성을 마음의 지도자로 둔 사람은 논쟁과 추론에 있어서 자신의 머리에 있는 지식에만 의존하고 만다. 그래서 사울이 더 나은 무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군을 두려워했듯이, 외면적인 이해성을 마음의 지도자로 둔 사람은 자신 보다 조금이라도 더 명석해 보이는 적수를 만나면 용기와 의욕을 잃고 쭈그러들고 만다.

우리속의 블레셋은 악의 통치 아래에 진리를 두려고 애쓴다. 따라서 우리는 자아 추구나 자아 찬양을 위해서 뭔가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진리를 이용하게 된다. 스웨덴봄은 이를 진리의 왜곡이라고 한다. 우리가 블레셋의 상태, 즉 블레셋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추론이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해주며 확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들을 들추어서 입증하기 보다는 우유부단해져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악과 진리가 서로 어울리게 만든다. 스웨덴봄은 이를 진리의 왜곡 또는 거짓화라고 정의한다. 우리 속의 블레셋, 즉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자만심이 바로 골리앗이 가진 의미이다. 여러분은 한번 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논쟁에 휘말리거나 그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논쟁의 합일점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자기 방식의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본문 16절에서 “블레셋 장수는 아침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 온지가 사십 일이나 되었다”라고 표현된다. 말씀에서 각종 무기들은 좋은 면으로는 우리가 악에 대항하여 자신을 수호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적들을 공격하는 진리들을 표현한다. 반면, 악의 수중에 든 무기들은 악을 지지하며 방어하는데 사용됨으로 거짓화된 진리를 표현한다. 이를 기억하고 본문의 세 장수가 가진 무기들의 상응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앞서 우리는 낫이 바깥쪽 선함을 표현한다고 배웠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했던 과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던 때,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을 혹평할 때, 자신의 실력이나 지식 또는 선한 행위를 타인들이 거론해 주길 바랄 때, 자신의 선택한 과정에 상대방이 의문을 제기할 때 자신의 방법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정당화할 때 또는 ‘당신이 나만큼 안다면 내 방법에 동조할 것인데..’라며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말할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머리에는 낫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낫 오천 세겔이나 나갔으며...”라는 본문 5절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다.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야 말았다(11절).

사울의 무기와 갑옷은 성경을 읽은 대로 아는 진리이다. 이렇게 외적 측면으로만 진리를 이해하고 있을 때 외적으로 더 강한 추론의 공격이 있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만다. 그 이유는 글자대로의 진리에 의존하여 글자의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나 힘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젊은 목자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러한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39절에서 “이런 것을 입어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입증된 무기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새끼를 물어갈 때 사용했던 무기들이다(34절). 이처럼 그는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자신에게 입증된 무기를 사용했다.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돌팔매 끈 그리고 개울가에서 얻은 고른 자갈 다섯 개였다(40절). 그의 막대기란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다. 개울가의 자갈들이란 읽어왔던 말씀들 중 경험으로 인해 얻은 특별한 진리들을 뜻한다. 다섯이란 비록 적기는 하지만 싸우기에는 충분한 상태이다. 돌팔매 끈은 경험에 의해 습득된 이해인데, 그 이해만이 특별한 악에 대한 진리의 방향을 가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모을 수 있게 한다. 우리 모두는 아마 다윗의 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을지 모른다. 주님은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속에서 흐르고 있는 맑은 개울물 같은 진리도 갖고 있다. 우리는 이와 더불어 경험으로 입증 된 진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말씀속의 진리를 늘 묵상하고 적재적소에 끄집어내어 우리 삶의 지침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적인 돌팔매 끈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말씀에서 개울가의 자갈들을 주워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훼손시키려는 악들에게 쓰기 위해 우리의 목동 주머니인 기억 속에 담아두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다윗의 공격 방법 또한 중요한 암시를 담고 있다. 48절을 보면, “블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다가...”라고 묘사되고 있다.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은 시험이 그의 무기를 휘두를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험이 오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군세계 맞서 뛰쳐나가 먼저 공격을 가해야 한다. 이는 말씀의 내적 의미에 관한 지식은 시험을 이용하여 갖가지 시험의 종류와 근원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편 중 하나로써 극복하게 해 줄 진리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진보적인 삶의 준비로서 이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악과 거짓에 대해 수동적인 무저항주의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을 가할 줄 아는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윗의 눈은 맑고 투명했기 때문에 그가 겨냥한 목표물은 확연했다. 그는 자신의 적을 뚜렷하게 보았기 때문에 적의 이마에 돌팔매 돌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 머리란 원리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공격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치하여 끌고 가려는 우리 속의 거짓 원리들을 분명히 인식하여 파괴해야 됨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속의 적은 땅에 쓰러지고, 우리는 “달려가서 그 블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51절)”는 다윗의 행동처럼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악들이 사용했던 논쟁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된다. 그 다음 다윗은 블레셋 장수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를 자기 천막에 간직했다(54절). 진리를 왜곡한 거짓 원리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으로 잘라져야 하며, 악용되었던 진리들은 악에서 분리되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에서

입증된 지혜의 부분 속에 진리를 담아서 차후의 싸움을 위해 그것을 간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다윗이 얻은 승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그 승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영적인 시험에 대한 우리의 첫 싸움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는 무관하게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까닭은 누구라도 첫 싸움에서는 사울과 같이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실패마저도 선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만으로 인한 어리석음을 배우는 경험을 통해 느끼도록 하신다. 그 후 우리가 보다 차분하고 신실해져서 다윗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진리를 깊게 이해하게 되면, 주님은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의 자신감은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는 오랜 세월이 소요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사울이 오랜 세월동안 왕위를 지켜왔고 그가 죽은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음 왕위에 올랐으나 그 후로부터 칠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전 백성이 인정하는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힘을 주신 것에 대한 확증(자신감)은 그분의 원리가 우리의 지성을 통치하기 전에 우리의 심정 속에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다윗은 어디에 살았는가?
- 2)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3) 사울의 군대와 불레셋 군대는 어디에서 대치했는가?
- 4) 불레셋 장수는 누구인가?
- 5) 골리앗의 용모는 어떠한가?
- 6) 그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도전했는가?
- 7) 다윗은 왜 군인이 집결한 싸움터에 오게 되었는가?
- 8) 그는 사울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 9)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10) 왜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11)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 12)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지게 했는가?
- 13)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는가?
- 14)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골리앗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 16) 개울가에서 주운 자갈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목자 3) 엘라 골짜기(느티나무 골짜기) 4) 골리앗 5) 키가 9피트였고 무거운 무장을 했다 6) 불레셋 장수와 싸울 자를 이리로 내려 보내라
- 7) 전투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8)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9) 하느님을 신뢰했다 10) 그의 무장을 입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 11) 돌팔매 끈, 다섯 개의 자갈 12) 돌팔매질을 하여 쓰러트렸다 13) 골리앗의 칼
- 14) 자신은 우수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함
- 15) 유전된 자만심, 교만함
- 16) 우리가 사용해보아 효과적임이 입증된 말씀 속의 진리들

18

솔로몬의 영화

머리말

솔로몬의 영화는 다윗의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윗의 통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9장, 10장

9장: 1. 솔로몬이 계획했던 대로 야훼의 전과 왕궁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한 다음이었다. 2. 야훼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 곳에 두리라. 4.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충성스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 준 모든 계명을 지켜 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5.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 주리라.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하리라. 6. 만일 너나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 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7.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8. 그리고 이 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9.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흘러서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10.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이십여 년이 걸렸다. 11. 띠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재목과 금을 보내 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히람왕에게 떼어 주었다. 12.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 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13.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뭐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14. 히람은 금 백 이십 달란트를 솔로몬왕에게 보냈다. 15. 솔로몬왕은 야훼의 전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쌓고 하술, 므기또, 게젤을 증축하기 위하여 강제노역을 시켰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6.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젤을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보내면서 이 게젤성을 결혼선물로 주었는데 17. 솔로몬이 이 게젤성을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벳호론 남부를 재건하였다. 18. 또 광야에 바알랏과 다말을 다시 세웠다. 19. 또한 솔로몬은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그의 전 영토 안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세웠다.

20.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헛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2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 두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22.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의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3.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오백 오십 명이나 있었다. 24.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세운 후 그를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 와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한 것은 그 때였다. 25. 솔로몬은 그가 야훼께 지어 바친 제단 위에서 번제와 친교제를 일 년에 세 차례 드렸고 야훼 앞에서 분향제도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26. 솔로몬왕은 또 에돔 땅의 홍해바닷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다 상선대를 창설하였다. 27.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28. 그 상선들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 사백 이십 달란트를 실어 와 솔로몬에게 바쳤다.

10장: 1.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2.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왕을 만나자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 보았다. 3.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4.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 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5.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해 마지않으며 6.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습시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7.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8.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9.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찬미를 올립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법과 정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0. 여왕은 금 백 이십 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선물받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두 번 다시 받아 보지 못하였다. 11. 오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상선대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 왔다. 12. 왕은 이 오동나무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뜯을 수금과 거문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동나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 13.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의한 답례물 이외에도 여왕이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14. 일 년간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육백 육십 육 달란트나 되었다. 15. 관세 수입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다. 16. 솔로몬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17.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이 삼미나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보관하였다. 18.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수금을

입혔다. 19. 그 옥좌에는 계단이 여섯 개 있었고 옥좌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팔걸이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20. 여섯 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 쪽에 여섯 마리씩, 모두 열두 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21. 솔로몬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수풀굴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2. 또 왕은 다르싯 상선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르싯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 번 실어 오는데 삼 년이 걸렸다. 23. 솔로몬왕은 땅 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24.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 왔다.

25.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26.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 모으다 보니 병거가 천 사백 대, 군마는 만 이천 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27.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28.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29. 병거와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했는데 가격은 병거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 한 마리에 은 백 오십 세겔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통하여 헷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수출하였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선하게 될 수 없으며, 시험은 진리로서만 정복될 수 있다.

상응 연구

솔로몬 =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에 기초하여 진리를 이해함

40 = 시험

상아 = 합리적인 진리

배 = 지성으로 지혜를 탐사할 수 있는 지식

해설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중 하나는 다윗의 통치에 관한 것인데, 그가 통치기간 동안 전투로 일관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적을 사실상 다 소탕해 버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긴 했으나 그곳에 성전을 짓는 작업은 금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열왕기상 5장 3절), 무사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역대상 22장 8절과 28장 3절). 다윗의 통치 사십 년이란 시험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한다. 시험과의 투쟁은 우리 스스로 주님의 도움을 입어 거듭나는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사실 그 단계는 거듭남에 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거듭남이란 우리 심정 속에서 자아사랑을 꺼내 던져버린 후 텅 빈 심정 속에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의 건축이란 거듭남의 건설, 즉 천국적인 인격의 건설로 자신 안에 주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며 신성한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작업이다.

열왕기상 6장 7절의 “들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상기해 보자. 성전은 조용히 세워진다. 즉, 거듭나는 인격은 우리가 그것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에 주님께 의해 우리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윗의 정복 사업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해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주님은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질문에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답하셨다(누가복음 17장 20절).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를 의미한다. 솔로몬의 통치는 평화를 이룬 상태로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히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며, 주님에게 있어서는 신성화되심을 이루신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는 자아가 주님의 지배를 겸손히 받아 들여서 주님의 계명이 심정 속에 새겨진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지를 이룬 사람의 삶은 주님과 이웃을 섬김을 기꺼이 여기며 기쁨으로 하게 된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가진 꿈에서 주님께 이해력이 있는 심정을 소원했고, 그분은 그의 청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예 그리고 장수까지 더불어 주셨다(열왕기상 3장 5-15절).

본문 9장과 10장은 내적 의미로 거듭나는 사람이 즐기는 영적 부와 영예들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에 앞서 주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엄격한 책무와 어렵게 달성한 높은 상태로부터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경고 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후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상황이 전개된다.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재목과 금을 보내오고,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떼어 주어 그에게 보답했다. 히람은 솔로몬이 떼어 준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금 백 이십 달란트’를 보냈다. 히람은 사람의 외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는 솔로몬에게 건축에 필요한 것들 중 레바논 산의 이름다운 송백나무와 숙련공들을 공급해 주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는 우리의 자연적 지식이나 능력이 선함에 사용될 때만이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건설된다는 사실을 그려준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모습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성막을 짓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한 재료들은 이집트인들로부터 거의 강제로 선물 받은 것들이었다. 이는 자연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도 주님에 의해서 선용되면 우리의 인격을 짓는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주었다는 것은 내적인 것을 통해서 외적인 마음에 천국적인 무언가를 주심을 의미한다. 성읍은 교리를 뜻하며, 이십 개라는 것은 선에 관한 교리를 뜻한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에 관한 교리는 천국적인 교리라고도 불리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히람이 이러한 성읍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것들은 천국적인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거듭나는 사람의 외적인 것들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선함을 주님께 돌려 드린다. 이는 9장 14절의 금 백 이십 달란트를 보내는 모습에 담긴 내용이다.

솔로몬은 건축자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파괴했던 성읍들과 창고용 성읍들을 재건했다. 이는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두는 선과 진리들을 뜻한다. 솔로몬은 그의 왕궁과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그의 아내를 위한 궁도 지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아내를 위해 궁을 지었으나 예루살렘 안에 짓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파라오의 딸은 자연적인 지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자연적인 지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천국적인 삶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한 궁은 거룩한 성 밖에 있어야만 했다.

제 9장에서는 솔로몬의 해군이 언급된다. 그의 해군(상선대)은 고대 이스라엘이 소유한 최초의 해군이자 성공적이기도 했다. 이는 거듭나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경계선을 넘어있는 이들과 교제할 수 있으며 교제를 통하여 더 많은 보물들을 실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제 10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바 여왕의 방문으로 시작된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3048항에서 세바란 천적이며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바 여왕의 왕국이 거룩한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바가 상징하는 천적이며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이 이방인들이 소유했던 지식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왕국의 선조인 세바는 창세기 10장 28절에서 언급되는 에벨의 손자로 간주된다. 스웨덴본에 의하면, 에벨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첫 실제 인물이며 그로부터 히브리인의 이름이 취해져 두 번째 고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세바의 왕국에 천적이며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은 당연하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보물들을 주기도 했다. 그녀가 가져온 것들 중 향료에 관한 기사는 매우 흥미롭다. 향료는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내용물들과 상응한다 (천국의 신비 4748항). 우리는 스웨덴본이 이방인들은 교회 내에 있는 이들보다 더 많은 선 속에 있다고 말할 것을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도 가져왔다는 구절의 의미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이 충분히 거듭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 하면 본문에서 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은 사랑의 상징물이며 사랑은 거듭나는 사람의 속에 든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10장 21절의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을 비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맹이처럼 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27절). 금은 사랑을 상징하고 은은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진리가 멸시 받아져야 한다고 추측하면 안 된다. 사랑이 풍부한 심정은 아주 손쉽게 풍부한 진리를 필요한 만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거듭난 사람에게 가능한 합리적인 사고의 부유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모습은 솔로몬의 옥좌를 기술하는 내용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 옥좌란 심판 또는 판단을 뜻한다.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10장 18절)”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성 속에 든 합리적인 진리가 천적인 선, 즉 명석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기초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옥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었고(19절)”라는 구절은 이해력이 있는 심정 상태가 이끄는 연속적인 승리를 표현한다. 각 계단과 보좌의 양 팔걸이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는 우리 속의 심정과 지성에 주님만이 힘을 주실 수 있음을 명시한다. 여러분은 진실로 선한 사람은 선견지명이 있는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한번쯤 실감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의 판단은 세상적인 사상이나 추론 너머에 군림한다. 그리하여 23절에서는 “솔로몬 왕은 땅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질문 정리

- 1) 다윗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2) 다윗 후의 왕은 누구인가?
- 3)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4)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간청했는가?

- 5) 주님은 그가 간청한 것과 더불어 무엇을 주셨는가?
- 6) 솔로몬은 다윗에게 금해진 어떤 일을 실행했는가?
- 7) 그밖에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8) 누가 솔로몬에게 송백나무와 숙련공을 공급해 주었는가?
- 9)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10) 솔로몬의 첫 아내는 누구인가?
- 11) 솔로몬은 이스라엘 족들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무엇을 창설했는가?
- 12) 어떤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왜 그녀는 그를 방문했는가?
- 13) 그녀는 솔로몬과 대담한 후 어떤 말을 했는가?
- 14) 솔로몬의 옥좌에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 15) 본문에는 왜 금에 관한 언급이 많은가?
- 16) 왕으로서의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40년 2) 솔로몬 3) 평화 4) 지혜 5) 부와 영예 6) 성전 건축
- 7) 자신과 아내를 위한 성 8) 히람 9) 20개의 성읍 10) 파라오의 딸
- 11) 상선(商船)단 12) 세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13) 들은 것보다 더 슬기롭다
- 14) 여섯 계단, 열 두 사자, 금을 입힌 상아
- 15) 금은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 16) 충분히 거듭난 사람

19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머리말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유와 이스라엘 왕국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9장

19장: 1.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2.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내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3.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곳에 시종을 남겨 두고 4.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싸리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5.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여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고 말하였다. 6. 엘리야가 깨어 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7.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여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하고 말하였다. 8.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9.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 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1. 다시 음성이 들려 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 왔다. 13.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걸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나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5.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 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17.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칠천 명을 남겨 두리라.” 19.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열두 켤 겨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걸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20.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 보게. 내가 어찌 작별인사를 금하겠는가?” 21.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 간다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상응 연구

유다 = 심정 또는 의지부분
이스라엘 = 지성 또는 이해성부분
아합 = 지성을 통치하는 거짓 원리
이세벨 = 세상과 자아만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기쁨
엘리야 = 예언적인 말씀
엘리야의 겉옷 = 말씀의 글자

해설

솔로몬의 죽음이란 주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던 우리의 심정 상태가 끝나고 의무의 측면만이 남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상태는 오랫동안 우리의 심정에 머무르는데, 이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로 그려지고 있다. 남쪽의 유다왕국은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하며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고 그곳에서의 성전 예배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유다왕국에는 선왕도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심정상태와는 달리 우리의 지성은 주님의 법도에 저항하는 상태에 있다. 열 두 지파 중 북쪽인 열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국을 따로 세워 세겜을 수도로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반역의 주동자인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모셨다. 여로보암이 분단된 두 왕국의 통합을 열망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성전의 예배나 큰 행사를 위해 옛 왕국을 방문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리하여 그는 새 장소에 예배를 위한 새로운 대상물을 건립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예배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그의 염려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안했다. 그는 단과 베텔에 금송아지 상을 하나씩 세우고 큰 축제도 개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 송아지란 자연적인 인간 또는 외적인 인간 속의 선을 말한다(천국의 신비 9391-2항). 여러분은 구약 성서에서 황소 또는 송아지가 제물로 바쳐지는 규정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송아지라

함은 외적인 종류에 속하는 유용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제물로 바친 송아지란 이런 행위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것, 즉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행해져야 하며 모든 선을 위한 힘은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열왕기상 12장 26-33절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의 묘안인 송아지는 이와 정반대이다. 그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제물이 아닌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앙하는 대상으로 내세운 금송아지란 외적인 선한 일들을 종교의 전부인 듯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자신이 해놓은 선한 일들을 스스로가 잘나서 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며 선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즉, 선의 근원이자 주인이신 주님을 망각해 버린다.

아합은 분단된 왕국 중 이스라엘 왕국의 일곱 번째 왕이었다. 이스라엘의 통치 계보는 세 차례의 폭동으로 이미 뒤바뀌어 있었다. 우리의 생각이 천국적인 인격을 이루려는 우리의 바램과 떨어져 있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세상이 주는 참신한 것들에 빠져서 새로운 원리를 찾아 늘 헤매게 된다는 것이 바로 폭동으로 왕권이 자주 바뀌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의미된다. 이스라엘 왕국 왕들은 모두 악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느 선배 왕들보다도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음 구절에서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시돈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를 숭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고 그 안에 바알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라고 평가된다. 바알 숭배란 주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자기 숭배로 전이됨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159항에서 이세벨은 세상과 자기만의 사랑에서 생산된 기쁨 또는 완전히 뒤집힌 교회를 표현하고 바알숭배란 세상과 자아만을 최고로 여기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와 권능이 바알보다 중요함을 확증하여 여호와를 예배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하면서 바알 예언자 사 백 오십 명을 키손 개울로 끌고 가 죽였다. 즉, 우리의 지성에 말하는 바알의 소리가 잠잠해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아 사랑을 즐기는 것은 심정 바닥에 여전히 살아있어 지성 속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벌떡 일어난다.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은 분노하여 “네가 예언자들을

죽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라고 외친다. 이것은 자아 사랑이 주는 기쁨에 젖어 있던 악이 격노함을 표현한다.

이세벨의 위협은 엘리야로 하여금 실망하여 도망가도록 했다. 그는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남쪽으로 멀리멀리 달아났다. 그는 먼저 거룩한 땅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갔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더불어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 후 그는 호렙산으로 갔다. 우리가 세상과 자아 사랑이라는 공격에 맞서 방어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의 어릴 적 상태인 단순한 신뢰심과 순종으로 피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에 먼저 도착하는 엘리야의 모습에 담긴 내용이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부터 또 다른 단계를 취한다. 즉, 4절에서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싸리나무 덩굴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 달라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이 구절은 그가 완전히 자포자기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구절은 내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지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보호를 신성한 섭리에 전폭적으로 의존하겠다는 것과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싶은 바람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한 걸음 더 진전한다. 즉, 그대로 누워 잠든 모습이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심정상태는 세상과 자아사랑이라는 의식에서 멀어져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접촉하실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로 신성이 즉시 들어가는 모습은 천사가 음식과 물을 가지고 나타나 흔들어 깨우는 것으로 묘사된다. 물 한 병이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리들을 표현한다.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란 체험으로 발달된 선함을 표현한다. 이 과자와 물은 격한 시험을 견뎌 낼 힘을 충분히 주어 우리로 하여금 호렙산 또는 시나이산으로 도착하도록 해준다. 즉, 계명이 하느님의 영원한 법임을 확증하게 해 준다는 말이다. 9절의 산에 있는 한 동굴이란 확증이 있다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의심하는 상태, 즉 회미한 마음으로 움츠린 상태이다. 이리하여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을 목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자연적인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확증하려고 할 때 자신의 지성과 심정 그리고 행동 지침 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이 마치 하느님의 소리인 것처럼 증명하려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격동들은 하느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엘리야에게 말해진다. 격동 또는 큰

변화는 우리가 조용하고 여린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개혁이다. 그 후 엘리야는 동굴을 떠날 준비를 갖춘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걸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라는 것은 말씀의 글자가 보호하는 베일로 사용됨을 알려준다. 엘리야는 주님을 섬기려는 자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 즉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 안에 칠천 명이나 있다는 사실로 용기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재조직에 관한 지침이 그에게 시달된다. 시리아에 새로운 왕을 세움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치하는 새로운 원리를 뜻한다. 이스라엘의 새 왕이란 우리의 지성을 통치할 새 원리를 뜻하며, 새 예언자란 그 땅에서 주님의 소리가 더욱 새롭고 강력해질 것을 의미한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사는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받을 갈고 있었다.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건립한 세 건축물은 무엇인가?
- 2)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솔로몬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 4) 분열된 두 왕국은 각각 무엇이라고 불리었는가?
- 5) 분열된 왕국은 각각 무엇을 그려주는가?
- 6) 이스라엘에 어떤 승패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 7)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 8) 그 왕의 아내는 누구인가?
- 9) 본문에서 주님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10)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가?
- 11)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셨는가?
- 13) 그 다음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 14) 호렘산의 또 다른 이름과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 15)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6) 주님은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셨는가?
- 17) 이러한 징조 뒤에 무엇이 뒤따랐는가?
- 18) 주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는가?
- 19)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20)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할 때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 21) 주님이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과 두 궁전 2) 왕국이 갈라졌다 3) 우상숭배, 무거운 세금
- 4) 이스라엘, 유다 5) 인간의 마음이 심정과 지성으로 구성된 모습
- 6)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 숭배했다 7) 아합 8) 이세벨 9) 엘리야
- 10) 그가 바알 예언자들을 살해했다 11) 브엘세바
- 12) 천사들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다
- 13) 호렙 14) 시나이산, 십계명 15) 주님이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 주셨다
- 16) 아니다 17) 조용하고 여린 소리 18) 주님께 신실한 자가 칠천 명이나 있다
- 19) 새 왕들을 기름 붓고 후계자를 세워라
- 20) 황소 열 두 쌍에 거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다.
- 21) 시험 후 조용한 명상 시간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그린다.

20

히즈키야 왕과 이사야

머리말

본문을 통해 유다왕국의 특수한 성격을 알아본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과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포로가 되는 신세를 떠올리면서 공부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은 사악했다. 반면, 유다왕국은 히즈키야왕처럼 선한 왕들이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장수하는 히즈키야왕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0장

20장: 1. 그 무렵 히즈키야가 몹시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쓰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너의 왕실에 마지막 유시를 내려 기강을 바로 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하지 못하리라.’” 2. 히즈키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3. “오, 야훼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4.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떠나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왕 히즈키야에게 일러 주어라. ‘너의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 주리라. 삼 일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6. 내가 너의 수명을 십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 주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 말을 전한 다음 이사야는 무화과로 만든 교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무화과로 만든 교약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히즈키야왕의 병이 나았다. 8. 히즈키야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삼 일만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야훼께서 주셨는지 이사야에게 물었다. 9.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에 야훼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10.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오,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예언자 이사야가 야훼를 불러 찾았다. 그리고는 그림자를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12. 그 무렵 바빌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므로닥발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13. 히즈키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 주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14.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오.” 15. 그러나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16.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18.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들 중 더러는 바빌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19.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20. 히즈키야의 나머지 사적과 업적,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안으로 물을 끌어 들인 일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1. 히즈키야는 잠이 들어 그의 선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므나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교리 요점

* 신약 성서에서 사마리아인들이란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 그곳에 정착하여 산 외국인들의 후손이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포기하고 그릇된 사고로 점령되어 그릇된 사고가 오래 지속되는 양상을 그려준다.

- * 우리의 지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포로가 되면 우리의 선한 의도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 * 외향적 선한 일 안에는 선행(charity)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응 연구

무화과 = 외적으로 선한 일
 아시리아 = 합리적인 평면
 바빌론 = 자아욕에서 비롯된 지배욕

해설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유다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삼 년의 일이었다. 히즈키야의 통치 육 년째 이스라엘들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갔고, 동쪽 먼 나라로부터의 외국인들이 그곳에 정착되도록 강제 이주시켜졌다. 신약 성서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다. 이는 세상적인 추론이나 사상이 지성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때나마 솔로몬이라는 상태, 즉 우리의 의지와 추론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상태를 경험한 후 우리는 자신의 의지만큼 쉽게 변화되거나 악해지지 않는다. 이해성은 의지보다 쉽게 향상되거나 악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가 교차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그려진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국에서 분리된 후 급속도로 타락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왕의 계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폭동의 연속으로 늘 바뀌었다. 반면, 유다왕국은 전 역사동안 단일 계보에 충실했고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리 소수의 선왕들도 있었다. 선왕들은 대부분 나약하거나 타협적이었다. 그러나 양국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즐기는데 반해 소수의 선왕들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 속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면, 우리의 의지는 선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지성이 말씀을 의지해 오던 쪽에서 세상적인 추론에 기대도록 허용하는 모습이다. 즉, 마음만으로 삶을 사는 모습이다. 왕이란 우리의 심정을 지배하는

원리를 표현하고, 선왕은 주님께 신실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땅의
우상숭배를 즐기는 백성들이란 우리 속에 왕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식어 가는 바램이
나 생각들을 말한다. 그 땅의 백성들은 방황하는 생각을 따라 이리저리 표류되고
부패되어서 왕 혼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만다.

히즈키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철저히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다.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이러한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우리가 멀리 후퇴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뒤바꾸려는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히즈키야에 해당된다.
18장 4절에서 히즈키야의 업적은 “산당들을 철거하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
을 찍어 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었다”라고 기록된다.
그리고 7절에서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어 그의 지배를 벗어났다. 또한
블레셋 전 지역을 모두 쳐부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라고 기록된다. 이는 자기검증을
철저히 하는 우리 모습에 해당된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2722항에서 “고대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는 산이나 작은 숲에서 거행되었다. 그 이유는 산은 예배의
천적인 것을 의미하고 작은 숲은 예배의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이후 많은 표현적 형체들이 등장하면서 그 의미는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지
고 시야에 나타난 물체를 예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산과
비슷한 높은 언덕인 산당을 건축하거나 작은 숲 같은 형상들을 만들었는데, 형상들은
근원적으로 거룩했던 것이 우상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는 예배의 형식들이나 진부한 문구를 사용하여 예배를 거룩하
게 여길 때 또는 전통적인 예배의 외적 형식이 종교의 전부인 듯 착각하게 될 때
히즈키야와 같은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3-24절에서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 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이야,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

고 경고하셨다. 히즈키야가 산당을 헐어 버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0-23절을 읽어 보자. 구리뱀에 관한 언급은 요한복음 3장 14-15절에도 있다. 구리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님의 영화된 감각성을 그리는데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닥치는 감각적인 시험을 극복할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 구리뱀을 우상으로 섬겨서 그들이 겪는 곤경에서 헤어나기를 바랬을 뿐 그들 속의 악을 정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이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육체적 고통 자체가 유효하다고 간주하면서 자신이 살아 온 삶을 수정하지 않고도 주님께서 악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다고 믿는 모습과 유사하다. 히즈키야는 아시리아에 반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한마디로, 자주 국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유다는 주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아시리아로부터 구원되었다. 그 이유는 히즈키야가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주님의 명령들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한 세상적인 추론의 범주에 속하는 논쟁 따위가 우리의 선함을 결코 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히즈키야는 아시리아왕에게 성전의 금과 은 심지어 성전의 본관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과 은까지 벗겨 바쳐서 그를 달래려고 했다. 즉, 히즈키야는 타협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타협이란 세상적인 추론과의 타협을 뜻하는데, 이는 그를 아주 약하게 만들었다. 20장 1절에서는 “그 무렵 히즈키야가 몹시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된다. 선한 왕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선하고 싶은 우리의 바램이 심정 속에서 거의 소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언자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되지 못하리라”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분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선한 바램이 새롭고 강건해지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면 말씀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약속을 갖게 되어 우리의 바램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 이사야 1장 18절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참조하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용기장이에 빗대어 하신 말씀 중 18장 8절의 “벌하러던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리러던 재앙을 거둔다.”라는 말씀도 참조하자. 또한 에제키엘 18장 21절에서 “그러나 만일 못된 행실을 하던 자라도 제 잘못을 다 버리고

돌아와서 내가 정해진 규정을 지키고 바로 살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는 말씀도 참조하자. 우리는 위의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 역시 우리처럼 저녁에 먹은 마음을 아침에 바꾸시는 분이 아닌가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변화는 언제나 우리들에게만 있다. 이러한 가르침의 긍정적인 면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한은 주님께로 돌아설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집스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 있는 동안 언젠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길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변화가 가능하다. 즉,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확실히 손에 쥐고 있는 듯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주님은 늘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셔서 우리가 마음만 돌려 먹으면 언제든지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게 된다.

종기 또는 궤양이란 인격에 감춰져 있던 악이 돌출하는 것을 묘사한다. 본문 1절에서 몹시 앓아 죽게 할 것 같은 궤양 혹은 성이 잔뜩 나 쿡쿡 쑤시는 종기란 우리속의 어떤 악이 우리의 방자하고 거만한 행실로 툭 튀어나오는 것을 뜻한다. 이사야의 명령에 따라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히즈키야의 종기 위에 붙이자 그의 병은 치료되었다. 무화과 나무란 자연적인 사람에 대한 상징이고, 그 열매는 자연적인 선함을 뜻한다(계시록 설명 제 403-17항). 인간이 악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면서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깥쪽 지침을 정정하는 것, 즉 악한 행위대신 선한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첫 단계에 불과한 바깥쪽의 개혁일 뿐이어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너의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가... 내가 너의 수명을 십 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라고 말했다. 숫자 15란 조금에 대한 상응이다. 역대기하 32장 25절에서 “히즈키야는 건방진 생각이 들어 있던 터이라 그 은덕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바깥 행동을 개혁하더라도 우리 안에 든 이기심이나 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은덕은 입을 수 없음을 뜻한다.

히즈키야에게 주어진 징조는 흥미로운 장면이다. 스웨덴붉은 아하즈의 계단이 번역된 것으로 아하즈의 해시계판은 유대 교회의 점진적인 하강을 그린다고 설명한다. 히즈키야는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 교회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었다. 본문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열 칸 움직인 징조와 해와 달을 멈추게 했다는 여호수

아 10장 22-23절의 기적을 비교해 보자.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Apocalypse Explained) 401-18항에서 이러한 기적들은 태양이 실제로 멈추어 섰다거나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질서 자체이신 주님이 자연의 운동을 멈추거나 거스르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들의 영혼에 진실한 태양이신 주님의 빛이 비추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태양이 되시는 주님이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로 이해된다. 주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분에게 얼굴을 돌리면 우리의 대낮은 언제나 다시 올 수 있다.

바빌론의 사절단이 내왕하는 것은 유다의 멸망이 싹트는 조짐을 보여준다. 바빌론이란 자아사랑 중 자신이 위에 앉아 타인을 지배하고자 열망하는 최악의 모습을 그려준다. 타인 위에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주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우리 속의 사랑이다. 이런 욕구가 우리 심정으로 진입될 때, 우리는 그 악의 본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제 12절에서와 같이 그 악은 사절단처럼 친구로서 접근한다. 다시 말해서, 그 악은 아주 조심스럽게 서서히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우리 심정에 거점을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아주 친한 친구인 듯 대한다는 것이다. 13절의 기록에 따르면 히즈키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주는 큰 실수를 범한다. 한마디로, 사절단의 입바른 말에 히즈키야의 심정이 건방져 진 것이다.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꾸리고 선한 삶으로 만족할 때 우리 속의 적에게 우리의 보물을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기 쉽고 결국 지배욕이 우리의 심정을 기어 다니도록 허용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2) 그 왕의 초기 통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누가 아시리아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었는가?

- 4) 누가 히즈키야왕 시대 때에 예언자였는가?
- 5) 히즈키야가 심히 아프자 이사야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히즈키야는 무엇을 했는가?
- 7) 이사야는 주님이 주신 어떤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는가?
- 8) 히즈키야의 병명은 무엇인가?
- 9) 이사야는 히즈키야를 무엇으로 낮게 해주었는가?
- 10) 히즈키야는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1) 어떤 나라에서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냈는가?
- 12) 히즈키야는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 13) 그래서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4)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15)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히즈키야
- 2) 아시리아의 포로가 됨 3) 주님의 천사 4) 이사야
- 5)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6) 기도했다
- 7) “내가 너의 수명을 십 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 8) 종기 9) 무화과로 만든 고약
- 10)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바빌론 12) 왕국의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 13) 어리석은 짓을 했다 14) 북쪽의 방어벽이 사라진 셈이다
- 15) 아시리아 -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생각들
바빌론 - 자아사랑에서 오는 지배욕

21

시편에 관하여 (2)

머리말

시편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 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주님에 의해 영감 된 노래이다.

성 서 본 문: 시편 19편

- 19편: 1.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2.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3.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4.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 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사옵니다.
7.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준다.

8.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9.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10.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욱 달다.
11.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12.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 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13. 일부러 범죄 할까, 이 몸 막아 주시고
그 손아귀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14.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교리 요약

- * 주님은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 * 열왕기하와 시편 사이의 성경은 내적 의미가 없다.
- *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되돌아서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진리뿐이다.

- * 여호와를 경외(두려워)함이란 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 우리는 심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행동도 깨끗이 해 두어야 한다.

상응 연구

주님의 영광 =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진리
 태양 = 하느님의 사랑
 꿀 = 선에서 나오게 되는 즐거움
 벌집 = 진리로부터의 즐거움

해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리하여 주님은 직접 시편이 율법과 예언서와 같은 수준의 영감이 들어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2절에는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세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편이 성전에서 노래로 불렸을 뿐 그들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까닭에 율법과 예언서와 동등하게 분류하지 않고 시편을 성문집(Kethubim)에 넣어 처리했는데, 이와 같은 분류는 오늘날의 히브리 성경에서 지속되고 있다. 히브리 성경의 정경들과 새교회의 정경들의 차이점은 단지 애가서와 다니엘 그리고 시편이 히브리 성경의 정경들에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1880년대 새교회에서 발간된 책 중 “Our Heavenly Father's Book”에 언급

된 시편에 관한 간략한 서술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에 게재한다.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시들은 한 권의 책으로 성서에 놓여 있다. 시편의 시들은 이미 느헤미야의 시대 (425 B.C.) 이후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주님으로부터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히브리어로 시편은 테힐림인데, 이는 찬송의 책이란 뜻이다. 현재어 시편(Psalms)은 희랍어 살모이(Psalmoi)에 근원하는데, 살모이란 현악에 맞춰 부른다는 뜻이다. 용어 성시집(Psalter)이란 라틴어 Psalterium을 통해 희랍어 Psalterion에서 근원 되었다. Psaltery는 원래 하프(harp)의 이름이었다. 그래서 이 시집들은 영감이 있는 찬송집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집은 길이와 형식이 각기 다른 150개의 찬송이 있다. 주제 역시 각기 다양하며, 매 절마다 종교적인 느낌과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집은 헌신의 부족함에 대해 말하고 성결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들은 근본적으로 악기 연주자와 더불어 음악 연주를 고려하여 배열되었다.

가장 중요한 저자는 다윗왕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달콤한 시인이었다. 전 시편은 신약 성서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다윗이란 이름으로 불릴 정도다. 73개의 시편은 시 제목에서 다윗의 저작으로 보인다. 아삽(Aspah)은 12개 시편의 저자로, 11개 시편은 고라(Korah)의 아들들이 저자로 명명되고 있다. 72편과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89편의 저자는 에단(Ethan)으로 그리고 90편의 저자는 모세로 추정된다. 따라서 모세의 것이 수록된 시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원본에도 아주 오래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다. 나머지 50편은 저자가 불분명한데, 대부분이 다윗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시편은 국가적인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구성되어 있거나 거룩한 예언자들 또는 예견자의 계보와 관련된다.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 권은 마지막 권을 제외하고는 송영으로 귀결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권에는 시편 전편에 대한 송영이 있다. 제 1권은 1-41편까지이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야훼여, 찬미 받으소서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아멘, 아멘”이라는 송영으로 끝맺는다. 41

편 중 37편은 제호에 다윗의 이름이 붙여져 있고, 나머지 네 편도 그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 책의 시편들은 신성을 하느님(엘로힘)으로 부르기보다 여호와(주님)로 부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징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주님의 사랑, 자비, 선함, 열정, 돌보심 그리고 용서하심의 역사를 우선으로 다뤄 주님의 호소가 인간의 심정을 향해 우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 1권의 시편집은 히브리 찬송집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 교회의 예배를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편집은 다윗에 의해 정리되고 배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대략 서기 일천 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이 된 후 일 것으로 본다. 제 23편과 제 19편은 어린 소년 시절에 다윗이 베들레헴에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때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제 2편은 원래 제 1편이었는데, 후에 전 시편집의 서문으로 오늘날의 제 1편이 책의 맨 앞에 놓인 것이다.)

두 번째 책은 31개의 시편(42-72편)으로 구성되며, “당신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영광스런 그 이름, 길이 길이 찬미 받으소서. 그 영광은 땅에 가득히.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난다.”라는 송영으로 끝맺는다. 제 72편은 솔로몬의 노래로 여겨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위해 쓰인 것처럼 보인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이 기름 부어지고 왕으로 선포된 때에 기도와 간구로 추측된다. 이 책은 선왕인 히즈키야 통치(서기 전 700여년) 때에 처음 수집되어 첨가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책은 신성을 부르되 하느님(엘로힘)이 여호와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우세함이 특징이다. 따라서 신성한 지혜나 진리의 역사하심이 우선으로 다뤄져 주권, 위엄 혹은 권능에 관한 그분의 특질을 통해 인간의 이해성이나 양심에 직접 호소하고 있다.

세 번째 책은 17개의 시편 (73-8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첫 11편은 아삽의 노래로, 4편은 코라의 아들의 노래로, 86편은 다윗의 노래로 그리고 89편은 에단의 노래로 여겨진다. 아삽의 시편에는 신성이 하느님으로 우세하게 불리며, 그 책의 나머지는 여호와로 불리고 있다. 이 책은 요시야의 통치 시기 서기 전 625년경에 수집되어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책은 모세의 기도로 열리면서 총 17개의 시편(90-106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중 3편(101-103편)만이 다윗의 노래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책에는 작자 미상의 시편들이 많다. 그리고 이 책은 대부분 예배 때의 노래에 관한 언급, 즉 찬양이나 감사함으로 배열된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 전체적으로 여호와란 이름이 우세하게 사용된다. 하느님이란 이름은 대명사로 통칭할 때, 즉 나의 하느님 혹은 야곱의 하느님 정도로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후 에즈라 시대 때 혹은 서기 전 450여년 쯤 큰 예배당에서 에즈라의 감독 하에 편집되어 첨가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책도 송영,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 언제나 언제나까지나 찬미 받으소서. 온 겨레여, ‘아멘’으로 화답하여라.”로 끝맺는다.

다섯 번째 책은 나머지 44개의 시편 (107-150편)을 포함하고 있다. 107편은 귀환에 관한 것으로 귀환 후 성막의 첫 축제 때에 불렀을 것으로 예상된다(에즈라서 3장 참조). 이 책에는 “칭호의 노래”가 있다. 120-134편은 느헤미야 하에 유대인이 적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리하던 때에 관한 것으로, 유대인이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수비대와 일하는 사람에 의해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즈루빠벨과 예언자 하깨와 즈가리야가 에즈라에 의해 설립된 큰 예배당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책을 감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스 역 구약 성서(Septuagint)나 라틴어 역의 성서(Vulgate)에서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은 각 시편 제호에 위의 예언자들을 할애하고 있다. 이 마지막 책은 여호와란 이름이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집중되어 있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송영인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라.”라고 끝맺어지고 있다.

일부 시편은 원어에서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도 하다. 각 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철자로 시작되어 끝까지 이어진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시편 25편으로, 22절로 구성되어 히브리 알파벳 22개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편은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과 145편이다. 그러나 이들 시편 모두가 알파벳 순서를 완벽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37편의 경우 매 두절마다 알파벳 순서로 진행되나, 119편은 22개의 문단들로 구분되어 각 문단이 알파벳 순서로 진행된다. 우리가 읽는 영어 성경의 경우(King James version)는 각 문

단 위에 따로 히브리 글자가 첨가되어 있다. 이 시편의 시의 대구는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 이는 말씀에 관한 어떤 호칭, 즉 말씀, 법, 교훈, 언약, 계명, 심판 또는 율례 등을 사용한다.

일부 시편의 제호에는 음악의 진행이 언급되고 있다. 히브리말의 Neginoth는 현악기(수금)를 의미하고, Nehiloth는 관악기(플룻)에 해당된다. 알라못(Alamoth)은 처녀란 뜻으로, 세 겹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셀라(Selah)는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음악의 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셀라란 노래가 불리고 있을 때 악기 연주가 시작되어 노래와 합해지는 지점을 표시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출애굽기에서는 악기와 춤을 동반하여 홍해에서의 구원을 노래한 승리의 찬양을 볼 수 있다. 이후 우리는 음악에 관한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한다. 성경에서 기술된 바대로 음악은 주님에 관한 감사, 찬양 또는 공식 예배의 진정한 사용과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음악은 레위지파인의 공식적인 훈련의 일부로 추진되기도 했다. 또한 사무엘서에서는 예언자의 학교에서도 음악이 훈련되었다고 기록되는데,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편이 씌어 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와 그 후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예배와 연결되어 예배 음악은 많은 정성을 들여 차차 완성되었다.

다윗의 통치 때에는 레위지파로 구성된 38000명 중 4000명이 예배의 음악을 위해 따로 배치되었다. 이 지파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 찬양대나 연주에 있어서 레만과 아삽 그리고 에단을 대표자로 두었다. 그들은 타고난 소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추구를 위한 충분한 여가도 가져서 그들의 기량이 일부 가문에서 잘 발달될 수 있었다. 이렇게 큰 음악단은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에단)과 더불어 24명이 관장하면서 숙련된 가수로 구성된 12분과로 나뉘어 있었다. 숙련되고 재치 있는 288여명의 연주자들이 있었고 그 각자는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직접 감독 하에 부 성가대도 조직되어 있었다. 각 악단은 166명의 음악인으로 구성되어 12명의 숙련된 연주자 또는 지도자의 체제로 관장되었다. 그리고 총괄적인 지휘를 위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 중 한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악단에 사용된 악기들의 종류는 다양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악기의 실례는 모두 알 수 없다. 우리는 세 가지 일반적 분류로 악기를 알고 있다. 첫째는 관악기로서 트럼펫, 코넷 그리고 플룻이다. 두 번째는 현악기로서 하프(수금)와 비파이다. 셋째는 타악기로서 탬버린, 심벌즈 그리고 트라이 앵글이다. 악기들에 관한 히브리 이름은 성경의 시편집의 제호로 쓰여 있기도 하다. 성악가들은 연주자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한 성부를 맡은 것으로 본다.(시편 68:25, 에즈라 2:65, 역대상 25:5-6, 16장 참조).

우리는 성가대들의 이러한 노력을 본보기로 삼아 시편의 문자를 그대로 노래할 수 있는 영창(chant)을 틈틈이 배워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음악이 심정의 표현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시편을 늘 읽을 뿐 아니라 곡에 담아 노래로 불러야 할 것이다.

본문의 시편 19편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는 동안 신성한 영감이 일시적으로 그의 심정에 놓여져 불러진 시이다. 스웨덴북은 시편 19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4절: 신성한 진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감. 5-6절: 신성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천국과 교회의 첫 번째 것에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퍼져 나간다. 7-11절: 신성한 진리는 인간을 완전하게 한다. 그 이유는 신성한 진리가 지혜이기 때문이다. 12-13절: 그리고 이렇게 완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자랑도 있지 못하다. 14절: 그러므로 거기에는 순수한 것, 즉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만 있다.” 우리는 시편 19편의 주제가 진리와 그로 인한 결과지만 진리에 관계되는 하느님(God, Elohim)은 1절에서만 언급될 뿐 나머지는 주님(여호와, 야훼 Jehovah)가 사용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진행되는 진리는 사랑 또는 선에 근거된 것이며, 인간의 삶에 있는 진리 역시 사랑 또는 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시편의 모든 구절은 더 깊고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마지막 절은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늘 소원해야 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자.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했는가?
- 2) 시편이란 무엇인가?
- 3) 주님은 시편에 관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4) 많은 시편은 누구에 의해 쓰였는가?
- 5)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6)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7) 시편 19편 1절은 무엇인가?
- 8) 그 첫 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 9) 시편은 주님의 법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가?
- 10) 주님을 두려워 함 혹은 경외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19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2)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시편서 2) 노래 3) 시편은 주님에 관해 말했다 4) 다윗 5) 찬송
- 6) 주님에 관해 우리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
- 7)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 8) 우리는 창조의 완전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9)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 10) 주님을 언짢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어 함
- 11) 의를 행함 속에 행복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 12) 우리의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 (2)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대 예언자, 성경에서 이 책들의 위치, 이 책들의 역사적 시기와 예언자들의 직분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예언의 의미와 영감에 따라 예언자가 말했음도 기억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예레미야 1장

1장: 1. 예레미야 일대기.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힐키야라고 하였다. 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삼 년 되던 때의 일이었다. 3. 야훼의 말씀은 그 후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 또 요시야의 또다른 아들 시드키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일 년 되던 해의 오월,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4.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다. 5.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6.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7.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8.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9.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둔다. 10.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11.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감복숭아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다

니 12. 야훼께서 이르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13. 야훼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부글부글 끓는 솥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4. 야훼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5. 이제 나는 북녘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 오리라.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그 왕들은 몰려 와서 예루살렘성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항복을 받으리라. 16. 나는 나의 백성이 저지를 모든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며, 저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17.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의 백성에게 일러 주리라. 내가 시키는 말을 모두 전하여라.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리라. 18.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사제들이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된 성처럼, 쇠기둥, 못담처럼 세우리니, 19.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감이 없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인간을 인도해 줄 충분한 진리도 주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 * 예언자란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모든 말씀은 예언이다.
- * 우리가 자아의 힘과 지식 대신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열매란 진리에 순종하는데 근원한 선을 표현한다.

상응 연구

가지 = 힘

감복숭아(살구)나무 = 주님으로부터의 진리

북쪽 =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의 상태

해설

태고교회 사람들은 몰락되기 전 천국과의 교통이 열려 있어서 그들의 의지 부분에 주님이 직접 작용하여 인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지가 악하게 된 후 인간은 이해성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인도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인간의 이해성에 말씀하셨다. 고대 말씀이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감사의 기도문에서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대목을 상기해 보면 납득될 것이다.

사실 예언자들에 의해 말해진 것 중 일부만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 보존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언들의 일반적 성격은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예언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한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목적이란 인간이 행한 악들을 지적하고 악에서 인간을 건져내 선으로 인도하기 위한 진리를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1장 10절은 이러한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즉,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모든 말씀은 예언으로 주님이 주신 신성한 메시지이다. 글자상으로는 율법과 예언서로 구분한다. 율법인 모세 오경은 계시의 단언, 환상, 천사의 출현,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많은 표적과 징조로 가득하다. 히브리 정경(canon)은 룻기서를 제외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서까지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한다. 그들은 전기 예언서들의 저자는 몰랐으나 신성하게 영감 된 예언자들을 통해서 책들이 주어졌음은 인식하고 있었다. 모세 오경과 전기 예언서들은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담고 있다. 이 책들은 글자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타당하면서 영원한 내적 의미, 즉 영적 의미도 내포한다. 반면, 후기 예언서의 히브리 국가는 역사적 측면은 적은 편이나 이 책들도 예언서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왕국의 말기 전에 쓰인 것임에도 그 시대의 사건과 연결 짓기 어려운 갖가지

숨겨진 서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임을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에서의 예언들은 성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언들을 하도록 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와 의로움에 대한 가르침,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건설하시게 될 교회에 관한 것 때문이었다.

후기 예언서는 4개의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로 분류된다. 대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이다. 이 책들의 역사적 상황은 서술되어 있어서 아주 분명하다. 후기 예언서는 모두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된 것이다. 이사야는 우찌야, 요람,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왕의 통치시대 때에 예언했다. 그는 아시리아왕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왕국이 멸망되었듯이 유다왕국 또한 이러한 암울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음을 경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예언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마지막 선왕인 요시야 통치시대 13년째에 예언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는 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느부갓네살왕의 호의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서 풀려났지만, 후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일부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갈 때 역지로 끌려 그곳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그곳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후기 예언들(예레미야 43:8 후)과 애가서는 이집트에서 기록되었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있었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도록 부름 받았다. 예레미야는 유다백성들에게 재난이 덮칠 것을 예언하여 그들에게 미움을 샀다. 그러나 백성들은 유다왕국의 몰락 후 회복의 예언이 에제키엘과 다니엘로부터 주어져 위로 받았다. 이리하여 두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환영받고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고 가축우리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음식 없이 진수령 속에 빠트려지기도 하며 죽이려는 위협도 받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이 즐기는 내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진리와 상반된다고 말씀이 외칠 때 그 외침의 말씀을 봉해 버리려는 다양한 모습을 그린다. 그러나 결국 진리가 설복시키고 진리의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도 담고 있다. 본문 17-19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어

진 명령과 약속의 구절은 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님의 섭리와 진리위에 있어질 주님의 보호를 나타낸다.

예레미야는 예언의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두 가지 환상이 주어진다. 우리는 그의 환상으로 민수기 17장 1-8절의 「아론의 가지」에서 열 두 지파 중 레위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가지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징조와 그 가지가 바로 감복송아 가지였음을 떠올릴 수 있다. 본문의 아몬드 가지와 출애굽기의 아론의 가지는 모두 주님께서 내적인 의미를 글자그대로에까지 명백하게 나타내시는 실례들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이러한 실례들은 성경 안에 감춰진 진리가 우리의 눈에 선명히 보이는 구절들이라고 한다. 아몬드가지의 의미는 12절에서, 부글부글 끓는 술물의 의미는 16절에서 주어지고 있다.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유다왕국의 모습으로 선의 측면에서의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의 끝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46-51장과 58장에서는 유다왕국의 적들, 즉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케달, 하술, 엘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바빌론들을 따라 잡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적들은 우리의 영적 진보를 저지시키는 적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이집트란 자연적인 기억의 지식들에만 의존함을, 블레셋이란 진리를 실현하려는 마음 없이 진리를 알고자함을, 모압과 암몬이란 거짓된 선과 진리를, 에돔이란 진리를 경멸하여 선을 한쪽으로 치워버린 모습을, 다마스쿠스란 알고 있는 진리를 거꾸로 이용함을, 하술이란 악으로부터 나온 거짓을, 엘람이란 황폐해진 영적 교회를 그리고 바빌론이란 자아사랑에서 근원한 지배욕을 표현한다. 이들은 개인적 또는 교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 극복해야 할 시험들의 목록임을 염두 해야 한다. 우리는 간혹 앞서 언급된 나라의 이름들을 성서에서 접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의미들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적 혹은 역사적 배경에 따르는 의미의 경중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왕국의 적들이 상징하는 악과 거짓들을 우리 안 혹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악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총명과 의지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기심의 극단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어디서 구했는가?
- 2)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가?
- 3) 4개의 대 예언서는 무엇인가?
- 4)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가?
- 5) 예레미야는 어느 왕의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는가?
- 6)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답변했는가?
- 8) 주님은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예레미야가 가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10) 주님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1) 그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12)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13) 예레미야는 어떤 비극을 목격했는가?
- 14) 애가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5)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에서 예언의 직무를 수행했는가?
- 16) 그는 나중에 어떤 나라에서 더 예언했는가?
- 17) 그는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18)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19) 그들은 어떻게 바빌론으로 가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이나 꿈 등을 통해서 2)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을 경고하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 3)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4) 히즈키야왕의 시대 5) 요시아왕의 시대

6)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7)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준다” 8) “뿔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9) 감복송아 가지 10)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켜보리라” 11)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는 부글부글 끓는 술물 12)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3) 바빌론의 침공 14) 예루살렘의 몰락을 슬퍼함 15) 유다왕국 16) 이집트 17) 그의 의사와는 달리 반역적인 백성들에 의해 끌려감 18) 바빌론 19) 포로로 끌려감

23

에제키엘의 환상

머리말

대 예언서의 배경을 재고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4권의 대 예언서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언자의 직무와 네 권의 책을 대(Major) 예언서라고 이름 한 이유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에제키엘 1장

1장: 1. 삼십년 되던 사월 오일이었다. 그 때 나는 그밭강 가에서 포로들 속에 끼어 있다가 하늘이 열리며 나타나는 신비스런 광경의 발현을 보게 되었다. 2. 그 달 오일은 바로 여호야긴왕이 사로잡혀 온 지 오년째 되는 날이었다. 3. 그 날 보자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가 바빌론의 그밭강 가에서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는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4. 그 순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막 밀려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어 사방이 환해졌다. 그 한가운데에는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놋쇠 같은 것이 빛났다. 5. 또 그 한가운데는 짐승 모양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 넷 있었는데 6. 각각 얼굴이 넷이요 날개도 넷이었다. 7.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놋쇠처럼 윤이 났다. 8. 네 짐승 옆구리에 달린 네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다. 넷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따로 있었다. 9. 날개를 서로서로 맞대고 가는데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0. 그 얼굴 생김새로 말하면, 넷 다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이 있었고 왼쪽에는 소 얼굴이 있었다. 또 넷 다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었다. 11.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12. 돌지 않고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 부는 쪽을 향해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3. 그 동물들 한가운데 활활 타는 숯불 같은 모양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횃불처럼 그 동물들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그 불은 번쩍번쩍 빛났고, 그 불에서 번개가 튀어 나왔다. 14. 그 불은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였다. 15. 그 짐승들을 바라보자니까, 그 네 짐승 옆 땅바닥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게 보였다. 16. 그 바퀴들은 넷 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17.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8. 그 네 바퀴마다 불쑥 솟은 데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19.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20. 그 짐승들은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21. 그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짐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22. 그 짐승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같은 덮개가 수정같이 환히 빛나며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23. 그 창공 밑에서 짐승들은 날개가 서로 맞닿게 두 날개를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있었다. 24. 짐승들이 나느라고 날개를 치면 그 날개 치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탈소리처럼 요란하였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25. 머리 위에 있는 덮개 위에서 소리가 나면 날개를 접었다. 26. 머리 위 덮개 위에는 청옥 같은 것으로 된 옥좌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높이 옥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27. 그 모습은 허리 위는 놋쇠 같아 안팎이 불처럼 환했고, 허리 아래는 사방으로 뻗는 불빛처럼 보였다. 28. 사방으로 뻗는 그 불빛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마치 야훼의 영광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자, 말소리가 들려 왔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진리를 사용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로부터 진리를 감추신다.
- * 예언자의 환상은 당대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였으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준다.
- *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 죄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상응 연구

거룩들 = 하느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날개 = 세상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드높여 주는 진리

손 = 성취하는 힘
 발 = 행동
 얼굴 = 내적인 인격

해설

유다왕국은 히즈키야왕이 죽은 후 약 1세기 조금 넘게 존속되었다. 그 이유는 히즈키야의 뒤를 이은 왕 중 우찌야만이 유일하게 섰기 때문이다. 또한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계속 전쟁 중이었는데, 유다가 바로 두 나라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유다 왕국을 몰락시킨 것은 바빌론 제국이었다. 다니엘서 1장 3-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왕은 유다를 집어 삼킨 후 성전의 보물과 젊고 총명한 왕자들까지 사로잡아 갔고 그중 한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24장 10-16절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왕비, 내시들, 나라의 권력자들, 칠 천 명의 유력자와 은쟁이 그리고 천명의 대장장이가 그들에 속했다. 에제키엘 역시 사로잡혀간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추정된다. 본문을 통해 그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부자의 아들로 사제였다. 그의 첫 번째 환상은 여호야긴왕이 사로잡혀간 지 오 년째 되던 때 있었다. 그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기 칠 년 전쯤이었다. 본문 1-24절에는 예루살렘의 붕괴에 대해 예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루살렘이 붕괴되던 때 유다의 왕은 시드키야였고,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다. 그는 느부갓네살왕의 꼭두각시 격으로 왕위에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에 반기를 들어 파멸 당하고 말았다. 그 뒤 가난한 지방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혀 올 때에도 에제키엘은 여전히 예언하고 있었다. 그는 약 이십 년 동안 예언한 것으로 추정되며, 포로를 위한 예언자라고 불렸다.

에제키엘서는 기이한 환상들로 가득하여 성경 주석가들을 당혹하게 해 왔다. 이 환상들은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환상과도 유사성을 지니며, 이들에 주석을 붙이거나 응용해 보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스웨덴북을 통해 알려진 상응의 법칙은 위의 두 책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일관적이고 모순 없는 합리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에제키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제키엘에게 기이한 뭔가를 하도록 요구되는데, 그것은 유다의 특징을 상징한다고 말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황폐해짐이 예견되고 있다. 이 후 여덟 장에 걸쳐서는 예레미야서 46-50장과 유사한 타국가들의 심판이 뒤따른다. 43-48장까지는 거룩한 성과 성전의 회복에 따른 길고 상세한 환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에제키엘서는 예언들의 표본 형식인 심판, 즉 악에 대한 경고와 선한 이들에게 한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 또는 짐승이 말쑥에서 “거룩들”로 불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에제키엘은 제 10장 20절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거룩들은 대체로 거룩한 것이 모독되는 것을 보호하시려는 신성한 섭리를 그린다. 창세기 3장 24절의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갈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와 출애굽기 24장 22절의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주리라”라는 구절에서 거룩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룩들은 과거의 교회들이 상상한 것처럼 창조된 천국적인 존재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상징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에제키엘이 본 바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려하거나 실제로 그림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우리는 그가 기록해 놓은 형태의 세부사항을 주시해야 한다. 스웨덴본은 계시록 설명 제 276-86항에서 본문의 환상을 계시록 4장 6-8절에서의 요한이 본 네 생물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에제키엘이 교회들의 거꾸로 된 모습을 점검하여 기록하도록 부름 받았음은 앞서 설명했다. 이렇게 거룩한 것이 모독되는 것을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에 관한 환상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지도록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섭리이다. 환상의 윤곽과 간략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차후 더욱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먼저 폭풍과 불로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한 전체적 인상을 주고 있다. 폭풍과 불이라는 격렬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그 대상이 악을 파괴하는데 있어서 악의 면모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이 후 네 생물이 신성한 섭리를 통하여 주님의 권능과 사랑의 움직임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 뒤따른다. 신성한 섭리가 보호하는 권능은

네 얼굴, 즉 네 개의 양상을 지닌다. 오른쪽이란 명백한 지각의 측면을 말한다. 사람의 얼굴은 신성한 지혜를 그리고, 사자의 얼굴은 권능에서 파생되는 사랑과 진리의 선을 그린다(천국의 신비 제 6367항). 왼쪽이란 오른쪽의 의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희미한 지각을 뜻한다. 그리고 소 얼굴이란 자연적인 선을, 독수리 얼굴이란 “합리성”을 뜻한다(천국의 신비 제 3901-5항). 위의 네 가지 것들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나라에 있는 거룩한 것에 접근 할 수 없다. 날개란 영적 진리들을 그리는데, 이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각을 향상시켜 준다. 날개 밑에 있는 사람의 손이란 진리를 수행하시기 위한 주님의 권능을 그린다. 발(다리)은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내려와 우리의 행동이 진리를 따르게 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는 발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리는 선에 관한 자연성을, 발바닥은 자연성의 최종의 것을 의미한다. 닭아놓은 낫쇠란 자연성 안에 든 선을 의미한다. 바퀴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을 의미하는데, 그 힘이란 이해성을 뜻한다. 우리는 이해성을 수단으로 하여 진리와 올바른 생활 속에서 전진하게 된다.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짐승들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이는 신성한 총명 혹은 예견을 그려 눈이 가득히 박혀 있는 것이다(천국의 신비 제 8215항). 이러한 모든 것들 위에는 옥좌가 있고 그 위에 주님이 나타나고 계신다.

에제키엘에게 인간이 빠져드는 그 깊음을 들여다보게 하기 전, 이런 환상이 주어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유사한 환상은 지상의 황폐해짐을 보도록 요한에게 허락되기 전 그에게 주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진리들은 우리의 거듭남에 응용된다. 주님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에 부딪치는 것을 허용치 않으신다. 즉,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0:31).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시는 능력에 관한 환상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우리 안에 든 깊은 악들을 볼 수 있게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신성한 섭리의 전지전능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 혹은 자신에게 있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 없이 또는 그분의 허용 없이는 모든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허용 뒤에는 언제나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정도의 지식과 확신은 가져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4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2)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3)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4) 에제키엘은 예언의 직분 외에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5) 에제키엘은 포로가 된 후 어디에서 살았는가?
- 6) 주님은 그가 예언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 7) 그가 본 생물은 몇 이었는가?
- 8) 생물들은 몇 개의 얼굴을 가졌는가?
- 9) 생물들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 10) 생물들의 다리(발)는 어떠하였는가?
- 11) 생물들은 날개 밑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2) 생물은 자기 옆 땅바닥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바퀴들은 어떻게 이동했는가?
- 14) 날개 소리는 무엇 같았는가?
- 15) 에제키엘은 생물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 16) 옥좌 위에 누가 계셨는가?
- 17) 에제키엘은 후에 이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18) 거룩들에 관한 구절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 19) 거룩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2) 유다 3) 바빌론 4) 사제 5) 그발

강가에서 6) 환상 7) 넷 8)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0)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돛쇠처럼 윤이 났다 11) 사람의 손 12) 바퀴 13) 생물과 더불어 움직였다 14)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향소리처럼 요란하였다 15) 옥좌 16) 주님 17) 거룩들 18) 에덴의 동산, 증거궤 19) 거룩한 것이 모독되는 것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신성한 섭리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머리말

본과에서는 예언서를 탐사할 것이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과 성경에서 예언서들의 위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흐름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요엘 4장 9-20절 (개역 성경 3:9-21)

4장: 9. “너희는 못 민족을 불러 전쟁을 선포하여라. 장사들을 불러 모으고 군인들을 총동원하여 쳐 올라오너라. 10.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자들까지 ‘나는 용사다’라고 외쳐라. 11. 그리고 빨리 오너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그리로 모여라.” 야훼여, 당신의 용사들을 보내 주소서. 12. “못 민족은 떨쳐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리라. 낫을 대어라. 13.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술틀이 찼다. 독이 차 넘친다. 못 민족의 악이 이토록 극에 달하였다.” 14. 타작 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이 다가 왔다. 15.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그 빛을 잃었다. 16. 야훼께서 시돈에서 고향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시니,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구나.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의 은신처, 이스라엘 백성의 산채가 되시리라. 17.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야훼 너희 하느님으로서 거룩한 산 시온에 머무는 줄을. 예루살렘은 성소가 되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지 못하리라. 18. 그 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즙이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흥건하리라.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흐르고 야훼의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시리라. 19. 그러나 이집트는 썩밭이 되고 에돔은 허허벌판이 되리라. 억울한 유다 백성의 무고한 피를 쏟고 어찌 벌을 면할 수가 있으랴? 20. 내가 그 피 값을 보상하리니 아무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를 심판한다.

- *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살고자 하면 성경으로부터의 계발을 얻게 된다.
- * 말씀에서 배운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 * 이기적인 것들은 들추어내서 자주 점검하지 않으면 더욱 더 이기적인 쪽으로 쏠려 버린다.

상응 연구

누리 = 선을 파괴하는 거짓
 황충 = 감각적인 것에서 나온 거짓
 결정의 골짜기 = 우리의 일상생활

해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열 두 권의 책은 소 예언서로 알려져 있다. William Hayden의 「Our Heavenly Father's Book」에서는 소 예언서에 대하여, “이 예언서들은 한 권 또는 한 두루말이로 히브리 정경에 놓여있다. 이는 각 권이 짧아서 편리를 위해 한 곳에 모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소 예언서는 이사야서나 에제키엘서와 같은 책 한 권보다 약간 두툼할 뿐이다. 소 예언서가 구약 성서의 마지막에 놓인 이유는 내용의 가벼움이나 그 책이 후기에 기록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우찌야왕 시대인 기원전 800년대에 속하고 가장 늦은 것은 느헤미야 시대인 기원전 433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들이 성서에 놓인 순서는 각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 혹은 책이 기록된 역사적 연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상당히 근접하다.”라고 설명한다. 학자들은 소 예언서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책들을 역사적으로 배치하려거나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적 사건과 예언서의 서술을 연관시켜보려고 했을 뿐이다. 반면, 독실한 성경 애독자들은 그 책들 안에서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된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하느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다고

한다. 수많은 예언자들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각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대변해 왔지만 예언자들의 이름은 그들의 임무가 완료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말씀에 게재된 예언자들은 이와 다르다. 그들의 메시지는 당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 예언서의 구절들로부터 상응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공부하면, 우리는 기대했던 이상의 가르침으로 보상받게 된다. 그 예가 바로 요엘서이다. 요엘서는 짧아서 4장(개역 3장)으로만 이뤄져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느 연대에 배치되어야 할지 뚜렷하게 서술되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이다. Hayden에 의하면, 요엘의 이름은 두 개의 신성한 이름인 Jehovah와 Elohim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를 뜻한다고 한다. 요엘은 주님의 예언자였다. 그의 출생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브두엘의 아들로 유다에서 살았고, 예루살렘 혹은 그 근방에서 예언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책의 연대를 서기 전 800년대 유다의 우찌야왕 통치 시대로 추정한다. 요엘은 이사야,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와 동시대 인물로 추정된다. 그의 책은 하나의 연속적인 예언이다. 그는 메뚜기 떼와 해충들이 그 땅을 엄습해 모든 것들을 먹어치워 황막하게 된 모습으로 당대의 황량해진 도덕성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심정과 지성 속의 악과 거짓들이 인간속의 모든 선한 기질과 진정한 생각들을 파괴시켜 교회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영적인 것들이 파괴되어버린 명목상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는 회개를 권유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파괴하고 황폐케 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오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주님은 장차 새교회를 건설하여 비옥한 땅을 진실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이에 대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예언자의 입을 빌어 말해진 주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어보면, 요엘의 예언이 신약성서에서 인용되어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요엘서가 정경으로 취급된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요엘서가 우리 삶에 응용되어야 함은 앞서 언급했던 피상적인 의미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북은 강조하기를 교회의 상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교인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에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의 소리는 교인 개개인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인 한명 한명이 가장 작은 형태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인들은 스스로를 좀먹어 가는 메뚜

기와 같은 해충들을 보고도 우선은 급하지 않으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있게 되는 해충들은 거짓된 생각들을 의미하며, 그것들은 인간의 심정 속에 선한 것이 발달되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즉,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밭에 풀 한 포기 남지 않듯이 거짓 생각들은 천국에서 오는 진리의 빗방울이 인간의 지성의 땅을 적시우기도 전에 막 자라나는 선의 싹들을 모두 먹어 치워 버린다.

요엘은 이로 인해 초래된 허전함, 외로움 혹은 마음의 황폐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불행한 경향성들을 점검하도록 해 주심도 당부하고 있다. 이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요엘서 2장 23-27절의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대상은 자기반성을 통해서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친 후 주님의 힘을 입어 과오들의 근본이 되는 악과 싸워 보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이다.

본문은 요엘의 메시지 중에서도 절정부분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내적 의미에서의 본문은 우리 속에 있지만 아직은 그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악들에 대항하기 위해 진리의 군사를 총동원하라는 긴급하고 절박한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다. 주님의 날 혹은 야훼께서 거둥하실 날은 글자대로 보면,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오심이 고대 유대교회에 있을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유대인의 수확절(성신 강림절)에 성취된 것으로 간주함을 주목해야 한다(사도행전 2:16-21). 또한 우리는 모든 메시아적인 예언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의미를 지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한 인간의 삶에 탄생하실 때 그에게 거듭나는 때가 있는 것같이 그에게 마지막 심판이 거행되는 때도 있게 된다.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 키웠던 씨가 충분히 여물어서 땅에 떨어지는 때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를 말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0596항에서 “사후 인간의 생명은 그 인간 속에 든 사랑과 믿음이 생명이 된다. 이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룩한 사랑과 믿음이 사후의 삶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이룩한 각자의 사랑과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지옥의 삶은 세상과 자신만을 사랑했던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천국의 삶은 주님만을 사랑하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 온 이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믿음을 지니고 있으나,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이들은 진정한 믿음을 지닌 것이 아니다. 이는

천국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고 지옥의 삶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은 아주 직선적이며 명확하다. 이 세상은 우리의 권리인 선택을 만드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선택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요엘은 우리가 선택을 중단할 수 없음을 지적해 준다. 선택은 매 순간 이뤄지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속된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결정의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 언급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심판에 관한 비유로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37절에서는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42-51절을 읽고 본 반의 공부를 마무리 하도록 하자.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 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종은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일 악한 종이어서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자르고 위선자들이 벌 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2) 소 예언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3) 왜 소 예언서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4) 소 예언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 5) 우리는 그 책들이 영감된 것임을 어떻게 아는가?

- 6) 소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
- 7) 소 예언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8) 요엘서는 소 예언서의 몇 번째 책인가?
- 9) 요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요엘은 우리의 심정 속의 악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 11) 그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불렀는가?
- 12) “결정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 타작 수레 골짜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주님의 날에 악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4) 주님의 날에 선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5)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2) 열 두 권
- 3) 각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 4) 구약 성서의 맨 끝부분
- 5) 각 책 모두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 6) 호세아 7) 말라기
- 8) 두 번째 9) 3장(공동번역 4장) 10) 해충
- 11) 주님의 날 12) 우리가 죽을 때 13) 우리의 일상생활 14) 지옥
- 15) 천국 16) 우리가 스스로 매일 선택하여 영원히 지니게 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25

요나와 큰 물고기

머리말

먼저 소 예언서들의 배경을 살핀 후 요나서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본다.

성서본문: 요나서 1, 2장

1장: 1. 야훼의 말씀이 아미때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3.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다르ś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거기서 다르ś으로 가는 배를 만나 배 샅을 내고 남들과 함께 배에 탔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4. 그런데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5.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 가 누워 잠들어 있었다. 6.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여나 살려 주실지 아느냐?” 7. 한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누구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 보니 요나가 나왔다. 8.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디에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9. 그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10. 그리고 자기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곡절을 알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며 몹시 두려워했다. 11. 바다는 거칠어져만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다. 12.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13. 바다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사람들은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14.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다 뜻이 있으시어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15.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다. 1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훼께 제물을 잡아 바친 후에 다시 서원제물을 드리기로 하였다.

2장: 1.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2.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 야훼께 기도를 올리니, 야훼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뱃속에서 내게 하셨다. 3. 요나가 입을 열었다.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느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4.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바다 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밀려 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5. 하느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6.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7. 저 땅 밑 멧부리로 빠져 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 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 내셨습니다. 8.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야훼님을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느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9.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10.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이 야훼밖에 없습니다.”

교리 요점

- * 우리의 마음이 단혀서 배움을 거절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는 것을 허용하신다.
- * 교리란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의 또 다른 이름이다.
- * 상대방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용 연구

배 = 일반적인 교리
바다 = 모든 기억된 지식들
물고기 =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애착

해설

요나서는 열 두 권의 소 예언서 중 다섯째에 해당되는 책이다. 그러나 요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이른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살았고 즈불론 지파 영토인 갓헤벨 출신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요나는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요엘과 부분적인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은 예언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예언들 중에서 요나서에 기록된 특별한 이야기만이 말씀의 일부가 되도록 선택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8-41절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계신다. 스웨덴본은 계시록 설명 538-11항에서 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지옥과의 전투와 그에 대한 승리를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요나서는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담은 예언서로 분류될 수 있다.

요나서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스웨덴본은 그의 시편과 예언서의 요약에서 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요나의 부름과 그 부름을 받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변 국가들에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으나,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씀을 자기 민족 내에 국한시켜 두었다”고 한다(1:1-3).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 있었던 국가적인 자존심과 적대 국가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요나의 불순종을 개탄하기보다는 요나의 애국심을 칭찬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본은 제 2장에 관하여, “주님의 지옥과의 전투에 관해서, 그 전투에서 겪어야 했던 그분의 쓰라린 시험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때 그분의 상태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스웨덴본

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간의 주야는 주님께서 지옥과 겪은 모든 전투기간이라고 말한다.

요나는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예언자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악한 왕으로 알려진 여로보암 2세까지도 그의 말을 조심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대답하게 전하는 장점을 가졌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의 악한 부분을 들춰내시고 스스로가 선한 인격자라고 생각하는 요나 속의 높은 곳에서 그의 마음을 끌어 내려주심과 더불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그를 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즉,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룬 선행이나 선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고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르셋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가 지불한 배 값, 즉 그가 산 배표란 그가 선택한 삶의 철학을 표현한다. 배란 사고의 체계를 표현한다. 따라서 배 값의 의미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억지에서 자신을 빼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의 당위성이다. 요나는 곧장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기심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악을 은근히 모르는 척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악은 마치 제 골육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 악을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 악에 대항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은근히 모르는 척 하지 말라는 뜻이다. 주님은 우리 안의 잘못된 것을 정당하게 직시하는 대신 배 밑창에 누워 잠든 요나와 같이 핑계 속에 감춰 두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춰 두고 모르는 척하면 결국 요나의 배처럼 폭풍을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가 판단하는데 우리의 삶을 맡김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비는 과오를 감추고 있던 요나에게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된 악이나 과오를 꺼내 놓고 검사하여 심정 밖으로 던져 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의미이다.

요나가 바다 속으로 던져짐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보고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고 받아 들인 진리를 믿고 삶에 적용하려는 것이 바로 큰 물고기에 해당된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와 그 승리를 의미한다. 요나가 이러한 특별한 경험으로 자신의 약함과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듯이 우리 역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휘하고 통제하시는 신성한 섭리를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한다. 요나가 참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른 땅으로 토해 내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참된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게 됨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우리가 공부하는 소 예언서는 어느 책인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3) 어느 성경책의 구절에서 요나의 신변이 확인되는가?
- 4) 주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5)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 6) 왜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가?
- 7) 그는 어떻게 순종을 피하려고 했는가?
- 8) 그가 탄 배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선원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기로 했는가?
- 10)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어떠했는가?
- 12)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는가?
- 13) 요나의 기도 종류는 무엇인가?
- 14) 그는 기도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 15) 그는 고기 뱃속에서 내뱉어지자 무엇을 했는가?

- 16)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17) 주님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그린다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요나(다섯 번째 책) 2)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3) 열왕기하 14:25
 4)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 5) 아시리아의 수도 6) 너무 거만해서
 7)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탐으로써 8) 폭풍을 만났다 9) 제비를
 뽑아서
 10)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11) 잠잠해졌다 12) 3일 13) 감사기도
 14) 하느님께 순종하기로 15) 니느웨로 갔다
 16)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 것과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 17)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26

주님의 세례

머리말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네 복음서는 네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장

1장: 1.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3.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5. 그 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 꿀을 먹으며 살았다. 7.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9.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2.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께서는 사십 일 동안 그 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16.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17.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샅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21.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 가 가르치는데 22.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 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24.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25.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26.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 갔다. 27.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을 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8.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래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29.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 가셨다. 30.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31.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 왔으며 33.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36. 그 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37.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이렇게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40.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1.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42.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왔다. 43.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44.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45.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거룩한 땅에 살았기 때문이다.
- *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시켰고 신, 구약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 *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들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그것들을 죄처럼 멀리해야 한다.
- * 진실로 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상응 연구

세례 = 진리에 의거하여 삶을 깨끗이 함

요르단 = 입문적인 진리

비둘기 = 믿음의 거룩함

해설

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구약 성서와 연결 짓고 있다. 마태나 누가는 주님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예언의 완성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오심이 태초로부터 있어 왔던 모든 것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주님의 오심이 구약성서의 마지막 예언의 완성임을 보여준다.

네 복음서들은 상호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모두 같은 하나의 사실, 즉 주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루나 각기 다른 견해로 그것을 다루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나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본장의 주제는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주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생략했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음서의 기자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받아쓰도록 영감을 주셨지만 그것은 모두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즉, 네 명의 기자들은 모두 주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이 될 기록을 하도록 했으나 주님께서 그러한 작업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열정에 따라 이뤄지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기록할 때 마가의 마음이 주님의 공생애 동안의 경이로운 일들로 충만했으리라는 점이다.

마가가 주님의 열 두 사도중의 한 명이 아닌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사도행전 12장12절을 통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모였음을 알 수 있다. 마가가 많은 기독교인들과 친분이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마가의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다. 마가, 영어로 Mark란 라틴어 Marcus에서 유래된 것이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이민족들의 소년들은 로마식 이름과 그들 고유의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마가가 바울과 바르바나의 전도여행을 돕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디모테오 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상당히 아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 그가 바빌론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음도 알 수 있다. 마가가 주님의 생애에 관한 대부분의 지식을 베드로에게서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우리가 마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갖게 되는 첫인상은 주님의 모습이 대중에게 불현듯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충격적인 장면이다. 마가는 말라기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면서 주님과 예언자 말라기 사이에 있는 사 백년의 세월을 잇는 다리를 놓는다. 말라기는 특별히 강림의 특사에 관해 언급한다. 마가는 특사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강조한다. 말라기는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예언했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아와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는 엘리아처럼 광야에서 생활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두려워했다고 마가는 6장20절에 기록하고 있다.

광야에서 살며 회개를 외치던 요한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를 여행하던 모습과 비교된다. 요한의 외침의 목적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음을 떠올리면, 이것이 광야여행을 거쳐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 이르게 된 것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거듭나는 삶을 위해 이러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내 안의 악들을 보고 주님의 힘만이 이러한 악들을 물리칠 수 있으심을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라기 4장 6절(공동번역 3:24)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심이 세상에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웨덴북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하는 바는 주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에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재확인 될 수 있다. 삶을 통해서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 자세가 스스로의 악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뜻한다.

세례자 요한의 등장 이전의 성경에는 세례라는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물로 씻는다는 것이나 물로 정화함 등이 그들의 전통에 있어서 익숙한 표현들이었다. 세례가 기독교인들에 아주 중요한 종교의식이 된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셔서 본을 보이시고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마태복음 28:19). 세례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함을 상징한다. 거룩한 땅의 경계인 요르단 강의 상류에 교회에 입문적인 진리임을 기억한다면, 요한이 세례를 요르단 강에서 행했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가는 세례자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주는데 있어 주저하는 모습 또는 그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마가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세례 받으러 왔던 나자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후 놀라운 이적을 보이면서 구세주로 등장하는 장면을 간략하면서 강한 인상을 주며 묘사하고 있다. 마가에

의하면,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고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질문 정리

- 1) 구약성서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신약성서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특징 지워 구분되는가?
- 3) 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되었는가?
- 4) 어떤 세 명의 예언자가 귀환 후 예언했는가?
- 5) 예언 중 마지막 예언의 책은 무엇인가?
- 6) 말라기의 예언 후 주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는가?
- 7)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왜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8) 복음서는 몇 권인가?
- 9) 주님은 왜 그분의 생애에 관한 사건을 몇 권에 걸쳐 우리에게 주셨는가?
- 10) 마르코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자.
- 11) 마르코는 주님의 생애 중 어느 시절부터 기록했는가?
- 12)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1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14)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 15)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 16)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17) 세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누가 나자렛으로부터 세례 받으러 왔는가?
- 19)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마자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 20)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이 제자라고 부른 첫 네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역사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3) 가나안에 유대주의의 재건설
- 4) 하깨, 즈가리야, 말라기 5) 말라기 6) 약 사 백년 7) 예언이 없었기 때문
- 8) 네 권 9) 상호 보충해 주기 때문 10)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며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음, 베드로와 함께 여행했음 11) 주님의 세례 12) 말라기의 예언
- 13) 광야 14) 낙타 털옷, 가죽 허리띠 15) 메뚜기와 들꿀 16) 회개하라
- 17) 주님의 진리로 삶을 깨끗하게 살아냄 18) 예수 19)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
- 20)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21) 시므온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27

새 포도주

머리말

본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상기해 본다. 기적들에 관한 것과 주님의 공생애는 설교와 가르치심 그리고 병 고치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재 언급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그분의 능력의 표시임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2장

2장: 1.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2.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3. 그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4.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다. 6.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7.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며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하는 것과 ‘일어나 네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 가거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10.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11.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12.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3.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13. 군중도 모두 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갔다. 15.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하고 물었다.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하고 대답하셨다.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다. 19.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칫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20.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21.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썩어져 더 찢어지게 된다. 22. 또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그 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24.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25.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27.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8.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적들을 행하셨다.

- * 주님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기중심적 해석에 대해서만 파격을 보이셨다.
- * 인간이 기적으로 고쳐지려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Faith had to be present if a man was to be healed by a miracle)
- * 안식일에 선을 행함은 옳은 일이다.

상응 연구

중풍병 = 의를 행하는데 있어서의 무기력함
 단식 = 시험 속의 슬픔
 병(가죽부대) = 진리를 담게 되는 바깥쪽 형태

해설

마가복음 제 1장에서 공부했던 바대로 마가복음서는 주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되며 주님의 출현이 갑작스러운 일처럼 기록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민중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는 새로운 예언자에 대항하려는 바리사이 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을 보다 사실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엘리야처럼 털옷을 걸쳤다. 하지만 그는 특별히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의 기득권을 간섭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그들에게도 예언자의 주장으로 인정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백 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예언자의 출현과 그의 예언은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믿었던 종교의 정통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매우 특별한 인물처럼 보였다. 그는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예수라는 인물을 제거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마가복음 11장 29-32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고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요한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를

비판하는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스웨덴볼에 의하면, 주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행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적이 행해진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자유가 간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매우 무뎌져서 기적을 본다하더라도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영향이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코라진아, 너는 화를 입으리라. 베싸이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게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서 재를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누가복음 10장 13절).” 그러나 바리새이 파인과 율법학자들은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하고 떠들었다(3장 22절).”라고 함으로서 주님에 대한 강한 부정과 거부를 나타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된다. 주님은 병든 자, 불구자 또는 귀신 들린 자 등 아프고 병들어 힘든 이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정상태에 있는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은 원칙적으로 말씀의 기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기적들은 주님이 우리 영혼에 수행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치료에 대한 섭리를 상응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본문에서 수행된 기적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을 때” 행해진 첫 번째 일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의 첫 관심사는 언제나 인간의 믿음 상태이며 다음으로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다. 이 후 주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되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뒤”에야 있어지는 것이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믿음은 가졌으나 걸을 수 없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중풍병자를 찾아보자면, 올바르게 살 결심은 있으나 의지가 약하여 선의지를 삶에서

수행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는 그러면서 많은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의 나약함과 나태함을 지지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의 중풍병자가 요에 누워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주님을 먼저 신뢰해야한다. 둘째, 자신의 과오들이나 속에 든 악함이 모두 자신의 것이며 타인이나 다른 요인들 때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의 주제는 주님이 어떻게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부딪치시는 것인가이다.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죄를 용서하는 주님의 권능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물리적인 기적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침묵하게 했을 뿐이다. 주님이 제자의 한 사람으로 그들이 경멸했던 세리인 레위(마태오)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회를 포착했다.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새로이 등장한 예수라는 예언자는 그들의 규정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상당히 위협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주님의 답은 과거 니느웨로 가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거절할 때의 요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주님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이 그들의 계급과 그들 민족외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얼마나 얽잡아 보며 거만하고 완악했었는지는 마태복음 23장 13-33절에서 주님이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는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주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사도행전 10:34).” 그리고 우리는 겸손과 주님을 필요로 함을 인식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답에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의 꼬투리를 잡을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며 주님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즉, 요한의 제자들이 단식한다는 것을 주님께 상기시켜 공격을 가해보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단식에는 그것의 바른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이를 상실한

것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스웨덴북은 단식이 슬픔을 뜻한다고 말한다. 주님 자신도 광야에서의 사십 일 동안 단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기쁨 안에 있는 것이다. 기쁨이 있는 그들이 슬픔을 의미하는 단식을 한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실체와 그림자 사이의 차이점은 안식일의 준수에 관계되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판에 대한 주님의 답으로 설명되고 있다. 주님은 단식 혹은 안식일의 어떤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다만 그것들이 때와 방법을 가려 준수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개개인의 영혼은 이러한 것들을 준수함이 명령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진정한 의미의 단식과 안식일의 준수가 인간의 영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안이 텅 빈 껍질에 불과하여 영적 삶이 없는 교회에 대한 표현일 뿐이었다. 주님은 교회의 회복 그리고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율법과 예언들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인간 앞에서 살아내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다. 기존의 바깥 형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인간에게 가져오신 새로운 영적 힘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기독교인을 위한 세례식은 고대 유대교회에서 깨끗케 함을 새롭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성찬식은 제물과 축제를 통해서 그분을 예배하던 것이 성찬으로 대체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계명이 신성한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에 있는 대부분의 축제와 시민법들은 글자 그대로의 적용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새 포도주”, 즉 신성에서 나온 새 진리를 가져 오셨다. 이 진리는 표현의 새 형체인 “새 병(부대)”을 요구했다. 그분은 두 번째로 오셨을 때 다시 “새 포도주”를 가져오셨지만, 옛 형체는 새것을 담지 못했다. 열려진 말씀 속에서 밝혀진 새 진리는 주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진리는 어느 교회의 형체나 테두리 내에서 적당하게 담겨져서 살아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종교에 속해 있다가 저 세상에서는 새교회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상에서 속했었던 종교에 이미 속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이미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새 포도주를 땅에 흘려버리지 않고 잘 보존하려면 이를 위한 특별한 형체(새교회), 즉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 2)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3) 첫 네 제자들은 누구누구인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 5) 주님은 어디서 설교하셨는가?
- 6) 주님의 시대 때에 거룩한 땅은 어떤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는가?
- 7) 그 구역 중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8) 주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어느 구역에서 있었는가?
- 9) 공생애 동안 주님은 어디서 사셨는가?
- 10)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이 기술되고 있는가?
- 11) 중풍 병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는가?
- 12) 주님은 그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 1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중 누구를 부르셨는가?
- 14) 그 제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란 어떤 이들인가?
- 16) 사람들은 왜 세리를 멸시했는가?
- 17) 본문에서 주님에 대한 첫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8) 두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9) 주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20) 세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2) 안식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비둘기가 나타났다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4) 전도, 가르침, 병 고치심 5) 회당 외 많은 곳에서 6)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대 7) 유대 8) 갈릴래아 9) 가파르나움(갈릴래아 해변가) 10) 중풍병자를 고치심 11) 요에 뉘여서 들고 왔다 12) 그의 죄를 용서하심 13) 레위(마태오)
- 14) 세금을 거두는 자 15) 바리사이파인 - 율법주의자, 율법학자 - 성경을 베끼는 이들 16)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임 17) 세리들과 식사하셨기 때문임
- 18)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았기 때문임 19) 공존해야 할 필요성 20) 안식일을 주님이 깨트렸다고 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해서) 21)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이다”
- 22) 예베드리고 주님에 관해 배우며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28

열 두 사도

머리말

27장에서 공부한 안식일에 관한 것을 상기하면서 본장을 시작한다.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재고한 뒤 본문 서두의 기적을 그 예로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3장

3장: 1.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 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지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하시고 4.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6.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 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래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과 예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 왔다. 9.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 하라고 이르셨다. 10.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11.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14. 예수께서는 열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15.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였다. 16. 이렇게 뽑으신 열 두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과 17.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케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혁명당원 시몬, 19.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20.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 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 온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는니 하고 떠들었다. 2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25.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갈 수 없다. 26.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27.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 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28.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31. 그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들여 보냈다. 32. 둘러 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하고 반문하시고 34. 둘러 앉은 사람들을 돌아 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35.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교리 요점

*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예비해두신다.

- * 말씀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교회가 말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 * 믿음은 이해함 또는 생각 평면에 속한다.
- * 선행은 심정 또는 의지 평면에 속한다.
- * 심정 속에 든 이기적인 욕망들은 외적인 선행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적) 선행을 파괴시킨다.

상응 연구

산 = 사과의 놓은 평면

베드로 = 믿음

야고보 = 사랑 또는 선행

요한 = 사랑에서 나오는 선한 삶 또는 이타에로부터 비롯된 선

해설

세상에 오셔서 있어진 주님의 삶과 가르침은 고대 유대 교회에 종말을 고하고 기독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 서기관이나 바리사이파인들은 쇠퇴하는 유대 교회의 대변인들이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고집스럽고 맹목적인 거부였다. 본문 제 5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이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완고함”라는 단어는 “눈먼 또는 무분별함”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사실은 꽤 흥미롭다. 심정의 눈이 멀었다 함은 이기적인 의지로 인해 진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절이 바로 제 29절에 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이다. 서기관이나 바리사이파인들의 비판은 더 이상 언쟁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그들의 말문을 막는 진리를 가지신 주님에 의해 항상 좌절되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꺾으려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6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즉시 나가서 헤로데 당원들을 만나 모의 했던 사실로 입증된다. 당시 헤로데 당원들은 바리사이파인들의 정적이었다. 그들이 정적들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다는 것은

주님을 침묵케 할 어떤 합법적인 수단도 그들에게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대교 말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 의해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손이란 힘을 상징한다. 원인에 관계없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진리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상징한다. 뭔가를 오그라들게 하는 원인은 물의 결핍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물은 진리와 상응된다. 당대 백성들은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로 인해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에 결핍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선을 행할 힘 자체를 상실해 버린 것이다. 주님은 이에 대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외치신다. 본문에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고 선한 삶을 꾸리기를 바라는 이들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군중들로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닷가(호숫가)에 계신 주님께 밀어닥치듯이 몰려들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군중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만을 마음에 두고 있을 뿐 주님이나 타인을 염두 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터라 치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모두 그분께 몰려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바닷가에서 치료해 주시며 가르치셨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남녀노소와 교육 그리고 직업을 불문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실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해 두셨던 진리를 우리의 지성에 불러 세우실 수 있으시다. 제 11절은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예증된 진리, 즉 지옥이나 악령이 주님의 면전에서 설 수 없다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인정할 때만이 악의 의지를 저항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주님과 더불어 산에 올라간 이들은 그들이 당면한 육체적 고통이나 세상적인 재해에서 구해지는

것 이상의 것을 원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그분에 관해 배우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중에서 그분의 사도들을 발견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그들 중에서 그분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해 줄 능력을 가진 이들을 보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들에게 행하도록 주어진 모든 능력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 후 사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기독교회를 건설했다. 그들이 전파한 복음은 곧 주님의 생애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이 수행한 기적들은 모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이뤄졌다. 오늘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오류중의 하나는 기독교회의 시작과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들이 모두 사도들의 취향과 기억에 의한 것이라는 추론이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역사적인 것과 고고학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복음서의 신성을 부정하는 추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이 주는 피해를 미리 인식하고 그들의 추론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열 두 사도들은 모두 달랐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의 경우와 같이 그들은 “복합체 안에 든 믿음과 사랑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AC 9643-4).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상응은 수차례 기술했던 바대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사랑의 삶 또는 이해성안의 진리와 의지속의 사랑 그리고 행동으로 완성된 진리이다. 계시록 설명 제 821-3항을 보면, 안드레아는 믿음으로 복종함과 상응함을 알 수 있다. 안드레아와 요한의 차이점은 안드레아는 진리의 선을 상징하고 요한은 사랑의 선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유다는 고대 유대 국가를 표현한다(AE 740-8).

그 외의 사도들은 스웨덴봄의 저서에서도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다. 필립보의 고향은 베싸이다이며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언급된다. 주님께 나타나엘을 데려오는 모습(요한복음 1:43-46), 오천 명을 먹이시는 모습(요한복음 6:7), 그리스 사람 몇을 주님께 접근 시켜주는 모습(요한복음 12:20-22)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8-11절에서이다. 즉,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신다면”이라고 묻는 구절인데, 필립보의 이러한 요구로 인해 신약의 주님과 구약의 여호와와의 동일성에 관한 뚜렷한 서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바르톨로메오란 “달매(Tolmai)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47-51절에 있는 나타나엘과 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바르톨로메오가 열 두 명의 목록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타나엘의 고향은 갈릴래아의

가나로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몇 명의 사도들에 포함되어 있다. 이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때다. 토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진 말, 즉 “의심 많은 토마”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24-2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 더뎠기 때문이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11장 16절 과 14장 5절도 읽어 보도록 하자. 두 번째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로서,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다. 이 야고보는 주님의 부활 후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타대오는 레비아스(Lebbaeus, 마태복음 10:3)의 다른 이름인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야고보의 형제임을 명시해 주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그는 가리옷 사람이 아닌 유다로서 서간집 중 유다서를 쓴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나안 사람 시몬은 혁명당원 시몬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그가 당시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유대민족 주의의 재 건립을 꾀했던 인물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중풍으로 앓는 이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 주셨는가?
- 2)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행해야만 하는가?
- 3)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가?
- 4)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결점을 주님께에서 발견했는가?
- 5) 주님은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6) 주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7) 5번 질문에서 주님이 의미하신 바는 무엇인가 ?
- 8) 본문에서 병 고치는 기적은 무엇인가?
- 9)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병 고치심에 불만족했는가?
- 10)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주님께 대한 음모를 꾸몄는가?
- 11) 주님은 군중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 13) 주님은 몇 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 보자.
- 16)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17) 서기관들은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18)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 19)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 20) 주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찾는다고 전해 들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왜 주님은 가족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셨는가?

질문의 답

- 1) 죄를 용서하심 2) 일어나서 요를 걷어 걸어감 3) 마태오(레위)
- 4)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깨트린 것
- 5) 새 그릇이 필요하다 6) 옛 사상과 새 진리는 공존할 수 없다.
- 7)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8) 오그라진 손을 펴주심
- 9) 안식일,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 받았다 10) 헤로데 당원 11) 바닷가 12) 산
- 13) 열 둘 14)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냄 15) 본문 참조
- 16)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음 17) 악마(베엘제불)
- 18) 우리의 악을 질책하는 진리를 거절함
- 19)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만들기 때문
- 20)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21) 주님은 그들이 온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머리말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 전체가 비유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본문의 첫 비유를 풀이하셨음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4장

4장: 1.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2.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6.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삼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백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예수께서는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하고 말씀하셨다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 준다. 12.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 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13.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15.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췌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6.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17.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8.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 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1.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22.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 어라.” 24.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 주면 달아 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덩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25.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27.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맺힌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31.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32.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써 말씀을 전하셨다. 34.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35. 그 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 갔다. 37.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 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고물을 베개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하고 부르짖었다.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40.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나?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하고 책망하셨다. 41.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교리 요점

- * 모든 말씀은 비유이다.
- * 더 나은 삶 곧 선한 삶을 위해서 진리를 원하는 자들만이 주님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 지상의 삶이 끝난 후 가게 되는 영원한 고향은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심정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 사랑 중 어느 쪽이 주도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상응 연구

씨 = 말씀에서 나온 진리들

해설

본문에는 주님의 비유 중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 씨 뿌리는 사람과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읽을 수 있으나, 은밀히 자라나는 씨에 관한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비유라고 간주되는 이야기는 구약성서에 10개와 신약성서에 36개가 있다. 그러나 본문에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새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일반적인 견해보다 더욱 폭넓게 이해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새교회는 말씀의 모든 것이 비유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본문 11-12절에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밝혀져 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주어진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제 25절에서 말하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도 일맥상통한다. 스웨덴북은 [성경에 관한 교리] 제 50-61항에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 50-61항은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는데, 이는 말씀의 내용 중 일부를 문맥에 상관없이 떼어내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뜻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7항에서는 “깨달음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며,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존재한다. 이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삶을 위해 진리를 활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된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 25절의 가진 사람이다. 즉,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 들여야만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 60항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반대되는 것들은 거짓된 종교의 원리로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행해지게 된다. 더욱이 거짓 원리는 말씀을 읽고 확증되며 자신의 명예나 세상의 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한층 더 악화된다. 인간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은 각자의 자아가 거짓된 것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아란 자아사랑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자기 총명에 의한 기만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음을 익히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보더라도 삶에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없도록 하여 우리를 지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12절의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이라는 구절의 의미이며 말씀을 비유로 주신 첫 번째 이유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스웨덴북의 저서 중 [성경에 관한 교리] 51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많은 진리들이 단순한 사람들, 즉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들어 울리지 않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수준에 따라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사람들

중 군중들에 해당된다. 군중들이란 어린이들도 포함되며, 스웨덴북이 가끔 언급하는 “단순히 선한” 성인들도 포함한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함은 본문에서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설명하신 것에서 잘 드러나 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씨 뿌려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에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씨와 씨뿌림 그리고 땅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공부를 단순히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주님은 스웨덴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서 말씀을 여심으로서 누구라도 말씀의 깊은 의미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본문에는 씨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더 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읽기에 앞서 21-24절의 경고를 먼저 읽도록 섭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리의 씨를 자신의 지성 속에 받아들이고 삶에 활용하여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려면, 우리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투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어두운 구석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아성찰과 자기수련을 기꺼운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자신 안의 악들을 제거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여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진실만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의 삶을 통해서 이룬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저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인격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할 수 없게 된다.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비유는 아무리 작은 진리라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받은 것이라면 그 안에 굉장한 능력이 보유되어 있어서 성장하게 되면 장차 매우 유용하다는 뜻이다. 겨자씨는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심을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란다”고 말해지고 있다. 여기서 푸성귀는 창조의 이야기에 있는 푸른 움을 의미한다. 지상에 있어진 첫 식물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선과 진리의 작은 시작을 의미한다.

본문은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로 끝맺고 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제 38절의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고물을 베게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이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는 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곤란이나 역경에 처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는다고 여겨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사실 주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풍랑에 의해 배가 뒤집힐 것 같았을 때 주님 역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것과 같은 것이다. 본문에서 뱃고물을 베게 삼아 잠들어 계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 한 곳에서 우리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실 뿐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임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며 폭 잠드시는 일이 없으시다. 주님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주님이 잠들어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잠든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분의 능력을 쓰시기를 원하나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풍랑이 닥치자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주님을 깨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심한 풍랑이 몰아닥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라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는가?
- 3) 주님은 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 4) 본문의 비유 중 셋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씨란 무엇인가?
- 6)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7) 주님은 등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9)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 10) 우리가 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11) 곡식은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가?
- 12) 누가 곡식을 자라도록 해 주는가?
- 13) 주님은 겨자씨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이 씨와 연관 지어 볼 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진리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질문의 답

1) 감추어진 의미를 가진 이야기 2) 구약성서에 48개, 신약성서에 40개 3) 처음에는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같이 보이나 나중에는 진리를 더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씨 5)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 진리 6) 각기 다른 마음 7)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져야 한다 8) 계발시켜 주는 진리 9) 자신의 결점을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10) 사용 안 된 것은 빼앗긴다 또는 등불이 꺼진다 11)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찬다.” 12) 하느님 13)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14)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 들일 만큼 된다.” 15) 어떤 진리는 처음에 우리에게 하찮은 진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가 차차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둥이 된다.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머리말

본장의 핵심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구절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근원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음을 인식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우리는 본문의 기적을 공부할 때 기적이 베풀어진 사람들은 치료를 위한 충분한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권능이 베풀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무관하다는 것과 믿음을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5장

5장: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매어 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5.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찧곤 하였다. 6.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 가 그 앞에 엎드려 7.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8.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9.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사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는 놓아기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12.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13.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14. 돼지 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15.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16. 이 일을 지켜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17.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19.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하고 이르셨다.

20.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22. 아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 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시었다. 24.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 대며 따라 갔다. 25.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27.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 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 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35.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 오지 못하게 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집 안으로 들어 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 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쿨”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마지않았다. 4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 * 이제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악령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상응 연구

요르단 건너 동쪽 지역 =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상태
 돼지 = 탐욕에서 오는 즐거움
 주님의 걸 옷자락 = 십계명

해설

본문은 우리에게 기적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말씀을 위해서였다. 주님은 기적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심으로써 영적인 건강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권능이 그분께 있음을 밝히 알도록 하셨다.

본문 서두에서 주님은 갈릴래아 바다를 건너 게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요르단 강 건너 지역이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란 삶을 의미한다. 악마에 사로잡히는 것은 주님의 시대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더욱이 당대에는 악의 권세가 강하여 그러한 상황에 강제로 빠지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주위에 천사와 악령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악령은 언제나 악한 생각을 그럴듯한 것처럼 속삭이고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을 휘저어 놓으며 이기적인 욕망들을 부추긴다.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이 기억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언젠가 느꼈던 선하고 온화한 느낌들을 되살려 주려고 애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 또는 선과 악, 즉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순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자신의 인격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시대에는 진리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거짓과 혼합되어져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야할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의 균형이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악령이 누구라도 사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라는 구절을 근간으로 본문에서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의 본성이 섰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악령에 사로잡힌 주님 시대의 선한 사람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와 같은 상태로 살았다. 이것은 그가 어떤 때는 생각의 높은 차원에 이르러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을 하다가도 곧 어둠이 내리면 아주 낮은 본성에 의해 지배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스웨덴붉은 묘지란 그 속에 죽은 자들의 뼈와 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결함 또는 지옥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워 그를 묶어 보았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어 버렸다. 이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충동적인 열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보통 사람처럼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악이 항상 그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을 다시 깨트려 버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깃 찢곤 하였던 것인바”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결국 불행과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 들린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그분은 악령이 그에게서 나오도록 명령하셨다. 그 뒤 그는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입으신 인간 본성을 통해서 그분을 공격하는 지옥의 시험들을 모두 극복하셔서 지옥을 굴복하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의 악을 제거하고자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악들을 쫓아 내 주신다는 진리가 위의 본문에 담긴 내용이다. 우리는 마귀 들렸던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앉아 있다함은 정착된 환경 여건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심정 상태를 의미한다. “옷을 바로 입고”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정 상태에 꼭 어울리는 진리를 공급해 주셨음을 의미한다. 멀쩡한 정신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이해성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회복되었음을 뜻한다.

스웨덴북은 악마란 이 세상에 살 때 삶의 목적이 물질적인 욕구들을 채우는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구들을 거둬 버리면 자신들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악마들이 돼지 때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돼지가 낮고 이기적인 욕구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마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돼지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구절은 물질적인 욕구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면 그 욕구들을 채워서 느끼는 만족은 사실 영혼에 대한 파괴빚임을 의미한다. 13절의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마는” 광경은 물질적인 욕구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피할 수 없는 쓴 경험이 우리에게 뒤통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본문의 다른 두 기적은 주님이 되돌아 건너가신 갈릴래아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이 두 기적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두 기적이 갖는 영적 의미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회당장이었던 아이로를 살펴보자. 복음서들을 보면 주님 시대의 유대인 지도자들 중 극소수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은 본문의 아이로와 니고데모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후 그분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과감히 요청해서 새 무덤에 안장한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등을 꼽을 수 있다. 남들이 다 아는 회당의 우두머리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로의 상태가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아이로는 열 두 살 난 그의 외동딸이 다 죽어 가는 상황에 처했으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의 딸을 살릴 방법이 없었다. 딸이란 성경에서 애착을 의미한다. 열둘이라는 숫자는 모든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이러한 아이로의 상황은 당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 중 존재했던 소수의 순수한 선함과 진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선함과 진리를 다 잃어가고 있는 그들의 세대를 인식하고 애통해 함을 의미한다.

12년간 하혈증을 앓던 여인은 아이로와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교육 수준면에서는 정반대인 사람들을 표현한다. 하혈 증세란 선한 삶에 필수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흘려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아이로와 하혈증을 앓던 여인의 공통점을 찾자면, 두 사람 모두 주님의 권능이 어떤 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병이 치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서로 조금 달랐다. 아이로는 주님이 오셔서 그의 딸에 직접 손을 얹어 달라고 청했다. 스웨덴북은 손을 얹는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행하는 안수와 같은 방법을 말하는데, 아이로는 이러한 방법이 주님의 권능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알았고 주님은 그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다.

여인은 가장 단순하고 겸손한 수단을 취했다. 그녀는 주님께 말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보지 못했던 세리의 기도를 연상케 해준다. 이러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그녀는 주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주님의 겔옷은 말씀의 글자를 뜻하고 주님의 겔옷의 옷자락이란 삶의 법칙이 압축되어 축적된 법, 즉 십계명을 의미한다. 여인을 치료한 권능은 신성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계명에 대한 단순한 순종에서 오는 힘이였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왜 너는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마태복음 19장 17절).”라고 가르치신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생명을 재활해 주시려는 주님의 섭리는 어린 소녀를 일으키시

는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아이로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는 곧 종교 지도자들 속에도 선함과 진리의 그릇터기가 완전히 다 파괴되지 않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있던 이들이 남아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어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한때나마 일깨워진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네 가지의 기적들을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그 안에 영적 진보의 단계가 설명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인데, 이는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본문의 아이로의 딸로서 많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속에 선한 애착이 결핍되어 이를 재활시켜 주시는 모습이다.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다. 이는 선함과 진리의 양면을 모두 가졌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잃은 것처럼 보인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네 번째는 주님 자신의 부활로서 신성한 생명과 권능이 모두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다.

질문 정리

- 1) 기적은 무엇인가?
- 2)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공부한 기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본문에는 몇 개의 기적이 있는가?
- 4) 첫 기적은 어디서 수행되었는가?
- 5) 첫 기적 속의 사람은 어떠했는가?
- 6)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보였는가?
- 7) 악마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 8)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악마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가?
- 10) 돼지 떼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 11) 주님은 갈릴래야로 되돌아 가셨는데, 누가 도움을 청했는가?
- 12) 아이로는 무엇을 원했는가?

- 13) 야이로의 전달자는 무슨 말을 했는가?
- 14)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어떤 기적이 수행되었는가?
- 15) 그 여인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 16)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떻게 소녀를 고치셨는가?
- 18) 주님은 부모에게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라고 하셨는가?
- 19) 주님은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수행하신 경이로운 일들
- 2) 중풍병자, 오그라진 손을 펴심 3) 3 4) 요르단 건너 지역
- 5)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다. 6) 달려와 주님께 경배했다 7) 군대
- 8) 시험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9)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 10)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 속에 빠져 죽었다 11) 야이로
- 12) 거의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려 달라고 13)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 14) 가난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 15)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서
- 16) 그녀는 잠을 자고 있다 17) 손을 잡고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 18)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
- 19)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머리말

주님을 만났던 군중, 제자들, 바리사이파인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그리고 헤로데와 나자렛 마을 사람들과 헤로디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6장

6장: 1.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 가셨다.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3.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4.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5.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7. 열 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8. 그리고 여행하는 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9.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 벌씩 끼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11.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이 말씀을 듣고 열 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13.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14.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15.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17. 이 헤로데는 일찌기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18.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와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 주마”하고는 23.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24. 소녀가 나가서 제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하고 의논하자 그 어머니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하고 시켰다. 25.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 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6.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27.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29.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3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3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말씀하셨다. 찾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33.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 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 곳에 갔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3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36. 그러나 군중들을
 헤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물었다.
 38.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하셨
 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하자 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40. 군중은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모여 앉았다. 41.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그리고 남은 빵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으며 44.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되었다.
 45.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베싸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46.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48.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네시쯤이었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50. 그들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
 여라.”하시며 51.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52.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
 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55.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 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
 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56.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
 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교리 요약

- * 주님의 능력은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신다.
- *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 *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 * 말씀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함유하고 있다.

상응 연구

헤로데 = 마음을 지배하는 사리사욕
헤로디아 = 심정 속에 든 자아 사랑
다섯 =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는 조금
둘 = 선을 실현시키는 지식 또는 진리

해설

본장의 중심과제인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유일하게 네 복음서 모두에 기술되어 있는 주님의 기적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있다(마태복음 15:32-39; 마가복음 8:1-9). 일부 성서 비평가들은 이 두 번째 기적이 첫 번째 기적과 배경이 아주 흡사하여 단순히 첨가된 기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학설에 불과할 뿐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6장 9-10절에서는 두 기적들이 각기 따로 언급되는데, 이는 주님께서 직접 두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으로서 두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된다. 말씀 속에 기록된 주님의 행동 하나 하나는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된 두 기적의 다른 점은 군중의 숫자인데, 그 다른 숫자 속의 의미가 기적의 깊은 의미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두 기적들을 비교하여 공부하면, 한층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본장에서는 이러한 기적의 기초적인 의미와 마가복음서에서 있는 이야기 전개상의 특별한 연속성에만 국한하고자 한다.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양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영적인 이해와 강함을 얻고자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속에 든 선함과 진리가 소량일지라도 그분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분의 권능을 표현한다. 숫자 다섯은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는 적지만 ‘많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다섯이란 그 자체로는 작으나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빵 다섯 개가 오천 명을 먹게 만든 것이다. 빵은 곡식 가루로 만들어진 것으로 삶 속에 든 선함을 표현한다. 요한복음은 이 빵을 ‘보리떡’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리떡이란 선함이 영적인 형질에 있지 않고 자연적인 형질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고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을 사용할 목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나서도 남은 조각이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온 선함과 진리가 이전 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군중을 풀밭에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그 군중을 오십씩 또는 백씩 앉게 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질서 있게 정리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의미한다. 군중이란 우리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 속에 든 갖가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빵과 물고기를 가져와서 나누어 준 제자들이란 주님을 인식하며 섬길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속의 보다 높은 속성들이다.

위와 같은 기적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이 일어난 당시의 주위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 이유는 그 때의 주위 배경 역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본문 1절의 “예수께서는 ... 고향으로 돌아가셨다.”이다. 이것은 그분의 고향 나사렛을 주님이 방문하셨다는 말이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거절되었다.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그들의 마을에서 함께 자란 예수의 신성하심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는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범하기 쉬운 것이다. 이는 나사렛 사람들이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무덤에 있는 천사가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24:5)?”라고 말한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즉각적인 명령은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나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마리아는 그분의 부활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단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 씩 짝지어 내보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가르치게 하시고 돈이나 먹을 것과 여분의 옷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기꺼이 영접해 주는 자의 집에서 묵도록 명하셨다고 전한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섬기려는 우리 속의 보다 높은 속성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것 그리고 주님의 영접은 자유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노력의 자세에 대한 교훈이다.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둘씩 짝지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접근시키거나 타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서 사랑과 지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 나가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총명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복음을 환영하는 이도 있지만 거절하는 이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주님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르면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11절에 담긴 내용이다.

이렇게 제자를 파견하는 사건 이후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소개되는 것은 느닷없이 화제가 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서에는 우연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의 문단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관성은 상응을 통해서만 명확히 드러난다. 헤로데와 헤로디아는 우리가 영적으로 발달해 가는 길목에 있을 때 우뚝 서 있는 가장 큰 장애물들을 상징한다. 여기서 헤로데는 주님의 탄생 시 왕이었던 헤로데의 아들이다. 이 두 헤로데는 이두매 사람으로 예사오의 후손들이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는 나라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헤로데는 지성 속에서 작동하는 사리사욕의 원리를 표현하며 나아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에 관한 것을 악용하는 원리들을 의미한다. 헤로디아는 사리사욕이라는 원리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에 합세해서 힘을 더하는 심정 속에 든 자아사랑을 의미한다. 20절을 보면, 이 헤로데는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여 그의 말을 기쁘게 듣고 여러 면에서 순종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한이 자아사랑에서 나온 악을 지적 하자 헤로데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러한 헤로데의 위선적인 행동은 사리사욕이 질서 있는 삶이나 가시적인 종교적 가치는 인정하나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으로 인해 자극 받는 것은 원치 않음을 뜻한다. 그리고 자아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억제시키는 모든 제한을 미워하며 그 제한을 제거해 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우리는 이런 헤로데와 헤로디아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들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본문은 경험에 의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더디고 느린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님은 오천 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만 갈릴래아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취하여 자신의 영혼이 아주 높이 올라간 듯 느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일상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로부터 물러 나서서 우리만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갈릴래아 바다가 상징하는 우리의 지성은 역풍에 억압당해서 우리가 탄 배는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제 52절에서 보여준 제자들같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바로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린다. 따라서 주님은 거듭하여 그분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며 기억이라는 역경의 바다를 가로질러 걸어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해안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거듭남이란 시험의 연속으로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극복해갈 때 비로소 이뤄진다. 스웨덴북은 「참된 기독교 126항」에서 시험에 대하여 “시험에 빠진 사람은 자기 홀로 시험에 빠져 있는 듯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그 때야 말로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가까이 임하시면서 그 사람이 시험을 거뜰히 이겨낼 수 있도록 떠받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인간이 시험을 정복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하느님과 가장 깊게 결합되는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질문 정리

- 1) 왜 주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수행하지 않으셨는가?
- 2) 주님은 사도들을 파견할 때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3) 헤로데 왕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4)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5) 요한을 실제로 죽게 한 자는 누구인가?
- 6) 우리 속에서 헤로데와 헤로디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7) 제자들은 군중이 배고팠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자고 제안했는가?
- 8)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들은 어떤 음식을 손에 들고 있었는가?
- 10)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11) 주님은 물고기와 빵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2) 몇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가?
- 13)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나 되었는가?
- 14)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 15) 제자들은 어떤 곤란을 당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주셨는가?
- 17) 우리는 육신의 양식 외에 어떤 양식이 더 필요한가?
- 18) 우리의 영적 양식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질문의 답

- 1) 그곳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
- 2) 어떤 여분도 취하지 말라
- 3) 세례자 요한
- 4) 그의 목을 베었다
- 5) 헤로디아
- 6) 사리사욕, 자아사랑의 지배
- 7) 제자가 양식을 구하러 보냈시다
- 8)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 9)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10) 오십 명 백 명씩 떼 지어 앉히셨다
- 11) 축사하시고

때었다 12) 오천 명 13) 열 두 광주리 14) 베싸이다 15) 역풍을 만났다
16) 물 위로 걸어 오셨다 17) 영혼을 위한 양식, 즉 사랑과 지혜 18) 홀트려진
생각을 질서대로 놓고 우리의 재질을 선용하면서 지식과 강함을 주님께게서 찾는다

32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머리말

본 장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종려주일과 연관 지어 공부할 수 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시기의 초기에 연유되고 있다. 성서 지도에서 거룩한 땅의 세 구역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이 요르단강 건너편과 여리고를 지나간 경로를 확인해 본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0장

10장: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그 때에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하고 반문하셨다. 4.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6.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

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 10. 집에 돌아 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1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이며 12.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19.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22.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23.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하고 말씀하셨다. 24.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25.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26.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7.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서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9.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싸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 주셨다. 33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 가 사형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 갈 것이다. 34.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5.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였다. 38.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40. 그러나 네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41.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4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46.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가고 있었다. 그 때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외쳤다. 48.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자 50. 소경은 걸음을 벗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 왔다. 51.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갔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찾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 * 순진함이란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 * 재물에 의지함이란 자신의 선함과 지혜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응 연구

유다 지역= 의지 또는 심정

사마리아 지역= 이해성

갈릴래아 지역= 바깥 행동 지침

어린 아이 = 순진함, 기꺼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

소경 = 영적 진리에 무지함

해설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주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 때 주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가지지 않고 베레아(Perea)를 통과하는 요르단 건너 쪽으로 해서 예리고 근처를 지나 유다를 가로질러 내려 가셨다. 본문의 사건들은 연속적이며 서로 연결되는 교훈을 지니고 있어서 흥미롭다.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의 세 부분 중 유다는 우리의 의지 부분을 표현한다. 이 부분은 우리의 예배에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바로 선택되고자 하는 의지 혹은 유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단순하지만 선한 바람이 생기는 곳으로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탄생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가장 혹독하고 저항성이 강한 반대적인 것들의 중심이 되는 곳도 의지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대적인 것들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욕망이다. 우리는 이기심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본문의 가르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한 의지를 설명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본문에서 바리사이파인, 부자 청년 그리고 사도들 모두는 겉보기에 그럴싸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바리사이파인이나 부자 청년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은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사랑과는 하나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 결혼이란 선함과 진리가 하나 됨을 의미한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진정한 삶을 위해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모세의 법(신명기 24:1)을 그들의 이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도록 해석하여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해도 되는 것처럼 법령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하느님의 법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오역하는 것은 “믿음만으로”를 주장하는 자들, 즉 자신들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함 없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들 마음에 꼭 맞도록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자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다.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구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진정한 영적 결합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심을 한쪽에 밀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결혼이 깨지는 것은 언제나 이기심이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힘과 지혜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와 주관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에 대해서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62항」에서 “지상의 결혼은 반드시 천국의 결혼으로부터 또는 천국의 결혼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주님이 한 분이신 것과 천국이 하나인 것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하나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천국의 결혼에 근원을 두는 결혼의 법칙은 한 남편에 한 아내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천국의 결혼에 근원을 두는 법칙에 따라 이뤄지는 지상의 결혼은 아내와 남편이 천국적인 결혼을 지상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천적인 인간의 표본이 되도록 한다.”라고 설명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사랑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서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려고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그들의 결합은 더욱 깊고 단단해지고 천국의 행복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들과 결혼에 대해서 토론하신 이야기 직후 그분이 어린이를 축복하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히 뒤따르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생각과 아이들이 표현해주는 속성인 순진성이 떠오르게 된다. 이 순진함이야말로 결혼으로 주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바리사이파인들에게 걸땀된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단어 innocence를 라틴어의 어원에서 찾아보면 “해가 없음”을 뜻함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해가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 상태는 자아 사랑이 가지는 마지막 모습이다. 이런 자아 사랑이 주님 시대의 바리사이파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었음은 명확한 사실이며, 그러한 그들의 주장은 결혼 중에 있는 배우자들의 결합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헤어지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순진이란 단어는 위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스웨덴북은 「천국과 지옥」 제 276-283항에서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진정한 순진은 기본적으로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고 어린이들에 의해서 표출되는 순진은 무지로부터의 순진이어서 진정한 순진은 아니라고 한다. 진정한 순진은 거듭나는 사람이 자아사랑과 교만함을 극복한 후 자라나는 겸손함과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위의 교훈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선한 삶을 영위해서 천국을 얻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선한 삶이나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의 생각은 모두 세상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에게는 선한 삶이나 천국으로 가는 삶을 위해서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그분께 의존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18절).”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구절을 언뜻 잘못 이해하면 ‘주님이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즉 주님이 스스로 하느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부자 청년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받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 할 수 없음을 그 부자 청년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계신다.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와 권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하고 하신 명령에 그가 울상이 되어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사실로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25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23절에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언급된 후 24절과 25절에서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이 언급된다. King James 성경 이후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많은 번역자들에 의해 “재물에 의지하는 자”라는 구절은 추가로 붙여진 주석이라는 추정 하에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를 언급하신 후에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을 언급하심으로 그 안에 그분이 재물에 관한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려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나쁜 면에서의 부자란 스스로 자신을 부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로 정확히 말하자면 “천국이 그들 것이다”라고 말해진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정반대되는 이들이다. 스웨덴뵐의 「천국과 지옥」 제 365항에서는 “주님은 부자들에 관하여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마태복음 19:24)’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부유함이란 자연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모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자연적인 측면에서의 부자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에 자기의 심정을 쏟은 자들을 말하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부자란 영적 부인

풍부한 지식과 학식을 가진 자들로서 이 영적인 재물을 기반으로 하고 자신의 총명을 수단으로 해서 천국과 교회에 속한 것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설명된다.

소경 바르티매오를 치료해 주는 마지막 단원은 본문을 마감 짓는데 적절한 내용이다. 그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다루신 여러 계층의 사람과 대조를 이룬다. 그는 가난했고 남들에게 하찮은 존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고 그분의 권능을 믿었기에 자신의 눈을 뜨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외쳤던 것이다. “그를 불러오너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자 바르티매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왔다.” 이 구절은 바르티매오가 자신의 생각을 즉시 중단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높여 보게 해 달라는 것만을 간구했음을 의미한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 그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이 있게 된 지역은 어디인가?
- 2)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3) 주님은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4) 주님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순진이란 무엇인가?
- 7) 부자 청년은 주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0) 부자 청년은 왜 되돌아갔는가?
- 11) 주님은 부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2)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3)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요청했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 15) 주님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유다지방 2) 예루살렘 3) 이혼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 4) 너희들의 심정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5) 어린이같이
- 6) 글자대로 보면 해치지 않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를 바람
- 7)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 8) 계명에 순종하라 9)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 10)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11) 재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12) 자신의 선함과 지혜를 신뢰함 13) 왕국에서 영광의 자리
- 14) 자리에 앉게 하는 특권은 나의 것이 아니다
- 15) 섬김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머리말

본장은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종려주일에 관한 것으로서, 성탄절에 공부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연관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어진 자의 의미를 언급한다. 기름이란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주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1장

1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4.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 가오?”하고 물었다.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7.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수많은 사람들이 겂옷을 벗어 길 위에 퍼 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10.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1.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 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 보셨으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때 먹지 못할 것이다”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사교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 16.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하고 나무라셨다. 18.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 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20.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믿어라 23.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25.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7. 그들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권한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하고 물었다. 29.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터이니 32.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33.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

다.

교리 요약

- *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 *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려는 경향들로 부터 깨끗하게 보전해야 한다.
- *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산”이란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나아가는 길가에 버티고 있는 장애물들을 말한다.

상응 연구

겉옷 = 행동의 원리가 되는 진리들

나무 = 일반적인 원리

가지 = 일상생활을 규율하는데 사용되는 원리

산(장애물) =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이기적인 느낌과 생각

해설

여러분은 종려주일, 즉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와 이에 해당되는 상응에 친숙할 것이다. 주님은 즈가리야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시키셨다. 당시 유대 백성들 역시 이 예언의 말씀과 왕이나 관관들이 노새나 나귀를 타는 것은 그들의 관습임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판관기 5장 10절과 10장 3-4절과 12장 13-14절, 사무엘하 16장 1-2절과 13장 29절 그리고 열왕기상 1장 33절과 38절과 4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 종려나무 잎이란 승자에게 내리는 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종려나무란 주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원리를 표현한다. 백성들이 외쳐댄 호산나란 “구하소서, 우리가 간구하나이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의 경우

신약 성서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전의 음악예배에서 자주 사용된다. 구약성서의 번역자들은 이 말을 번역하는 대신 그대로 사용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란 자연적인 이성을 표현한다. 오직 주님만이 자연적인 이성을 그분의 지상 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지배하셨다.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은 나귀와 성질이 아주 유사하여 발을 단단히 딛고 걸어서 잘 자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땅만을 쳐다보며 걷는 아주 고집스러운 단점도 있다. 자연적인 이성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하나 반드시 보다 높은 능력의 통제 하에 놓여야만 한다. 이 이성은 우리가 유아 시절을 지나 발달하게 되는 첫 번째 이성에 해당된다. 네 복음서 저자 중 마가만이 “두 제자가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 문이란 우리 영혼의 입구로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와서 두드리시는 문”과 같다. 그리고 자연적인 이성이 이 문 앞에 매여져 있었다. 문 앞쪽이란 우리의 감각이 물질계의 삶과 연결해 주는 쪽을 말한다. 이 세상 삶의 시작부터 이 두 길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 두 길이란 자기 이익만을 쫓는 길과 주님을 섬기는 길을 뜻한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들여 기꺼이 우리 속의 자연적인 사상을 재점검할 때, 이것은 7절의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온” 모습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의 이해와 사상을 말씀으로부터 얻은 진리와 비교한 후 그것들을 말씀아래 놓고 따르도록 할 때 우리는 “자기들의 걸옷을 새끼나귀 위에 엮어 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깊이 있는 법칙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본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하게 된다.

마가복음서에 있는 사건의 순서는 타 복음서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나 단어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신성한 영감하에 기록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문에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수반되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이 사건들은 왕이나 관관으로서의 주님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입성하심에 따라 심정과 지성 그리고 행동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표현한다. 성전을 깨끗케 하심은 우리가 자신의 의도를 검사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사건은 우리의 행동지침을 판단하는 것을, 대사제나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제기한 질문과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찾는 것을 표현한다.

이 복음서에서 처음 두 사건은 내부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마태나 누가는 주님이 성전으로 곧장 가셨다고 말하는 반면 마가는 그분이 성전만을 둘러보시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베다니아로 나가셨다고 말한다. 마가는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시다가 무화과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자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하셨다고 기술한다. 그런 다음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장사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나무라셨다. 다시 주님은 밤을 지내시기 위해서 베다니아로 가셨고,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나무의 사건은 성서 이야기의 권위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주 악용되는 구절이다. 그들 논쟁의 요지는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가 열지 않았다고 나무를 저주하실 정도로 주님이 경우 없지는 아니실 것 아니냐고 비웃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6-9절의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예배가 자아사랑으로 전복되어서이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케 하심, 즉 주님께서 인간들의 자아사랑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음을 폭로하심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뒤를 잇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 20절에서는 무화과나무가 말라져 있다. 그리고 21-22절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음이 명확해 진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데에 시선을 두자 주님께서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있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이 의아해 하는 이유는 종교에서의 믿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그릇되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가 의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지시를 열심히 따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정직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고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 혹은 친구를 단순히 믿지는 않는다. 우리가 의사를 믿는 것은 의사가 되는 길고도 힘든 과정과 의사로서 가지는 그의 자격증을 믿는 것이고, 친구를 믿는 것은 오랫동안 그와 함께하여 그를 잘 알기에 믿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느님을 믿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또는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개의치 않고 단지 믿는다는 말만으로 그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간주해 버린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말씀에 대한 것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주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본문의 23절과 24절에 있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선행 조건이라는 말이다.

본문의 마지막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이 입성하신 것에 충격을 받은 자만심의 반발작용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즉각적인 생각은 “내가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단 말이지요?” 또는 “나보고 왜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군중들은 요한이 예언자라고 믿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미덕이 악덕보다 낫다는 것, 이기적인 것보다 이타적인 것이 낫다는 것 그리고 자만보다는 겸손이 나음을 인정한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삶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진정한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는 권한을 인정하고 그분의 진리를 거울삼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느님을 거절하든지 인정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단호한 질문을 내놓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거절은 주님이 그들에게 처방해 준 약을 먹지 않고 뱉어 냈으므로 끝맺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이며 구세주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삶의 법칙으로서 그분의 법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나귀를 풀어서” 그분께로 끌고 가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 2) 그분은 어디에서 성장하셨는가?
- 3)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누가 미리 보내셨는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대략 몇 년인가?
- 5) 본과에서 다루지는 부분은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6) 이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7) 주님은 무슨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8) 제자들은 어디에서 나귀를 발견했는가?
- 9) 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10) 주님은 어디에서 밤을 보내셨는가?
- 11)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2)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는가?
- 13)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 14) 본문에는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가?
- 15)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6) 주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 17) 우리는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부르는가?
- 18) 이 주간의 목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 1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20)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타신 모습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무화과나무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2) 종려주일 다음 일요일에 무엇이 있었는가?

질문의 답

1) 베들레헴 2) 나자렛 3) 세례자 요한 4) 3년 5) 종려주일 6)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7) 나귀 8) 길가로 난 문 앞에서 9)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기 때문(요한복음 12:13) 10) 베다니아 11)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쫓아 내셨다 12) 말라버림 13) 산을 움직인다 1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자를 용서하듯이 15)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16)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근원을 물으심 17) 성주간 18) 마지막 만찬 후 체포되심 19) 십자가에
 달리심 20) 그분의 자연적인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셨음 21) 선한 일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도 없다 22) 부활절

34

성 만찬

머리말

본과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종려주일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조명 한다.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 동안 그분이 베다니아에서 밤을 보내셨음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4장

14장: 1. 과일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2.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3.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5. 이것을 팔면 삼백 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7.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8.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9.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0.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11.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12. 무교절 첫 날에는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시오.’하고 말하여라. 15.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하고 말씀하셨다. 16.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다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17.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19.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0.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너희 열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을 터이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구나.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5.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0.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셨다. 31.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32. 그들은 게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싸여서 34.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시며 36.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말씀하셨다. 37.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 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하시고 39.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그리고 다시 돌아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2.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3.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 지어 왔다. 44.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5.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46.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그 때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48.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49.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49.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50. 그 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1. 몸에 고운 삼베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52. 그러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53.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에게 끌고 갔는데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모여 들었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의 뒤를 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까지 들어 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55.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57.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58.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하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59.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 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60. 그 때에 대사제가 한가운데 나서서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1. 그러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2.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63. 이 말을 듣고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65. 어떤 자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66. 그 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67. 베드로가 불을 피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68. 그러자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69.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 패입니다”하고 말하였다. 70.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 패일 거요”하고 말하였다. 71.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72. 바로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교리 요점

- * 성만찬은 우리의 삶 안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수단이다.
- *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이층방”은 주님과 천국적인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 방을 주님을 위해 예비하고 설비해 두어야 한다.
- * 성만찬은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으신 주님, 즉 대속하신 주님을 기념한다.

상용 연구

이층방 = 영혼의 높은 평면
빵 = 선함
포도주 = 영적인 진리

해설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유입되는 선과 진리만이 우리 영혼을 키우는 영적인 영양분이다. 천사들의 생명 또한 이러한 영적 영양분으로 유지되며 인간의 영혼이 가지는 생명 역시 이를 통해서 유지된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양식과 물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양식은 선을, 마시는 것은 진리를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상응이 또 있다. 인간이 식사를 하게 될 때 그와 함께 하는 천사는 그 사람이 먹는 양식과 마시는 것에 상응되는 선과 진리에 머문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빵과 포도주를 받게 될 때 그와 함께 한 천사는 사랑의 선과 믿음의 선에 머물게 된다. 그 이유는 빵이 사랑의 선에, 포도주는 믿음의 선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상응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상은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5915항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새교회에는 세례와 성찬식이라는 두 가지 성례식이 있는데, 이는 그것들이 주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주님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거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구절이 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말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정말로 죽음에까지 이르실 것임을 실감치 못했다. 이것은 유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의 유다의 행동을 보면 여실히 들어난다. 아마도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긴다하더라도 그분께서 전에 몇 번 스스로를 구출하신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스스로를 구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 전날 베다니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그분께 부었을 때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값진

향유를 팔아 가난한자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투덜거리며 마리아의 행동에 반박한 자가 유다였다고 기록하면서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 말함과 더불어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거기 들어 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가와 마태는 마르다에 대한 주님의 칭찬의 말 다음에 즉시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대가를 대사제에게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유다는 곧 그의 나라를 표현한다. 그의 나라는 종교의 모든 것을 형식적인 것에 치중했다. 그럼에도 유다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열 두 제자들 중의 한 명이였다. 스웨덴북은 진정한 기독 종교 791항에서 “이 작업이 마무리된 후 주님은 세상에서 그분을 따랐던 열 두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다. 그리고 다음날 주님은 그들을 영계 전체에 두루 보내셔서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라고 강조한다. 스웨덴북의 증언을 토대로 유추하자면, 유다는 여전히 열 두 제자들 중 한 명인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북은 “그분의 열 두 제자, 지금은 천사들이다...”라고 서술한 점으로 보아 주님을 배반해야 했던 유다가 아닌 인간 유다는 구원의 기초를 자신 안에 가져서 사 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예배의 형식적인 면을 표현하는 유다가 사도들 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측면에서 예배의 형식적인 것들 또한 완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부분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천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을 때 주님을 배반하는 것 또한 유다가 이미 제자들 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중의 하나가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에 근심하며 저마다 ‘저입니까?’라고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구절이야말로 성찬에 참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관한 모범적인 모습이다. 이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로서 “내 속의 어떤 약함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스웨덴북의 진정한 기독 종교 13장은 성찬에 관하여 전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제 6항목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선행을 가진 이들이 성찬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앞서 공부했듯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권좌의 좌우에 앉는 것을 그분을 따르는

보상으로 요구 했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 속에 들어 있는 일반적인 성질로서, 자신을 늘 맨 첫자리에 두고 싶어 하는 욕망을 말한다. 이러한 욕구는 본문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인상 깊게 다가온다. 베드로는 믿음을 표현한다. 29절에서 그는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자부심에 찬 선언으로 인해 자신의 약함을 보고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로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베드로가 반드시 보고 인정해야 할 약함에 대한 또 다른 예를 51-52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두 절 밖에 안 되는 작은 사건은 마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다. 일부 성서주석가들은 이 구절의 젊은이가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우리가 마가에 대해 아는 바는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었다는 것과 그의 어머니가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교인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주님이 가셨던 계제마니 동산을 향하던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기운이 마가 어머니의 집에서도 느껴졌을 것이고, 젊은 마가는 얼른 일어나 따라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51-52절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상응으로 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확연해 진다. 삼베옷이란 신성에서 오는 진리를 소유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알몸이란 진리의 결핍을 표현한다. 적들이 젊은이의 걸옷을 붙잡았을 때 그가 삼베옷을 남겨두고 알몸으로 달아났다는 것은 비록 그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위협에 처했을 때 그에 대적할 만큼의 강한 믿음은 갖지 못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계제마니에서의 주님의 기도다. 우리는 주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이 무엇인지는 35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본문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인간 본성의 약함에 대한 신성한 인식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있음을 아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자신이 처한 절박한 세상적인 시련이나 사별 같은 것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그분이 보고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기꺼이 시련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61-64절이다. 이는 때로 어떤 이들이 주님께서서는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답이 이 구절들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은 스스로가 하느님의 아들 곧 메시아임을 인정함으로써 대사제로 하여금 그분을 처형하도록 하는 구실을 제공하셨다. 본문에서 이방인, 즉 교회 밖의 사람들과 있었던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본문 속의 교훈은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작은 어린이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 부자 청년은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 3) 주님은 그 청년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4) 그 청년이 기꺼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재물(에 의지함)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했는가?
- 7) 진정한 위대함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베다니아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9)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 10)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 11) 주님은 두 제자에게 과월절을 기념할 장소를 어떻게 찾으라고 하셨는가?
- 12) 과월절을 준비한 방은 몇 층에 있었는가?
- 13) 과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 14)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각기 뭐라고 물었는가?
- 15) 주님은 빵과 포도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6) 기독교의 성례식 중에서 이날 시작된 예식은 무엇인가?

- 17)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주님은 저녁 식사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 19) 거기서의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 20)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21) 그는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가?
- 22) 주님은 어디서 심문을 받으셨는가?
- 23) 대사제는 주님에 대해 어떤 죄명을 만들었는가?
- 24)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은 무엇인가?
- 25)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 2)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3) 계명에 순종하라
- 4)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
- 5)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 6) 영예의 자리
- 7) 모든 이를 섬김
- 8) 주님께 기름 부었다
- 9) 쓸데없이 낭비했다
- 10) 그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 11)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 12) 이층방
- 13) 이집트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해방됨
- 14)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 15)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16) 성찬
- 17) 신성한 선함과 진리
- 18) 계셰마니
- 19)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 20) 가리옷 사람 유다
- 21) 입마춤
- 22) 대사제 앞에서
- 23) 신성모독, 그리스도라는 주장
- 24)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 25)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

35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머리말

성만찬이 제정된 것과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까지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은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대사제들이었다는 점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5장

15장: 1.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기었다. 2.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3. 대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자 3. 빌라도는 예수께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하고 다시 물었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6.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빠라는 사람이 있었다. 8. 군중은 빌라도에게 물려가서 전례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 달라는 것이냐?”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1.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빠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질렀다. 14.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냐?”하고 외쳤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16.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들였다.

17.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18.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면서 경례하였다. 19.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20. 이렇게 희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려 끌고 나갔다. 21. 그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23.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24.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예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씌여 있었다. 27.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 손 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2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목숨이나 건져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3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32.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하고 서로 지껄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33. 낮 열 두 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이다. 35.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36.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39.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고 말하였다. 40.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따라 다니며 예수께 시중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 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42.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43.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44.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 되었는가 물어 보았다. 45. 그리고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46.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 가지고 온 고운 베에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47.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교리 요점

- *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면하신 시험들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 * 설사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허용하지 않으면 악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

상응 연구

고운베 = 마음의 자연적 평면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온 진리

휘장 = 주님의 유한한 인성

해설

새교회는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죄 값을 치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값을 치르셨다고 믿으며, 특히 부흥회와 같은 집회에서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겪으셨던 육체적인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동정심을 갖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십자가에 못 박음은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으로 인간의 심정 안에 있는 잔인성의 표현이다. 그러나 주님 외에도 많은 다른 이들, 즉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십자가상의 수난은 주님의 시험 중에서 가장 격렬하면서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서의 그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지옥들에 의해 공격받으셨으나 늘 그것들에 맞서 싸우셨고 극복하시며 정복하셨다. 이 과업은 오로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만 이어진 것이었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787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시험은 자포자기라는 것을 동반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시험에 유혹된 사람은 흥분상태에 놓인다.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흥분상태는 곧 시험을 겪는 사람을 자포자기 상태로 유인하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시험을 견뎌 내셨으므로 그분 역시 자포자기의 상태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주님의 시험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게 되어 그들이 구원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셔서 십자가에서 유유히 내려오심으로 그들의 지성에 확신을 주셨다면 이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서 시험에 지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 그분의 마지막 시험이 된 이유이다. 주님의 적들은 그분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이 소리는 분명히 지옥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끝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설사 그와 같은 기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그들의 심정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34장에서 주님을 배반함이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본문의 첫 부분은 주님을 배반함이 우리를 어떻게 조정하여 그분을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앞의 성서에서 대사제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하느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형감이라고 선언했다. 대사제란 우리 심정 속에 든 자아 사랑을 표현 한다. 자아사랑은 주님이 신성이시고 말씀이 신성한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아 사랑이 자아에게 득이 될 것만을 챙기려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이해성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빌라도는 지성 속에 있는 거짓을 표현한다.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어떤 과오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이성은 설사 우리의 심정이 이기심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해도 주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쪽이었다. 이 상황에서 군중이란 자아사랑이 휘저어 놓은 사리사욕만을 열심히 궁리하는 우리 마음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래서 빌라도는 주님이 아닌 반역과 살인죄를 지은 바라빠를 석방했다. 이상은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길로 가겠다고 결정할 때 취하게 되는 과정의 명확한 그림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기심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행하고자 원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도록 자기 지성에 압력을 가하는 반면 진리는 통째로 거절하고 자신을 파괴 시킬 고집스럽고 악한 것들을 자기 영혼 속에 풀어 놓게 된다. 그런 다음 로마 병사가 주님을 희롱하듯이 진리가 홀룡하다고 경의를 표하는 체 하면서 진리를 희롱한다. 사실 이러한 희롱은 진리의 근원지에서부터 진리를 거짓화 해버림을 의미한다. 신성한 진리의 거짓화는 17절의 가시관으로 그려지고 있다.

주님의 걸옷을 나눠 가지는 모습은 많은 기독교회가 말씀의 내용을 취급하는 방법을 표현한다. 즉, 어떤 교파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취하고 또 다른 교파는 같은 목적으로 다른 부분을 취한 뒤 그 외의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517-2항에서 우리에게 흥미 있는 주석을 주고 있다. 이는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 27장 34절과 48절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은 십자가형에 놓이신 주님께 제공된 두 가지의 마실 것에 관한 내용이다. 쓸개를 탄 포도주 또는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주님께 제공한 것은 유대 국가와 함께 하고 있는 말씀에서 온 신성한 진리의 질적인 면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신성한 진리가 악에서 온 거짓과 혼합된 상태를 말하므로, 모든 것이 거짓화되고 그에 섞여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뱃 적셔서 히습 풀대에 꿰어 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라는 구절은 올바른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어떤 거짓을 의미한다. 그들 속의 거짓은 진리의 무지함으로부터 있는 것이어서 그 안에는 선한 것이나 쓸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이 거짓이 주님에 의해 받아졌기 때문에 그분은 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썬 히습 대란 거짓을 순수하게 함을 의미한다. 히습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9장 29절-30절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으로 유한한 인성을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시키셨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220-5항에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 졌다고 함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신성 자체와 하나를 이루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이 휘장은 성소에서 예배를 집전하던 사제들까지도 지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던 커튼이다. 지성소는 신성 자체를 표현하는데, 십자가 형 후에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듯이 주님께서도 신성한 인간으로 하나 되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라는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다. 이러한 광경은 부활절 이야기와 함께 용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본문의 끝을 장식하고 있다. 당시의 관습은 십자가형을 당한 자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럽이나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습이 있어서 범죄자들을 군중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그들의 시신을 도시나 마을의 공장에 걸어 두어 군중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게 했다. 주님의 시대에도 이와 같았다. 주님의 양쪽에 매달려있었던 두 강도의 시신은 이런 관습에 따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주님께는 유대교 평의회의 의원이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의 한 명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요구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만이 등장하나,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니고데모도 주님의 시신을 안장하는데 협력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 왔던 인물이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막상 자기들의 의회가 주님을 치욕적인 죽음에 처하게 하자 용감하게 나서서 공개적으로 그분에게 경의를 보였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한 후에도 주님을 지켜보고 그분의 시신이 놓이는 것을 보고자 기다렸던 여인들이란 역경이나 불행으로 인해서도 뿌리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단순한 애착을 표현한다. 바로 이 여인(이런 애착)들에게 부활이 제일 먼저 알려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담은 바위로 된 매장지(무덤)이란 성경을 글자대로만 아는 이들에게 보여 지는 말씀을 표현한다. 특별히 성경의 글자적인 의미가 인간의 지성의 산물일 뿐이며 신성한 지혜는 아니라고 믿는 이들을 표현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그분은 어떤 축제를 기념하셨는가?
- 2) 이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이 때 주님이 새로 설립하신 축제는 무엇인가?
- 4) 기독교의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5)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6)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맨 먼저 심문을 당하셨는가?
- 7) 대사제는 어떤 명목으로 주님께 죄가 있다고 했는가?
- 8) 그 다음 주님은 실형에 처하도록 누구에게 보내 지셨는가?
- 9) 빌라도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왜 그는 주님을 석방하지 않았는가?
- 11) 주님 대신 빌라도는 누구를 석방했는가?
- 12) 빌라도의 병사들은 주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 13) 주님은 어디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가?
- 14) 골고다로 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누가 운반해 주었는가?
- 15) 병사들은 주님의 겉옷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누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했는가?
- 17) 주님의 적들은 무엇을 해보라고 유혹했는가?
- 18)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백인대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 20) 누가 주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는가?
- 21) 그는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 22)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일 때까지 어느 여인들이 그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 23) 왜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하도록 허용하셨는가?
- 24) 주님의 겉옷을 나눠 가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함 3) 성찬
- 4) 악의 노예에서 구속됨을 기념함 5) 가리옷 유다
- 6) 대사제 7) 신에 대한 모독 8) 본디오 빌라도
- 9) 주님에게서 어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 10) 군중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다 11) 바라빠 12) 주님을 희롱했다 13) 골고타
- 14) 키레네 사람 시몬 15) 체비뽑아 나누었다 16) 두 강도
- 17) 십자가에서 내려와 빠라 18)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 19) “이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 20)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21)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22) 두 마리아
- 23) 악은 실지로 선을 파괴할 힘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음
- 24) 자신의 주장을 타인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문단을 발췌함

36

부활하신 예수

머리말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를 각자 정리하면서 본장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6장

16장: 1.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3.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 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4.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5.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6.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 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7.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하였다. 8.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9.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10.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 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2.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 두 사람도 돌아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14. 그 뒤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1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18.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면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21.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22.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교리 요점

- *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 즉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 *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 *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언제나 영적 성취가 있다는 것이다.

상응 연구

향료 = 선에 근거한 내면의 진리

해설

주님의 부활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놓일 것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런 가능성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복음서들은 그들이 주님을 볼 때까지 그분이 일어 나셨음을 믿지 않았다고 전한다. 도마의 경우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만져 볼 때까지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과 승천이 있는 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세상에 뛰어나가 복음을 전파했다. 그 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한다.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스스로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내고 텅 빈 무덤 안을 확인 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부활은 신성한 일이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물질주의를 표현한다. 주님이 안장된 무덤은 말씀의 글자를 그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살아 계시며 현존하신 존재이심을 보려면 그 무덤은 반드시 열려져야만 한다.

부활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제자들이 등장한다. 첫 번째 부류는 사도들이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상적인 희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자 주님을 버렸다. 두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이다. 이들은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믿지 못했으나 그분이 돌아가시자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그분의 시신을 돌보았다. 마지막 부류로 여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고, 십자가의 수난 때에도 그분 가까이에서 남아 있었다. 또한 그분의 시신이 놓이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으며, 그분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라도 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해 맨 먼저 무덤으로 갔었다.

제자들은 야곱의 열 두 아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속의 자질들을 표현한다. 이 자질들은 뭔가 기특한 일을 하고 싶어 하나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생각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실망에 직면하고 실패가 눈앞에 어른거리면, 이 자질들은 더 이상 우리 속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 그래서 쉽게 의심하고 낙담해 버린다. 두 명의 유대교회 의원이란 우리 지성을 통치하는 원리들을 표현한다. 이 원리가 선하다면 이들은 평소에 마음의 한 쪽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실망하는

때가 되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행동들을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켜준다. 그 다음 여인들이 있다. 이들은 신성한 속성에 대한 단순한 애착을 말하고, 이 애착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반대되어도 주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절망 밖에 없다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진정한 이해성을 받는 우리속의 바탕을 의미한다. 이 바탕이야말로 말씀 속에서 수없이 가르치고 있는 자질로서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복음 5:1).”, “그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마태복음 11:25).’” 그리고 스웨덴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은 겸손한 이들 안으로 능력을 가지고 흘러들어 가신다. 그러나 교만하여 득의양양해 하는 이들에게는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자는 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을 받으나 후자는 유입을 거절하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제 9030항).” “말씀에서 받은 신성한 진리에 따르는 삶을 자신들의 목적으로서 여기지 않고, 세상에서의 영예나 소득 또는 명성에 삶의 목적을 두면서 주님의 진리를 그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깨우침도 가능하지 않다(천국의 신비 제 10551항).” “인간이 주 하느님 구세주에게 가는데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그분의 후원 하에 말씀을 읽는 도리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분이 말씀속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은 그 마음이 밝혀져서 스스로의 이성이 인정하게 될 진리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주님의 후원이 아닌 자신의 총명이 후원하는 가운데 읽는 이들은 자신이 아르고스(Argus)보다 더 잘 보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는 진리의 한 조각도 내부적으로 보지 못하고 거짓만을 볼 따름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이 거짓은 그에게 북극성 같이 여겨져 그는 그것으로 생각의 모든 향해의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그는 두더지가 움직이는 것 이상의 어떤 진리도 보지 못하고, 그나마 본 게 있다면 그것을 구부러 자기 몽상에 두들겨 맞춘다. 이리하여 말씀속의 거룩한 것은 뒤집혀져 거짓화되고 만다(진정한 기독 종교 165항).”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심이 사십 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뵈었고 마가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다고 기록한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13-35절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마가는 이들이 “열 한 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거기에선 도마가 있지 않았고 팔 일 후에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전한다(요한복음 20:24-29). 마가복음 14장 28절(마태복음 26:32)에는 그분이 일어나신 후 그분의 제자들에 앞서 먼저 갈릴래아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음이 기록되어 있고, 무덤에서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하도록 했다. 마태는 갈릴래아에서 그분의 나타나심 중의 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28:16-17). 그리고 요한도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21장 1-23절). 주님의 승천은 베다니아에서 거행되었다(누가복음 24:50-51). 마가복음에서의 사건은 대단히 농축되어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 중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더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은 본문 17-18절에서 발견된다. 주님은 과거 그분이 전도를 내 보내셨던 팔십 인에게도 이와 유사한 능력을 주셨다(누가복음 10:19). 그러나 지금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에 대한 보충 이해를 위해 사도행전 5장 15-16절, 8장 7절, 9장 18절, 16장 18절, 19장 12절 그리고 28장 5-8절을 읽기 바란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충분한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도 그때와 같은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웨덴봄을 통해서 “기적이나 징조로는 어느 누구도 바뀌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적이나 징조가 그들의 마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인간은 두 가지의 생각, 즉 내부의 생각과 외부의 생각이 있다. 주님은 내부의 생각을 통해 외부의 사고 안으로 흘러들어 오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일치되는 자유로운 가운데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신성한 섭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에게 기적이 있고 이로 인해 믿어지도록 된다면 인간속의 자유의지와 이성 아무 필요도 없으니 멀해지고 말기 때문이다(하느님의 섭리 제 130항).”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님의 강림당시 거룩한 땅 내의 사람들은 이미 꺾데기에 불과하여 기적이 있어져도 그들의 마음은 강요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기적들을 충분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인류의 생각에 있는 영적인 평면을 다시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내면적인 생각이 가능해지자 기적들은 인간의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 되었고 질서 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8절의 주님의 약속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언제나 성취되고 있다.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지 속에 출몰하던 악들은 내 쫓겨지고, 새로운 이해성과 언어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육체적인 쾌락도 더 이상 우리의 영혼에 해를 주지 못하고, 듣거나 읽게 되는 거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독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힘이 약하고 비질서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들을 돕도록 주어지기 때문이다.

부활절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게 된다는 확증 외에도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세월 동안에서도 우리에게 진짜로 살아 있는 부분은 사실 영혼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육체의 깨어남보다 우리의 영혼에 발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것이다. 각자가 지닌 육체의 조건이 어떠한지 간에 육은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다. 물론 이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일을 잘 해나가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최선의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영체를 우리 속에 준비하고 계심을 확실히 인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가?
- 2) 우리는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는가?
- 4) 왜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5)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가?
- 6) 왜 군중은 주님을 환영했는가?
- 7) 왜 군중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주님께게서 돌아섰는가?

- 8) 그 주일 목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일요일 아침 무덤에 누가 왔었는가?
- 11) 그들은 왜 왔었는가?
- 12) 그들은 오면서 무엇을 의문스러워했는가?
- 13) 그들이 와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4)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5) 주님은 누구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는가?
- 16) 그들이 주님을 뵈었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믿었는가?
- 17) 주님은 모두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8)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9) 주님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20)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떠나셨는가?
- 21)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그리는가?
- 22) 주님이 일어나신 후 왜 여인들이 처음 그분을 뵈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부활절 2) 죽음에서 예수가 일어나셨음을 기념 3) 종려주일 4) 군중이 주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뿌렸기 때문에 5) 왕의 표시 6)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 7)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발견해서이다 8) 마지막 성찬 9) 십자가에 달리심 10) 두 마리아 11)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12) 자기들을 위해 누가 돌을 굴러 내줄까? 13) 돌은 굴러졌고, 주님은 가셨고,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14) 그분은 일어나셨다 15) 막달라 마리아 16) 아니다 17)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18)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라 19) 구원 받을 것이다 20) 승천하셨다 21) 물질주의적인 생각 22) 그녀들은 신성한 속성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하기 때문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머리말

이 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의 사도 요한에 대한 것과 당시의 주변 환경을 간략히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4장

4장: 1.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3.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취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4.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스물네 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 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 그 옥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었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훤히 따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느님의 일곱 영신이십니다. 6.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옥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생물이 네 마리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네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8.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하고 외쳤다. 9.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10. 스물 네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하느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하고 찬양했습니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 있게 되는 영적인 전투는 계속 된다.
- * 하느님의 섭리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악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 주님만이 선과 악에 대한 유일한 재판관이시다.

상응 연구

나팔 = 진리의 힘이 말을 하는 것
옥좌 = 심판
사자 = 선 또는 악의 힘
송아지 = 자연적인 애착
사람 = 지혜
독수리 = 이해성

해설

여러분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사도들이 주님께 헌신적이었으나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쉽게 잊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는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나약했었음을 느꼈을 것이다. 사도들은 부활 후의 주님을 뵈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한 후(마가복음 16:19)에도 그분께서 성령으로 다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들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전도 여행과 행적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며, 이 책은 기독교회의 시작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비록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 쓰였다하더라도 그 책에는 내적 의미가 없어서 공과 부분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과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한 초대 기독교 억압의 쓰라림을 보여 주면서, 한편으로는 사도들 간에 있었던 주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서간집들은 이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더욱 많이 주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의 삶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독교의 전통은 요한을 제외한 열 명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했다고 전한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렸다고 추측되며,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까지 살아남았다. 이것은 요한에게 주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를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 위대한 예언이 주어진 것이다. 요한의 환상은 그가 90세일 무렵 A.D. 95년경쯤에 주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그는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로부터 초기 기독교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특성과 사상을 가지고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주님께서 교회들과 그분을 믿는 이들의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허용하시는 한편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글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풀이 239항에서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는 그 속에 놓여 있는 순수한 진리들의 보호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글자적인 의미는 이러한 보호가 존재하는 한 이리저리 바뀔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력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차로 인해 그 속의 의미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만 믿는 것에는 영적인 해가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해는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 속에 든 신성한 진리가 곡해될 때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곡해가 주님의 신성한 진리로서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호하심이 바로 ‘거룩들’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래서 말씀에서 거룩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요한이 본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신성한 섭리가 말씀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선을 보호하며 악으로부터 선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다. 스웨덴북은 본문을 “심판이 말씀으로부터 집행되기 위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정리하심을 언급하는 바, 주님만이 심판하심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소개한다.

본문과 유사한 환상들을 성경에서 읽어 보고 그것들과 본문의 환상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본문과 유사한 환상들은 출애굽기 19장 16절, 24장 9-10절, 에제키엘 1장과 10장, 이사야 6장 1-3절 그리고 다니엘 7장 9-19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스웨덴북의 「요한계시록 설명」을 참조해야 하나 「요한계시록 풀이」에 있는 요약된 해석을 통해서도 압축된 설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해해 둘 것은 나팔소리란 언제나 진리의 권능이 말씀하심을, 옥좌란 심판을 그리고 네 생물(짐승 또는 거룩들)이란 신성모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설비하신 보호를 그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풀이 33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말씀속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이들, 동시에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될 때 주님께서 옥좌위에 앉고 그분 주위에 있는 옥좌들 위에 다른 심판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씀속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아는 이들은 주님이 보좌위에 앉아 계시지 않으실 것과 그분 주위에 또 다른 심판자들이 있지 않을 것도 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말씀이 모든 이를 심판하며 정의에 따라 모든 것이 행해지도록 그분께서 조절만하고 계심을 믿으리라고 본다. ‘열 둘’이란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천국과 교회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를 말하기도 한다. ‘24’도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2사도들’ 과 ‘24원로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열둘’과 마찬가지로 ‘스물 네개의 옥좌’는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위의 저서 제 237항을 보면, 일곱 횃불이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근원된 지상과 천국속의 새교회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1장 20절의 일곱 등경과 일곱별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리고 같은 책 제 238항에서는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다란 말씀의 글자의 의미에서 온 일반적인 진리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로 된 새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뒤의 참고 문헌 마지막 인용문에 언급된 새 천국은 계시록 6장 9-11절에서 기술된 첫 기독교회 속에 있었던 모든 선한 영혼들로 형성된 천국으로서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가능했다.

제 8절과 11절은 예배에서 자주 쓰이는 구절로서,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하거나 노래로 부르면 천국에서도 노래 불러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더욱이 우리가 이 구절을 신실한 심정으로 노래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시험에 대한 방파제를 우리 안에 세워 주신다.

질문 정리

- 1) 성서의 어떤 책이 기독교회의 시작에 관해 말해주는가?
- 2) 우리는 왜 이 책을 다루지 않는가?
- 3) 우리는 본과에서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4) 이 책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5)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누구에게 환상이 주어졌는가?
- 7) 요한은 어디에 있었으며,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가?
- 8) 요한은 처음에 무엇을 보았는가?
- 9)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 10) 본문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11) 옥좌에 관해 기술해 보자.
- 12) 몇 명의 원로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생물이 거기에 있었는가?
- 14)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가?
- 15)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생물을 공부했는가?
- 16) 이 생물은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 17) 그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 18) 어디서 이 말들을 들었는가?
- 19) 옥좌는 무엇을 표징 하는가?
- 20) 네 생물은 무엇을 표징 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도행전, 서간서 2) 속뜻이 없기 때문 3) 계시록 4) 묵시록 5) 환상들
- 6) 사도 요한
- 7) 파트모스섬, 유배되었다 8) 부활하신 주님 9)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10) 옥좌
- 11) 제 2-5절 참조 12) 24 13) 4 14)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 15) 에제키엘 1장 16) 거룩들
- 1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18) 예배시간의 답창 순서에서 19) 심판
- 20) 신성한 섭리의 보호하시는 권능으로 사자는 선을 위한 권능을, 송아지는 자연적인 애착을, 사람은 지혜를 그리고 독수리는 이해성을 표징 한다.

봉인된 책

머리말

37장의 내용이 본과의 서론이 되므로 연결하여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5장

5장: 1. 나는 또 옥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돼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4.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5. 그러나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6. 나는 또 그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신입니다. 7.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8.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1. 나는 또 그 옥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효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으며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교리 요점

- * 새 교회는 열린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 * 주님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들을 스웨덴북에게 밝히심으로써 말씀의 봉인을 Ep했다.

상응 연구

- 양 = 순진함 또는 선
-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 = 영적인 선으로 예배함 또는 성도들의 기도
- 하프 = 영적인 진리로 주님께 고백함

해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요한 계시록 풀이」에서 본문에 대한 개요를 “신성한 인간으로서의 주님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따라 심판을 집행하실 것인데, 이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항은 세 천국의 모든 이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성경에는 “생명의 책”에 관한 언급이 많다. 신명기 31장 9절이나 예레미야 36장

1-4절 등과 같은 구절들에서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이 봉인된 책으로 있어서 왔음을 증명하는 것은 본문만이 아니다. 이사야 29장 9-12절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은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 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하고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예언을 받은 예언자들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 말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봉한 채 비밀에 붙여질 것이다 (다니엘 12장 8-9절)’ ”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봉해놓으셨다는 것과 주님 외에는 그 말씀을 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여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인간의 마음이 발달하여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주님의 신성부터 밝혀주는 어떤 열쇠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새교회는 열린 말씀에 기초한다. 이는 우리가 가진 성경책 중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은 주님에 의해 말해진 신성한 진리임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가 인간에게로 도달되기 위해서 천국적인 것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지상적인 생각과 표현의 형태들로 상응되도록 옷 입혀졌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인간들이 사는 지상에 도달되기까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인간들과 생명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말씀을 담은 글자는 신성한 진리의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선과 악의 양면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진리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경에는 진정한 진리가 그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표현을 옷 입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서 주님이 성내시고 시기하시며 복수심에 불타고 처벌하며 파괴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들이 삐뚤어지고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면 그들을 훈육하기위해서 엄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십계명이 ‘...하지말라’라는 금지형의 형태여서 그것을 비평하는 학자들은 그것의 부정적인 형태가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다. 즉,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적질 하지 말라’하는 계명의 경우 도적질을 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그리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님의 진리는 악한 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주지만 선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힘이 된다. 주님이 악한 자들을 계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의 나쁜 버릇들을 늘 점검하면서 그들의 선함에는 용기를 북돋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씀을 담은 글자적인 의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웨덴북은 「성경에 관한 교리」 제 30항에서 “말씀을 담은 글자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나 천적인 의미를 담은 용기이며 그릇이다”라고 말한다. 글자적인 의미가 없으면 신성한 진리는 마치 그릇이 깨어지면 내용물이 쏟아져서 못쓰게 되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말씀은 봉인된 채 존재했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열리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되어 있었다(다니엘 12:4). 스웨덴북의 설명에 의하면 마지막 때란 말씀이 열리게 된 때 곧 18세기 중반을 의미한다. 그때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갈팡질팡하기도 했지만 많은 선한 사람들이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알려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적인 지식이 증가하고 출판이 발달되어서 글자적인 의미로서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태가 되어 주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주님께서서는 이마누엘 스웨덴북의 준비된 마음을 통하여 상응에 관한 지식을 다시 한 번 밝히심으로써 온 인류를 위해 말씀을 여셨다. 스웨덴북이 주님께 받은 계시들에는 말씀의 구절구절의 상응적 의미에 대한 설명과 영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이 세상의 우리와 영계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말씀을 여셨다는 것의 참다운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교리로서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목적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약속된 주님의 재림이며, 이 재림은 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것이다. “(영혼의)하늘의 구름에 오심,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마태 24:30)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여심으로써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심을 성취하신 것이다(요한복음 16:12).

본문은 “그러나 그 두루마기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다”라고 전한다. 스웨덴북이 자신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말씀의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밝혀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관한 교리」 제 25항에서는 “순수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며 그분으로부터가 아닌 한 어느 누구도 말씀 안의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며, “오랫동안 영적 의미가 인식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교리의 거짓 속 특히 주님에 관한 교리의 거짓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진리를 인정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스웨덴북은 계시록에 기술되는 싸움이란 영적인 의미에 대한 이 세상의 반대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말씀에 관한 새교회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의 경우 타교회의 교리에 밀착된 친구 또는 친척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나누어 갖고자 애썼을 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반박을 당하거나 거부를 당해본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에제키엘(2:9-10, 3:1-3)과 요한(10:8-10)의 환상에서 그들에게 책을 받아먹으라고 했고, 두 사람 모두 책이 입에서 꿀같이 달았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바를 요한이 경험으로 입증한 바는 “네 배에 들어가면 배를 아프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개봉된 말씀을 우리가 맛만 볼 경우 그것은 기쁨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게 되면, 즉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게 되면 처음에 느꼈던 기쁨과 약속은 사실은 길고 고통스러운 신앙의 고행 후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 살아온 방식들을 변화 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아주 소극적으로 변해 버리기도 한다.

본문은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관한 것과 말씀을 통해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권능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란 사랑의

측면에서의 주님을 그린다.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란 교회 속에서 신성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인성 측면의 주님을 말한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란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말한다. 생물과 원로들의 손에 들린 거문고란 영적인 선으로 부터 주님의 신성한 인성을 고백하는 것을 표현한다. 새로운 노래란 주님만이 심판자요 구속자시요 구원자이신바 천상천하의 하느님이심에 대한 인식과 영화로우심을 의미한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다”란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확증을 의미한다. 생물 또는 거룩들이란 말씀의 글자로 내적인 진리를 주님이 보호하심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스물 네 명의 원로들이란 천국과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린다.

질문 정리

- 1) 하늘에서 문이 열리자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2) 옥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는가?
- 3) 몇 명의 원로가 그곳에 있었는가?
- 4) 얼마나 많은 생물이 그곳에 있었는가?
- 5) 그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졌는가?
- 6) 그 생물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생물은 주님께 예배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 8) 본문에서 주님은 그분의 오른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
- 9) 왜 요한은 울었는가?
- 10)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11) 요한이 본 어린 양에 관하여 설명해 보자.
- 12) 원로들과 생물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노래했는가?
- 14) 그들이 부른 새 노래는 어떤 것인가?
- 15) 노래 부른 뒤 네 생물은 뭐라고 말했는가?
- 16) 아멘은 무슨 뜻인가?

- 17) 이 책의 나머지에 있는 요한의 환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18) 새교회에서는 봉인이 떼어짐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옥좌 2) 주님 3) 24 4) 4 5)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6) 거룩들 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8) 두루마리 또는 책 9) 봉인을 뗀 자가 없어서 10)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11)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뿔, 일곱 눈 12) 거문고나 향이 담긴 금대접 13) 수천수만 14)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15) 아멘 16) 그렇게 되어 지리다 17) 모든 것의 심판 18) 주님이 그 책을 여셨다는 것, 내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됨

39

심판과 거룩한 성

머리말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과 6절을 읽어 보자. 또한 계시록 21장 2절도 주목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21장 1-7절

20장: 11. 나는 또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토해 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15.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교리 요약

*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가 하는 도덕적 또는 영적인 선택들로 자신의 “생명의 책”을 집필한다.

- * “생명의 책”은 “인격의 책”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며, 이 책에 기록된 바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 * 천국적인 교리로 읽게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길과 목적에 관련된 무한한 진리의 근원이 된다.

상응 연구

이름 = 품질, 품성, 성질

불 못 = 심정 속에서 타고 있는 자아 사랑, 지옥

성 = 교리

예루살렘 =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생명의 샘 = 말씀

해설

계시록의 중간 부분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개개인의 삶에 있어지는 것들이 상징적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가리고 있는 봉인이 하나씩 떼어진다는 것은 더 깊은 진리들이 교회와 개개인의 심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 과정에 있게 되는 선과 악의 싸움 곧 주님의 권능과 지옥의 세력 간의 전투에 대한 기록들이 그 뒤를 따른다. 우리가 진실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가야할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즉, 말씀의 구절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신의 편리나 이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속의 의미를 배우면 배우수록 우리 속의 심정과 지성 속에 든 더 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말씀의 내적인 의미는 영적인 생각과 삶을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해주는 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교훈들과는 반대가 될 때도 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여 폭 쉬도록 자신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시험이 끝나면 더 깊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속의 또 다른 어둠을 주님께서 보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계시록에서 봉인이 하나씩 떼어짐과 더불어 황폐함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계시록에 있는 모든 전투는 주님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악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만족해 버리는 자족함은 영적인 실패의 상징이다. 악을 보고 싸워 극복한 것들만이 우리 속에 남아 영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한 사람을 칭송한다. 하지만 세상적인 직업과 일에 대한 우리의 열의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노쇠해지면 열의는 있어도 이를 수 없게 된다. 반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처럼 늙지도 쇠약해지지도 않는다.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욱 힘 있게 나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되 세상적인 일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거짓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과 거짓에 대항하여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도록 허용하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린 말씀을 읽고 계속 공부해 나간다면 새로운 싸움은 늘 새로운 승리로 이어질 것이며, 주님께서도 우리가 더 알찬 삶으로 자신을 인도할 어떤 것을 발견하도록 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짐이 반드시 스스로의 마음이 원해서 해야만 주님과 협력 관계가 성립되어 이뤄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열린 말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늪은 뱀의 다른 이름인 용으로 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의 짐승은 우리의 심정 속에 든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바램들과 지성 속에 든 거짓 사상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것들을 조금씩 인식하여서 날마다 그것들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끝내는 생명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러한 세력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제 20장의 마지막 절은 마지막 심판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수세기를 걸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글자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사람들의 영혼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날까지 무덤에 남아 있다가 심판 날에 들리어져 다시 육을 입고

자기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에 있는 책을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여 보관 하는 책으로 간주하면서, 이 책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읽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웨덴봄에 의하면 다른 누군가가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행동들을 기록하여 보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기록되고 보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우리의 심정에 모두 새겨 지게 된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장차 영계로 가서 펼쳐질 우리의 “책”인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판이란 타인에 의한 심판이 아닌 완전한 자유 속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선 또는 악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3장 8절과 3장 4-5절 그리고 2장 17절을 읽어두기 바란다. 우리 속 가장 깊은 성품이 말씀의 신성한 진리에 일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쓰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모든 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곳, 상호간의 사랑이 있는 곳, 어느 누구도 자신을 찬양하지 않는 곳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섬기기만을 원하는 천국의 영역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속성이 자아로 집중되어 있음이 입증된다면, 즉 생명의 책에 우리가 쓰여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영역은 지옥의 영역으로 자신만을 추켜세우느라 정신없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고 우겨대는 고집과 시기심으로 불타고 있다. 이곳이 바로 계시록의 “불 못”이다.

계시록의 21장과 22장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구절들이다. 계시록은 종종 “새교회의 헌장”이라고도 불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이 책의 봉인이 떼어짐과 마지막 심판 뒤에 바로 이어지고 있다. 창세기 첫 장 첫 절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의 궁극에 해당되는 결과, 즉 태초로부터 주님이 예견하시고 바라신 최후의 결과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다. 인류로서의 인간이든 개인으로서의 인간이든 모든 인간의 역사는 두 개의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 있다. 2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

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새 하늘과 새 교회를 다룬 「진정한 기독교 종교」 791항에서는 “이 일이 끝난 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분을 따랐던 열 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다음날 그들을 영계 전체에 파견하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분의 왕국은 세세토록 있게 되는 바, 이는 다니엘서(17:13-14)와 계시록(9:15)에서도 예언되고 있다. 이일은 1770년 6월 19일에 거행되었다”라고 설명된다. 이 날은 스웨덴봄의 저서에서 언급된 유일하게 특별한 날짜이기도 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월 19일을 “새교회 날”로 기념하는 이유이다.

「요한 계시록 풀이」 제 879항에서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구절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옛 교회의 마지막 시기에 주님에 의하여 세워진 새교회를 의미한다. 이 교회는 교리나 삶의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로 된 새 하늘과 연합될 것이다.”라고 설명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과 기초에 관한 것들이 의미심장해지도록 만든다. 새 하늘은 영계에 건설되어 있다. 그곳은 기독교인의 천국이며 각자의 교단이 무엇이었던 간에 선한 삶을 산 모든 영혼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고향인 것이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선함으로 인해 지상에 있게 되는 주님의 새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지상의 새교회는 삶이나 교리의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새 천국과 연합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삶에 선함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삶에 선함을 이루는 것은 진정한 교리를 바탕으로 있게 되는 말씀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요한복음 15장 16절).”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스스로의 당위성이나 선함의 타당성을 위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거나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복음서를 보면 사도 중의 제일이라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고 열 두 사도중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 역시 그분을 배반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누구라도 이들과 같은 행동 또는 더 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복음 곧 세상을 어둠으로부터 밝히기

위해 우리에게 위탁하신 진리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린다면, 이것이 바로 그분을 부정하며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만들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당부하고 계신다.

질문 정리

- 1) 요한이 본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은 무슨 책인가?
- 2) 그 책은 얼마나 많은 봉인이 찍혀서 봉해져 있었는가?
- 3)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4) 본문에서 옥좌 앞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5) 열려있는 책이란 무엇인가?
- 6)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되는가?
- 7)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제 21장 첫 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9)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하늘과 땅에 관하여 처음 접해보았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가?
- 11) 이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이 도성에서 축복 받는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 주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15)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 16)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 18) 생명의 샘물은 무엇인가?
- 19)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말씀 2) 일곱 3) 주님 4) 죽은 자들 5) 개개인의 인격 6)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7) 불 못에 던져지다 8) 새 하늘과 새 땅 9) 창세기 1장 1절 10) 거룩한 성 11) 새 예루살렘
- 12) 우리 교회의 이름이므로 13)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그리고 고통이 없다
- 14) 알파와 오메가 15)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16) 생명의 샘물
- 17) 진리에 목마름 18)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19)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격이 발달함

40

새 교회 날

머리말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 졌다는 것과 인류를 위해 말씀의 진리를 밝혀 주심이 재림임을 강조한다. 주님은 인간이 언제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려 주셨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기회는 예전의 어느 때보다 훨씬 많으나 그분을 거절하는 대가 역시 같은 비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2장: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셋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교리 요점

- *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성경을 열어 주심으로써 성취되었다.
- * 이 밝히심은 인류에게 있게 되는 가장 큰 밝히심으로 마지막 계시이다.

해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요한의 환상의 본질과 그 목적, 지상에 있게 되는 주님의 교회와 개개인 속에 나타나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여러 가지 형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려지는 천상천하의 마지막 교회의 이모저모 그리고 그 도성에서 살고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들에 관하여 공부했다.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791항은 우리가 “새교회 날”로 기념하는 근거를 알려주고 있다. 본문은 말씀의 마지막 아홉 개의 구절로서 말씀에 관한 전 가르침과 주님의 새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의무에 관한 실질적인 요약이다. 각 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3절 -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천하의 한 분이신 하느님임을 인식해야 한다.

※14절 - 우리가 이세상과 저 세상 양쪽 세계 모두에서 평화와 행복 안에, 거룩한 성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15절 -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위에 악에 따른 많은 시험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6절 - 주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

※17절 -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날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18절 - 주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려 하면 심각한 곤경이 뒤 따를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계신다.

※19절 - 우리가 스스로의 유한한 욕망을 쫓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거절하거나 바꾸려 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성안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20절 - 우리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심 또는 마지막 오심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해야 한다.

※21절 -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과 악함을 모두 인식하여 용서와 사랑을 주님께 구해야 한다. 동시에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본이 내 인격에도 답하지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재림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768 - 790항과 846-847항 그리고 「요한계시록 풀이」 제 875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가?
- 2) 우리는 그날을 왜 그렇게 부르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 4)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인가?

- 5)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아는가?
- 6)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절은 어디서 자주 접했는가?
- 7) 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만드셔야 했는가?
- 8) 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뜻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언젠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가?
- 9) 우리가 어리다하더라도 위의 사항(8항)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10) 왜 많은 이들이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가?
- 11) 10항과 같은 잘못된 결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 12) 어떤 법이 결코 변할 수 없는가?
- 13) 주님은 우리의 새 시대에 부응되도록 무엇을 해주셨는가?
- 14) 주님의 이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의 날 2) 진정한 기독 종교 제 791항 참조 3) 나는 알파와 오메가...
- 4)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5) 요한이 그분을 인정했으므로
- 6) 예배의 축복기도에서 7)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통찰할 필요성 때문
- 8)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선한 것을 사랑함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
- 9)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10) 굉장한 과학 발전
- 11) 성경의 법은 시대에 뒤진다는 생각 12) 주님의 법
- 13) 말씀의 내적인 예배를 여셨다
- 14) 새 진리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

